

碩士學位論文

地域社會에서 大學의 役割에 關한 研究

- 濟州大學校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 專攻

韓 昇 熙

2003년 7월

地域社會에서 大學의 役割에 關한 研究

- 濟州大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永 哲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5月

韓 昇 熙



韓昇熙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6月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제2장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12
1. 지역의 개념과 대학의 본질	12
2.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관계	19
제2절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23
1. 지역대학의 역할	23
2.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33
제3절 분석의 틀	37
제3장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분석	40
제1절 제주대학교의 현황	40
1. 대학의 규모	40
2. 대학의 자원현황	42
제2절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분석	45
1. 교육기능 측면	45
2. 연구기능 측면	51
3. 사회봉사기능 측면	57

제4장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70
제1절 조사의 설계	70
1. 조사도구 제작	70
2.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72
3. 자료 처리	74
제2절 조사결과 분석	75
1. 지역대학의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	75
2.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역할 인식	79
3.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인식	84
4.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요구	88
제3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과제	95
1. 조사 결과 시사점	95
2.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대학의 과제	97
제5장 요약 및 결론	104
참고문헌	112
Summary	120
부 록	
1. 분과학문 설치 현황	127
2. 연구소 설치 현황	128
3. 인식조사 질문지	129
4. 질문지 응답 교차집계표	134
5. 대학역할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148



표 목차

<표 3-1> 제주대학교의 규모확충 추세	41
<표 3-2> 제주지역 대학현황과 제주대학교의 비중	42
<표 3-3> 대학의 인적 현황	43
<표 3-4> 대학시설 현황	43
<표 3-5> 계열별 분과학문 설치 현황	46
<표 3-6> 제주지역 학생의 진학기회 제공 실태	48
<표 3-7> 제주지역 출신 재학생 현황	48
<표 3-8> 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현황	49
<표 3-9> 학문분야별 인력양성 배출 현황	50
<표 3-10> 최근 3년간 취업률 및 지역내 취업 현황	50
<표 3-11> 최근 3년간 지역관련 연구활동 실적	52
<표 3-12> 학술연구용역 참여실적	53
<표 3-13>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연구사업 실적	55
<표 3-14>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실적	55
<표 3-15>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실적	56
<표 3-16>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 개설 현황	58
<표 3-17> 지역사회 협력 공동운영 강좌현황	59
<표 3-18> 지역사회(주민)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60
<표 3-19>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실적	63
<표 3-20> 학생에 의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65
<표 3-21> 지역사회와 교류협력 체결 현황	66
<표 3-22>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주요 사례	67
<표 3-23> 대학발전기금 조성현황	69
<표 4-1> 질문지의 구성 내용	71
<표 4-2> 질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72
<표 4-3> 응답자 개인특성 변인별 응답사례	73
<표 4-4> 대학 인지도	76

<표 4-5-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77
<표 4-5-2>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야	78
<표 4-6>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 인식	78
<표 4-7> 교육기능에 대한 인식	80
<표 4-8> 연구기능에 대한 인식	81
<표 4-9> 사회봉사기능에 대한 인식	83
<표 4-10>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85
<표 4-11>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87
<표 4-12> 지역대학에 대한 역할 기대	88
<표 4-13> 대학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89
<표 4-14> 대학의 중점과제	90
<표 4-15> 교육기능 확충 방안	92
<표 4-16> 연구기능 강화 방안	93
<표 4-17> 사회봉사기능 확대 방안	93
<표 4-18> 대학 특성화 분야	95
<표 4-19> 대학역할에 대한 인식(종합)	107
<표 4-20>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인식(종합)	10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9
<그림 2> 대학의 기능간의 관계 모형	18
<그림 3>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상호관계	21
<그림 4> 대학과 지역사회간 악순환 관계	22
<그림 5> 연구분석 틀	3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새 천년과 함께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환경 변화의 특징을 논함에 있어 세계화·지방화, 정보화·개방화, 탈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동원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적 장벽을 해소하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세계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자본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적자원¹⁾이 중요시되는 뇌본(腦本)사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powershift)」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무력이 국력이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富)가, 21세기는 지식이 곧 국력이자 최고의 권력수단이라고 했다.²⁾ 또 드러커는 다음사회(Next Society)를 모든 것은 지식으로 통하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식이 핵심자원이 되고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한 지식근로자가 노동력 가운데 가장 지배적 집단이 된다고 했다. 또한 정보 확산의 용이성과

1)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란 개념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력(Man Power)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사전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결국 '인적자본'이란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가치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도덕적 품성과 가치관, 경험과 지혜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식·기술, 도덕적 품성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정책의 배경과 주요과제", 2002. 2. ;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pp. 80~95).

2) Alvin Toffler(이규행譯),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1.

신속성으로 대학과 같은 지식사회 기관은 비록 지역에서 그리고 자신들만의 시장에서 활동하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³⁾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창출·확산·공유·활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로서 지식이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경쟁력의 원천이고 창조적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풍요를 결정하게 된다.⁴⁾ 따라서 사람과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밀집되고, 그 창출과 활용의 본산이면서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본질 기능으로 하는 대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의 두 가지 변화추세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는 대신 삶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위 세방화⁵⁾(Glocalization)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의 독자적 특성이나 정체성, 그리고 자원이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라는 말은 지방화가 세계화를 위한 기초전략 내지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상황의 전개와 함께 그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차원⁶⁾을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의

-
- 3)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지난 50년이 '경제문제'가 주류인 시대였다면, 다음 30년은 '사회적인 이슈'가 주목을 받는 시대로 예측하면서, 다음 사회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최대 기회이자 생산수단을 소유한 새로운 자본가가 되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역설했다. 지식사회의 특징은, 첫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국경이 없어진다', 둘째 누구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이 쉬워진다', 셋째 누구나 생산수단으로서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다(Peter F. Drucker, 옮김 이재규,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2002).
- 4)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2000, p. 1.
- 5)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말은 세계화(Globalism)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공보처, 「세계화·지방화 추진전략」, 1995, P. 292 ;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Newyork : Vintage Books, 1991, pp. 301~315).
- 6) 정부는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0~1991)을 통해 인구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대학 신설이나 증원을 억제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내용을 담고 추진해 왔다.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핵심수단으로서 지역대학의 육성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⁸⁾ 이는 지역발전

7)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임재해(1997)는 '지역'은 '지방'이라는 말과 달리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전제하고, '지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있다. 대학의 본질과 체계상 '중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눌 수 없으며, 대학이 특정 행정단위나 특정 사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속하는 대학보다 수준이 낮다는 선입견이 있다는 점이다. 전상인(1998)은 '지방대학'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닌 우열을 규정하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보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우위를 당연시하고 서울 중심주의가 강조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 이석주(2000)는 '지방대학'이라는 단어는 '수도권(서울) 대학'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다소 차별적이고 부정적이며 폄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대학'을 '00권 지역대학'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세철(2000)은 '지방'이라는 용어는 중앙에 대한 정치적 하향성, 경제적 하청성, 문화적 하급성으로 대변되는 주변적 특성을 내포한다고 보고, 한 국가를 전체라는 대상으로 볼 때 그 중 한 부분으로서의 일정한 지리적 공간으로 중앙에 종속되는 '지방'개념 보다는 독자적인 '지역'이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지향 즉, 수도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집중체제에 익숙해져 중앙에 상대되는 말로서 '지방'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에 비하여 상대적인 결핍 내지 종속을 내포하는 의미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와 부분간의 상관성을 전제로 '전국'에 대비되는 상대적 의미의 '지역대학'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8)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비전에 의하면, 국정목표와 원리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제시하고, 그 핵심전략으로 지역대학 육성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의 수단으로서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RIS)과 함께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 및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과제 속에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산업특구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에 지방대학을 그 혁신주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점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president/vision).

이에 앞서,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지방대학 중심기지화를 지방화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盧, 지방화 3대 전략 제시", 2003. 2.11, www3.yonhapnews.net).

이러한 국정의지를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9)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또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교정적 균형정책과 지역의 비교우위와 특성을 발전시키는 역동적 균형정책을 병행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수단으로서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 육성 방안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기능 강화, 채용 장려제와 같은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지방대 발전방안 주요 내용", 2003. 4.24자, www3.yonhapnews.net).

전략이 종전 도로를 개설하고 공단을 조성하려는 발상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산업화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양성보다는 자본유치를 통한 대규모 공단을 지방에 조성하고 지역 고용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⁹⁾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있는 지역에 자본이 투자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육성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보유하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지식과 가치의 창출과 확산이 지식기반사회의 원천이라고 볼 때, 지식과 정보·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지역의 역동성을 견지하는 근원지가 되고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현 실정에서 지방의 경우 고급 전문인력의 80%가 대학에 소속되어¹⁰⁾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의 발전을 혁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대학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의 인재에 의한 정책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기대와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사회와 대학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이다. 지역사회가 대학을 아끼고 적극 지원하면 대학은 발전할 것이고,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지역대학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 관련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의 의미와 역할, 그 위상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지역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고, 그 역

9) 주철안,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의 실태분석 및 육성전략”,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0, p. 120.

10)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 58.

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제주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태도는 실제 어느 정도인지? 에 문제의식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통한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러한 역할과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의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 측면에서 사례 대학의 경험적 실태와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둘째,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의한 지역적 역할과, 그 경제적·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질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계인식, 지역대학에 거는 기대와 요구 및 발전과제 등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험적 실태의 분석과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대학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우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자료수집의 가능성과 지리적·시간적 제약성 등을 감안하여 공간적 대상은 제주 지역사회와 제주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범위로서 제주도라는 공간·지리적 경계는, 우선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분명하다. 또한, 도(道)단위로서의 행정구역과 일치

할 뿐만 아니라, 일일생활권 내지 시장권이라는 점에서도 경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섬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관광관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경계의 모호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¹¹⁾

연구사례인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고등교육의 장(場)으로서 문을 열었다. 2003년 현재 제주지역에는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제주대학교를 포함하여 2개교, 특수목적 대학인 교육대학 1개교, 전문대학(사립) 3개교 등 모두 6개의 대학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나 설립시기, 그리고 대학의 설립목적과 취지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¹²⁾.

내용적 범위는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즉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을 통한 지역적 역할과 그 파급되는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구자료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경험적 실태와 사례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역할에 대한 인식수준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검토 정리하고,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한 객관적 실태와 경험적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질문지에 의한 인식조사 결과를

11)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전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적은 인구, 전국토의 1.8%인 좁은 면적, 그리고 4개뿐인 기초자치단체,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60.6%)와 총생산액(73.8%),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지역사회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제주도내 6개 대학의 현황과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제주대학교의 비중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기술적으로 분석·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기술(서술)적 연구에 해당된다.¹³⁾ 그 방법과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는 선행의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파급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역할은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으로 나누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둘째, 경험적 사례 분석은 연구대상인 제주대학교의 규모와 자원보유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적 측면의 각종 현황과 경험적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수집·정리하였다.¹⁴⁾

(1) 먼저, 교육기능은 교육(진학)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다양성과 관련된 ①분과학문 설치현황, ②제주지역의 진학자원과 수용 규모를 분석하고, 인재양성 측면의 ③학위과정 및 학문분야별 인재양성 배출현황, ④제주 지역내 취업실태 등을 각종 통계자료에서 발췌·인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기능은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 역할 및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①교수의 지역사회 관련 연구실적, ②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용역 참여 실태, ③연구소·연구센터 등 연구기관 설치 현황, ④산학협동에 의한 지역관련 연구실적 및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수집·정리했다. 여기서 제주대 교수들의 지역 관련연구실적과 지역문제 해결 측면의 학술용역 참여실태 자료는 제주대학교에서 발간된 「교수연구업적」(1999~2001)에서 발췌·정리하였다.¹⁵⁾

13) 사회과학은 그 방법론상 서술적 연구, 상관관계 연구, 역사적 연구, 발전적 연구, 사례·현지 연구, 비교연구 등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는 그 연구방법상 서술(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에 해당된다. 서술적 연구는 관심의 영역과 상황을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것이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행해지는 연구로서 인구나 여론조사, 과업분석 연구, 관찰, 문헌, 서류분석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김광웅, 「방법론 강의」, 박영사, 1999, p. 172).

14) 대학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는 연구 시점상 2002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용자료 대부분은 2002년 9월 현재, 제주대학교 발간물을 중심으로 발췌·재정리하거나 직접 인용했다. 그리고 자료내용의 일관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료는 대학 관련 부서의 확인을 거쳐 재구성 정리하였다. 또한 일부는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동안 추가적으로 수집된 최근 자료를 반영·보완하였다.

15) 이 자료는 2002년 4월 1일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개인별 연구업적을 논문,

(3) 사회봉사기능은 지역주민의 지적·문화적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①평생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태, ②각종 문화행사 및 시설 등 대학자원의 개방, ③교수와 학생들에 의한 사회봉사 활동, ④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 사례 등을 수집·정리하였다. 여기서는 대부분 제주대학교 자체 발행한 자료들로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연찬회 자료집 및 대학요람, 대학사(史) 등을 망라하여 발췌 정리하였다.

셋째, 실증적 조사연구로는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 틀에 의거,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부록 3)하였다. 이 질문지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과, 경제적·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제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대학 역할에 지역사회의 이해와 향후 역할기대 및 발전과제와 방안 등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진행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제1장은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및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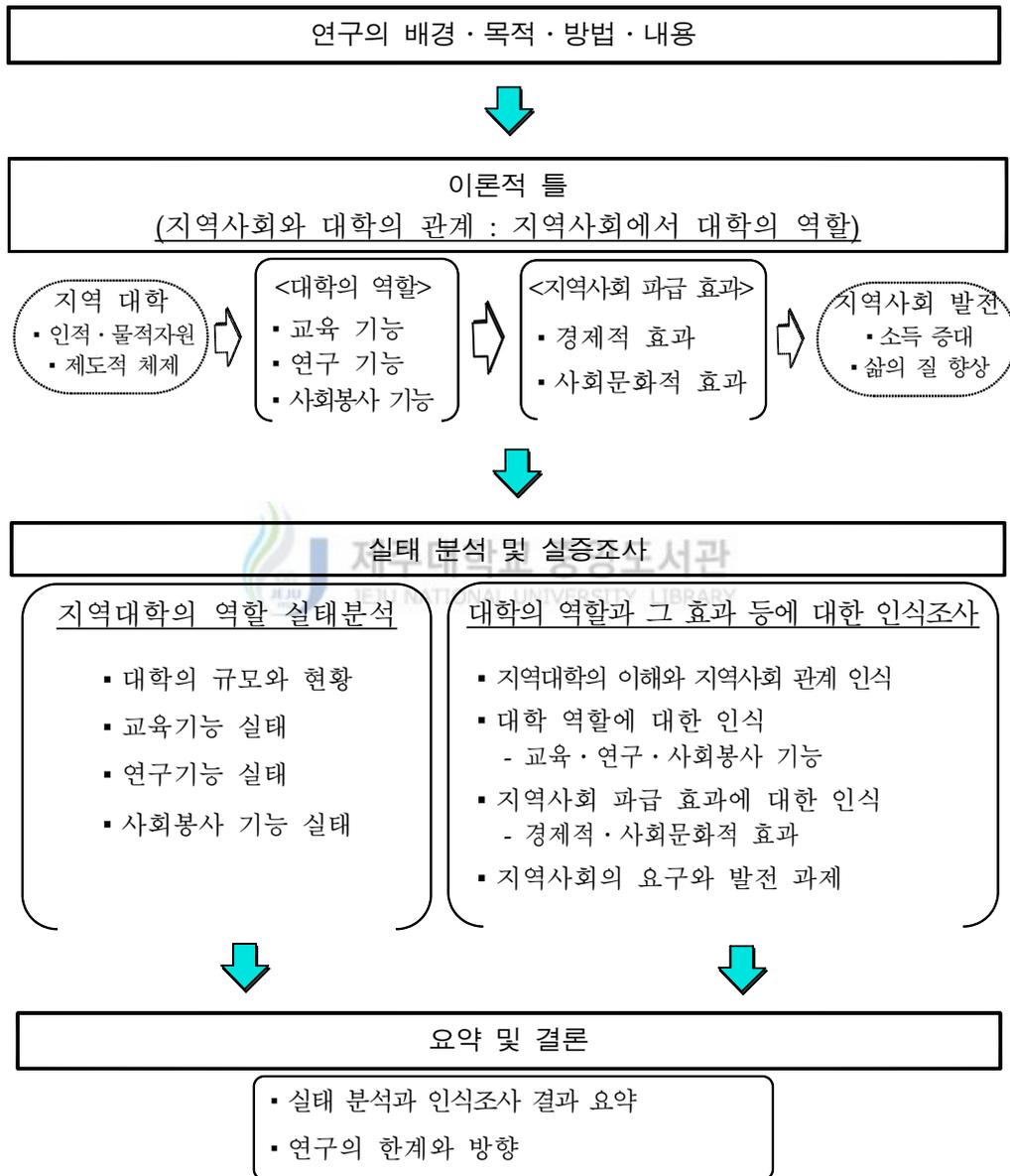
제3장은 실증적 부문으로서 제주대학교의 각종 자원을 통한 기능 수행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경험적 실태와 사례를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제4장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 즉 지역대학의 역할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나타난 일관된 시각과 인식태도 및 지역대학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착안하여 정책적 제언으로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발전과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행본, 연구보고서, 사회봉사 실적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그 분량은 760쪽에 달한다. 교수의 연구활동 이외에 사회봉사 기능 측면의 실태자료인 교수들의 사회봉사 참여실적도 이 책자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제5장은 실태분석과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관련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이러한 연구시도는 국내에서 많지 않다. 특히, 특정 지역대학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당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확인·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대학 역할을 개괄적이고 당위적 측면에서 논의된 연구가 일부 있다.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대학(특히 지방분교) 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¹⁶⁾ 또한,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학의 본질적 기능

16) 관련된 선행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유은수(1985)는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또는 분교설치가 지역발전에 어떠한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안성지역에 소재한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사례로 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임승달(1989)은 강릉대학을 사례로 지방대학의 파급효과를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는 소득창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강릉대의 총 소득창출효과를 산출하였으며, 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강릉대학의 규모가 영세하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례지역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과 분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기했다.

권영섭(1992)은 서울의 인구분산정책 및 지방인구 유입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고려대 조치원분교와 연세대 원주분교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인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사회 연계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박영환(1995)은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각 기능이 지역사회발전에 전이되는 과정, 즉 사례 대학인 안동대의 교육과 연구기능이 안동지역 취업 노동시장 및 교육기회 상승, 문화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보건의 향상 등에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회재(1997) 또한 안동대학교를 사례로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간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그의 연구초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의 고용증대효과, 소득증대효과 및 인적 자원과 전문지식 공급효과 등으로 나누어 각종 경험적 자료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만희(2000)는 전국 70개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별 대학변인(대학 수, 대학생수의 규모)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특성(여야성향), 경제적 특성(산업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인구변동, 교육수준과 문화시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윤대식(1983), 오조환(1997) 등의 이전 지방대학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고, 안경식(1988), 김용만(1981) 등의 지방대학과 지역개발간의 총량적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이상 각 논문 참조).

한편,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대학의 입지 선정을 비롯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 또는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독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하나의 틀 속에 묶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대학의 입지 선정과 교육기회에 관한 연구가 가이펠(Geipel, 1965)과 가이슬러

으로서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점에는 이론적으로 별 다른 이의가 없으나, 대학의 파급(산출)효과에 있어서는 개념규정이나 연구방법이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Geissler, 1965)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학예산의 지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의 소비지출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브라스와 엠더(Brosse & Emde, 1977), 카스퍼와 존탁(Kuppers & Sonntag, 1977), 라이프(Leib, 1977)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와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경제적·사회적 연계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이어(Mayr, 1979), 파스트(Furst, 1984), 기이제(Giese, 1987b) 등의 논문이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최근에는 대학과 사회와의 기업간의 연구 및 기술 전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오토(Ott, 1993)는 신설대학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이어(Mayr, 1993)는 대학이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통합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베크(Becker, 1994)는 기업의 지역입지 결정요인으로서 대학의 지식 전이를 연구하였다(박영한, “대학의 입지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제25호, 서울대 지리학과, 1995, p. 2에서 재인용).

제 2 장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는 D. Easton의 체제접근모형, 정부간 관계모형¹⁷⁾, 국가 혁신체제론에 의한 시스템 역할¹⁸⁾ 등에 의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자들은 환경, 요구와 지지 투입에 의한 전환과 산출, 환류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Easton의 체제접근모형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개념과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검토하고, 체제접근 모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개념과 대학의 본질

1) 지역사회의 개념과 그 변화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개발' 또는 '발전', '공동 노력' 등과 같이 지역사회발전

- 17) 정부간 관계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의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라이트(Wright)는 중앙정부, 州정부(광역자치단체), 시·군정부(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힘의 균형에 따라 등권형(분리관계), 계층형(내포관계), 중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acific Grove, CA: Books & Cole, 1988, pp. 39~55). 엘코크(Elcock)는 영국의 정부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에 따라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자원교환과정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Elcock,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rities", London: Methuen & Co, 1982, pp. 2~7).
- 18) 국가혁신체제론은 지식의 창출·확산·사용을 통한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한 나라의 경쟁력은 기술혁신 관련 제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으로 높은 연구 잠재력을 보유하고 인재양성을 근본으로 하는 대학은 혁신체제의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즉 국가 및 지역혁신 체제에서 대학은 연구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하부구조를 유지하고, 교육시스템에 의한 과학자 생산 및 지역사회 재교육, 경제사회시스템으로서 산업체·공동체를 위한 응용연구 수행, 문화시스템으로서 지식의 확산과 지역 문화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OEC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1997; 이공례·송위진,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 「기술혁신연구」 제6-2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내지 개발이 수행되는 단위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의 개념은 그 형태나 내부의 물적·인적·제도적 구조에 따라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형성요소 및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다.¹⁹⁾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말은 영어의 community로서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의미하며, 공동(common), 공동자치제(communal) 또는 상호접촉, 의사소통이라는 뜻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²⁰⁾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형성요소들 속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성(locality),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간 부단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²¹⁾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의 개념은 구분된다. 지역이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데 비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의 요소에 정신적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²²⁾

19)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스테이너(J. F. Steiner)는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으로서 그들의 공동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조직된 인간집단이다(Community Organization, 1930. 문병집, 「지역사회개발론」, 법문사, p. 12.에서 재인용).

② 넬슨(L. Nelson)은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속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하여 공동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분담 수행하는 인간집단이다(Rural Sociology, New York ; American Book Co., 1949. 최창호,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삼영사, 1983, p. 31.에서 재인용).

③ 황중건(1980)은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이나 인구집단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으로서 그 개념 속에는 주민들의 공통의욕과 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조직과 기관이 있고 협동의 가능성이 내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지역사회와 교육」, 계명대학교출판부, pp. 86~89).

④ 문병집(1982)은 지역사회란 공통적 이해 관계 위에 형성되어진 공동생활권(area of common life), 즉 공동체사회라고 규정하고, 그 구성요소 내지 공통성으로 지연(地緣)성, 공통적 생활양식, 공동운명 의식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pp. 12~17). 또 최창호(1983)는 지역사회란 지리적 접근성과 사회적 단일성 및 문화적 동일성을 가지는 공동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의 책, p. 31).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그 대부분이 지역사회 개념상 구성요소로서 지역(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 결속체(common tie)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 황중건, 「지역사회와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0, p. 86 ; Apgar, M., "Emerging Issues in Community Development in New Perspectives on Community Development", Newyork; Mc Grow-Hill, 1996.

21) 권연옥, 「지역사회개발론」, 학문사, 1995, p. 11.

22) 학문적으로 지역(region)이란 개념은 지리학, 인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이러한 지역사회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상호의존의 면으로 확대되고, 그 개념도 자연히 확대되고 있다. 현대의 지역사회는 광역화라는 추세와 전통적인 지역성과 공동성이라는 요소간 불일치 속에 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소규모에서 대규모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중층화(重層化)하면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지역적 범위가 점차로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흐름에서 지역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단위로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래로 최대의 발견은 지역의 발견'이라는 말은 최근의 지방화 현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지역의 중요성이 되살아나고 있다.²³⁾ 이제 지역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는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지역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변화²⁴⁾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체로 그 양상은 첫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크게 지리학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 및 사회학적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지리학적 개념은 동질성 내지 균일성이 존재하는 경계내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적 요소를 중시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지역을 입지(location)라는 관점에서 영역의 물리적 면적보다는 경제적 기능이 작용하는 범위를 양적으로나 거리 측면에서 구분한다. 반면에 사회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개념은 곧 지역사회(community)를 의미한다. 실체적인 지표(surface)로서의 지역성(地域性)에, 머리 속에 인식되고 구성되는 추상성을 가진 문화적인 공동성(共同性)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국지역개발학회, 「지역개발학원론」, 1997, pp. 46~47).

- 23) 이대식,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0, p. 5.
- 24) 우리나라 지역사회 구조의 주요 변화모습은 ①전국인구 대비 시(市)단위 이상 거주인구 증가(1980년 57.3%, 1995년 78.5% 2002년 88.6%)로 나타난 급속한 도시화의 전개, ②산업구조의 변화(1차 산업 종사자의 격감, 3차 산업 종사자의 급증)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근로시간의 감축과 여가시간의 증가), ③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방화 시대 진전, ④시민사회의 출현과 그 활동 및 영향력의 증대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앙의 하부 내지 중속의 사회구조에서 지역자율과 지역중심구조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도(공급)자로, 국가의 동질적 정책 수행에서 지역마다 다른 정책 수행으로, 국가의 통제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통제로 변화하고 있다(고순철, '지역사회개발의 학문과 실천분야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탐색',

째, 중앙집권의 관료적 사회에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방화 시대로의 전환이다. 1995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와 지역의 보유한 자원을 스스로 동원하여 자율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²⁵⁾ 여기에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들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주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사회 구조는 개방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정보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소득향상에 따라 지역발전의 시각은 단순한 경제적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간 균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물질적·경제적 욕구에서 정신적·문화적 욕구로 변화되고 있다.²⁶⁾ 이러한 변화는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역에서 최고의 지식과 기술 정보를 가진 대학에 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대학의 본질



대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대학의 이념과 목적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대학 기능에 대한 논의²⁷⁾는 철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가

「지역사회개발」 제8-2호, 지역사회개발학회, 1998, pp. 162~165).

25) 따라서 지역발전은 그 동안 국가주도의 하향식 개발보다는 토착적 지역운동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과 지역자조 달성이 주민 중심적 상향적 개발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집단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후, “지역발전과 지방국립대학의 역할 및 발전방안”,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0, p. 105).

26) 문태현, “지역사회에서 지방대학이 갖는 의미와 역할”, 지역개발연구총서③,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7, pp. 18~23.

27) 대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 대학 이념, 대학 목적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엄밀하게 구별한다면, 대학의 기능은 사회체제의 한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대학의 활동이라면, 목적은 그러한 활동의 결과 또는 대학의 임무를 진술한 개념이라고 한다. 대학의 이념은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일관된 사고방식으로서 대학의 본질에 대한 기본철학을 의미하거나 이론적 체계를 표현한 것이다(조용태, “대학의 이념”, 「연구논문집」 제40

다.28) 동시에 여러 나라의 대학제도와 비교연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흔히 많은 교육학자들과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의 3대 기능을 ①교수 ②연구 ③사회봉사라는 데 큰 이의가 없다.29) 미국 코넬대학 총장이었던 J. Perkins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의 기능을 지식의 획득, 지식의 전달, 지식의 응용이라고 할 때, 획득은 연구기능이고, 전달은 교육기능, 응용 내지 적용은 사회봉사기능을 의미한다.30)

대학은 학교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며, 전문가 집단인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호간 인격자로서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러한 진리탐구를 바탕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이 제도화된 곳이다.31) 다시 말해서 대학이 수행하는 세 가지 중요기능은 학문을 전수하고 배우는 교수(교육)의 기능, 개방성·자유성·비판성·사회성 등 학문의 자유에 요구되는 덕목들을 준수하면서 진리 탐구의 대열을

집, 대구효성카톨릭대, 1990, p. 267~268). 이러한 개념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이상, 이념, 사명, 기능, 목적 등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이현정,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민음사, 2000, p. 20; Ronald Barnett(1995), *The Idea of Higher Education*, London; Open Univ. Press).

28) 박평준·김영규, “지역개발과 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조선대학교, 1981, p. 1.

29) 대학의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Earl J. McGrath는 대학의 기본적 기능으로 전문적 기술적 훈련을 통한 전문적 양성, 탐구정신 함양을 통한 연구활동과 학자 양성, 교양교육을 통한 지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인의 양성, 그리고 성인교육에 대한 기능을 말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대학이 유능한 의사, 기사, 사회 실업가를 배출하였으나, 별로 깊은 예지를 갖추지 못한 직업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유형진, “대학목적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 논문집 제8호, 1967, pp. 102~103).

이돈희(1982)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의 방식과 기술의 원리를 학문의 초심자들을 상대로 가르쳐 학문사회의 새로운 성원들을 양성하고 동시에 진리에 접근하는 의견과 이론을 개발하여 학문을 성장시키며, 이를 보급하여 인간사회의 학제해결에 기여하면서 인류세계에 봉사한다(“한국대학교육의 이념과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p. 54).

김중철(1979)은 대학의 네 가지 기본기능으로, 심오한 학술의 탐구와 진리를 구명하는 연구와,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전달의 통로를 통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그리고 지식·기술의 전수와 함께 인격의 형성도야를 위한 훈련, 마지막으로 현실 참여를 통한 사회개조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봉사를 들고 있다(한국고등교육연구, 박영사, p. 446).

30) 한기언譯, 「대학의 미래」, 중앙신서11(J. Perkins, *The University in Transition*, Princeton Univ. Press, 1967), 1978, p. 17~18.

31) 최청일 외, “지방문화와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 「학생연구」 제20집, 동아대학교, 1992, p. 37.

형성하고 그에 종사하는 연구기능, 이러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에 의한 결과를 직접 사회에 적용 및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봉사 기능이라 할 수 있다.³²⁾

대학의 기능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변해 왔다. 서구의 전통적 대학들은 연구와 교육을 중추기능으로 삼았는데, 근세 독일의 전형적인 대학인 베를린대학을 위시한 독일의 대학들은 학문적 자유와 연구를 강조하는 연구중심 기능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들은 학문 연구에 의한 지식인 배양이라는 데 그 이념을 두고 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중심을 두었다.³³⁾ 이 같이 독일대학과 영국대학의 전통은 대학을 일반시민과 괴리된 조직으로 생각하며, 대학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의 발견 및 전달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훈련된 인력을 제공하여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실용주의의 등장과 함께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실현되었다. 새로운 사회 서비스 활동과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치중하여³⁴⁾ 1960년대 미국의 대학은 다기능대학(multiversity)이 되었으며,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천사를 놓고 볼 때, 대학의 교육적 기능은 영국적 전통이며, 연구기능은 독일적 전통, 사회봉사 기능은 미국적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대학의 3대 기능이라 불리우는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은 전체 대학체제 차원에서 보든 단일 대학체제에서 보든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즉, 연구 없는 교육을 생각하기 어렵고, 대학에 축적된 지식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학에만 인위적으로 연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단위대학 별로 기능분화를 시도해 왔다.³⁵⁾ 따라서,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대학의 기능적

32)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1997.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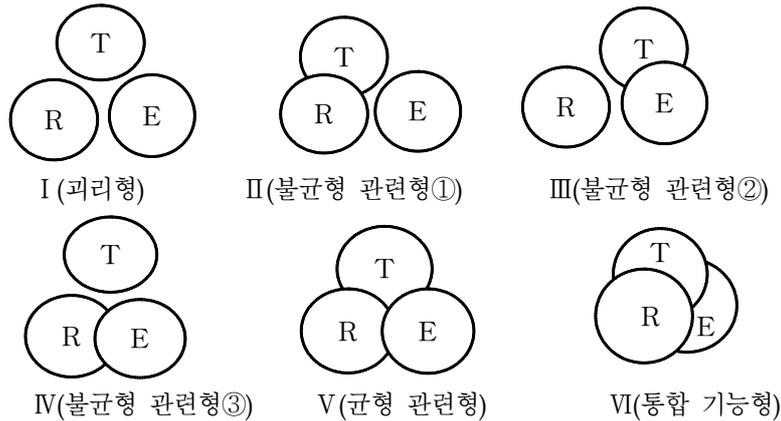
33) 조용태, 앞의 논문, p. 270.

34) 예컨대, 1862년의 Morill Act를 통하여 농업과 공업에 관련된 연구 및 강의를 제1차적 목표로 하는 대학을 설립하도록 연방정부가 주(州)정부에 연방토지를 대여하였으며,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에는 많은 대학들이 무기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쟁활동에 참여하였고, 전후에도 암치료 연구와 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에 대학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표시열,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p. 67).

35) 이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에 관한 기능 분화에 대한 문제로서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³⁶⁾ 정지웅³⁷⁾은 이러한 대학 기능간의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교수, 연구, 사회봉사간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6가지 형태로 모형화하고 있다.

<그림 2> 대학의 기능간의 관계 모형



T : 교수, R : 연구, E : 사회봉사

<모형 I>은 교수, 연구, 사회봉사의 기능이 서로 관련 없이 수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내용은 외국 교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교수

5·31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Ⅳ」, 1997)을 통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창조적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연구중심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서열에 속하는 소수의 대학으로서 학부보다는 대학원과정에, 강의보다는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 유형이다.

그러나, 연구중심이니 교육중심, 산업인력 배출 중심이니 하는 특정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이러한 시도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의 많은 대학들은 교수방법의 다양화와 실험실습의 강화 그리고 연구업적의 강조 등에 힘입어 교수와 연구활동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중심 교육’, ‘교육을 위한 연구’ 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중심 학습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 중심 연구에 의한 학습, 그리고 실험연구, 상황적 학습 등이 그 예이다(이현청,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민음사, 2000, pp. 47~48).

36) 강희돈, “교육중심대학 발전방안 탐색”, 「대학교육」 제98호(www.kcue.or.kr).

37) 정지웅,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대학교육」 제28호, 1987, pp. 12~14.

들이 행하는 연구는 그 가르치는 내용과 별 상관이 없다. 또 외부로 나가서 지역사회나 어떤 산업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은 가르치는 교과나 다루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이 모형에 속할 것이다. <모형Ⅱ>는 교수와 연구는 관련이 많은 반면, 사회봉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형태이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연구과제는 국제적으로 첨단적인 분야를 다루지만, 현실이 전혀 이를 적용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거나 실용성이 없는 모형이다. <모형Ⅲ>은 교수와 사회봉사는 관련이 있지만, 연구가 이 두 기능과 관련이 없는 형태이다.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외부 집단에 대한 연수에 쫓기는 경우이다. <모형Ⅳ>는 연구와 사회봉사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지만, 교육은 다른 두 기능과 관련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학의 실상을 감안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같은 불완전 모형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모형들은 모형Ⅴ(균형관련형)과 모형Ⅵ(통합기능형)으로 변해가야 할 것이다. 즉 모형Ⅴ와 같이 교수, 연구, 사회봉사의 3자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형Ⅵ과 같이 이 세 기능간 서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연계·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관계

교육이 사회 속에서, 사회에 의해, 사회를 위해서 수행되는 사회적 현상의 한 양태라고 볼 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먼저,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의미는 인간자원 또는 인간자본의 공급 개념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노동력의 질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교육은 경제나 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성

38) 박용현 외,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출판사, 1993, p. 43. ; John I. Doodlad, "education, Schools and a Sense of Community", in Thomas H. Quinn and Michael Henelly(eds), *Community and Their School*, R,R, Donnelley and Sons, Inc, 1991, chap.11, pp. 331~354.

장시키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³⁹⁾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각국의 고등교육에서 전개되는 산학협동과 함께 학생수의 증가, 지식의 폭발, 신종직업의 발생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계속교육, 직장교육, 협동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형태가 생겨나면서부터 비롯되었다.⁴⁰⁾ 대학은 학교체계에서 최고 교육기관이며,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은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학의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대학의 학문적 조직과 인적 구성,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그 자체로 일정한 대학사회를 형성하고 대학문화를 창조한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기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토대 변화와 문화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¹⁾

이렇게 볼 때, 교수, 연구, 사회봉사를 사명 내지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특히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위치하여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⁴²⁾ 지방정부·기업체·연구소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각종 단체와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주체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투입 받고 반면에 지역사회 대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 기술, 인력 등을 산출로서 배출된다. 이러한 관련성의 전제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겠지만, 지역발

39) OECD,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1979, pp. 22~35.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19세기까지 미국에 널리 퍼져 있던 전통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학교는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필요한 정신적 직업적 기술만 가르치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30년대이래 발달한 지역사회학교에 의하면 학교는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한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학생은 그가 성인이든 아이이든 간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상노·이윤수역,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83, p.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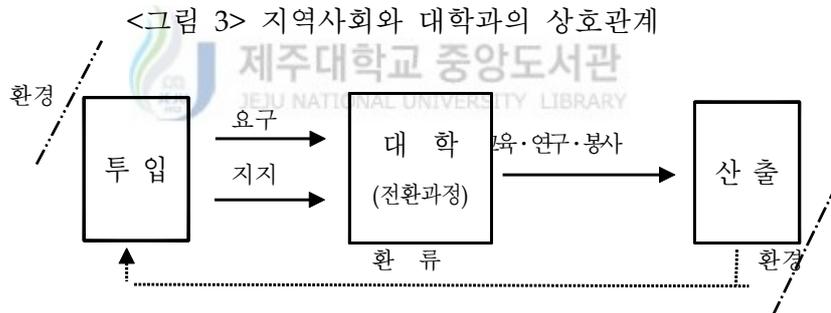
40) 이돈희·김희복, “대학의 발달과 산학협동”, 「대학교육」 제1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5, p. 13.

41) 임재해, “지역대학의 학문활동과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개발연구총서3,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7, p. 107.

42) 대학을 상아탑으로 부르던 때에는 대학과 지역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보편적 진리탐구로서 인류 전체의 우주적 관심사에 경도되어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유리되고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역과 밀착한 활동이 미약했다(박수영, “지방진흥과 대학”, 「대학교육」 제11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전을 추진할 주체로서 인재양성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대학은 그 인재가 정주하게 될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생적 발전 주체로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특정지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활동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라 할 수 있다.⁴³⁾ 이를 D. Easton의 체제접근방법(System Approach)을 원용하여 설명하면 <그림 3>과 같다.⁴⁴⁾ 국내외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는 투입을 통하여 다시 대학에 새로운 지지와 요구를 보내게 된다. 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대학은 이러한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환과정인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기능 수행을 통하여 산출물로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대학자원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출물은 지역사회에 의해 평가되고 그 결과는 다시 재투입을 통하여 수정·보완된다.



한편, 이러한 순환관계는 그 연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⁴⁵⁾ 첫째 대학과 지역 사회가 유리되어 상호작용 없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관계로서 전통적인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여 준다. 둘째는 대학과 지역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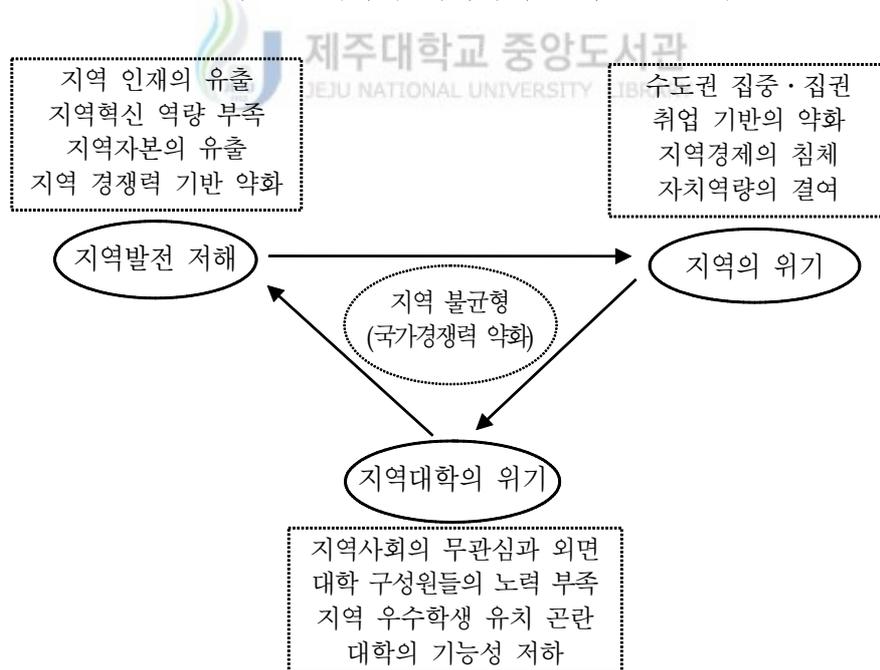
43)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관계는 수평적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로서, 정부간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모형에 의해 분류한다면, 라이트(Wright)의 중첩관계모형, 엘코크(Elcock)의 동반자모형과 자원교환과정모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4) David. Easton, An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 John wiley & soon, 1968 참조.

45) 황종건, 앞의 책, p. 150.

회는 약간의 관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 아니라, 대학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학이 끌려가는 관계이다. 이는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이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가는 관계이다. 셋째는 대학이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도해 나가는 협력관계이다. 이 관계는 대학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도모하면서 대학의 기능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적극 활용된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발전이 없이 대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 대학에 대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없는 지역발전은 역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지역사회와 대학은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 못할 때 이러한 의존적 상호관계는 외면적 악순환 관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지역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를 어렵게 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을 유출하게 된다. 이는 지역대학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림 4> 대학과 지역사회간 악순환 관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결국에는 지역의 자치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는 다시 지역대학에 직접적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관계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2절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1. 지역대학의 역할

앞서 대학의 본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대학의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기능의 수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세 가지 기능의 본질적 의미와 지역사회에서의 대학 기능을 검토한다. 그리고 정보화·지방화라는 시대상황의 전개 속에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중요성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강조됨에 따라 지역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기능



먼저, 대학이념으로서 교육적 기능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차원만이 아니라, 통달된 학문을 통해 자유자재로 학문적 기법을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합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수(teaching)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기능은 많은 연구의 결과 얻어진 전문 분야에서 교수 스스로가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문적 기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교육은 전문성을 지닌 교수와 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된 교수 기법 그리고 책에 써어 있는 대로의 강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⁴⁶⁾

이러한 의미를 갖는 교육기능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역할은 첫째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이다. 대학 설립 그 자체만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등교육기

46) J. G. Fichte, *Fichtes, Werke* (Berlin: Dermstade,) 1971, p. 27.

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⁴⁷⁾를 충족하면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대학 진학자의 외지 유출을 보류시키게 한다. 대학교육의 기회제공이 지역·계층 간에 균등하지 못하면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지역간 격차를 노출시키게 되고,⁴⁸⁾ 반면에 어느 정도 균등화된다면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및 지역간 상이성이 시정되고 나아가 소득 면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⁴⁹⁾

다음으로 대학의 역할 중 기본적인 교육적 기능은 인재양성이다. 대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동원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질의 고급 인력을 지역사회에 공급한다. 이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지역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 영향을 주어 지역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노동 수요에 부응하게 된다.⁵⁰⁾ 또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교육받은 인력의 배출은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속·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지역대학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역발전과 지역문제를 다루는 교육내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실성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⁵¹⁾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지역에 정통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양한 학문분과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특히 지역의 비교

47) 기초수요이론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 온 개발이론으로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 또는 수요와 연결되지 않을 때 개발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발전에서 성취되어야 할 가치로서 기초수요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삶의 기회(Quality Chances)를 높이는 것이며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여기서 교육은 지역의 기초수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특히 대학교육은 그 완결적 의미가 있다(박인호 외,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초수요접근에 관한 연구',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5집, 영남대, 1984, p. 3).

48) 특히,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는 지역·계층간 형평배분이라는 사회복지의 실천 수단의 하나이다. 대학교육은 사회진출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거의 필수적 요건이 되므로 대학 졸업의 기회가 경제적 이유로 배제될 때 계층간 위화감은 물론 사회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책도 이러한 맥락과 함께 수도권 인구분산 및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78년 이후 추진되어 왔다.

49) 김용만, "교육과 지역개발", 「월간도시문제」, 대한지방공제회, 1982. 3. p. 53.

50) OECD,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1979, p. 22.

51) 손준중, "지방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육성", 「교육개발」 제96호, 한국교육개발원, 1995, p. 49.

우위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학문분야(학과, 전공)의 설치 육성은 지역 사회의 인력 수요를 적실성 있게 충족하고 지역산업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실용성은 물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회의 확대라고 볼 때, 교육은 인력양성과 공급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자기완성 기회의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는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적인 인력과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대학은 인력공급의 측면에서 전문대학이나 실업계 고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대학교는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와 첨단 지식산업도시를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데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그에 걸맞는 인재육성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⁵²⁾ 하겠다.

2) 연구 기능

대학은 학문활동을 하는 곳이고, 학문활동의 근간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연구기능이다.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⁵³⁾ 연구활동을 통해서 가르치고 습득하는 교육활동이 가능해지고, 그 실천을 통해 사회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기능은 학문연구에 전념하는 학자들의 자주적 공동생활체로서 갖는 기능으로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연구기능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활동은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계발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지

52)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대체로 국제자유도시에 성공한 지역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풀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육성은 그 지역의 대학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지방대학은 거의 고사상태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절망적이다. 경쟁력 강화는 제주대학교를 위시한 이 지역의 대학들의 시대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고충석, “인재할당제 등 통해 지역인재 육성”, 한라일보 2003. 2.10자, www.hallailbo.co.kr).

53) 이현청, 앞의 책, pp. 24~25.

역과 문화의 결합을 유도하여 지역문화의 산업화를 촉진시킨다.⁵⁴⁾ 또한, 대학은 연구기능을 통해 신기술, 지식 및 정보를 창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기업체·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과 연계협력 체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대학은 연구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통하여 지역 고용의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 발전과 주변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시킨다.⁵⁵⁾

또한, 대학은 연구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대학의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지역사회에 공급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의 지역대학은 축적된 지식과 정보·기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연구활동은, 진리탐구라는 보편성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현대 대학이 실용주의 지향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밀착된 실용성이다. 이것은 곧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지방화 시대 대학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대학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⁵⁶⁾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다양한 관·학협동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지역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농림계 대학 특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주대학교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과 창업보육 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그리고 두뇌한국21사업 등의 추진에 Matching Fund(대응자금)를 지원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수립하여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 지식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투자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첨단과

54) 박영한, 앞의 논문, p. 12.

55) 권영섭,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9 ; 강병수, "갈수록 커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996.2, p. 103.

56) 손준중, 앞의 논문, 1995, p. 50.

학기술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연구·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려는 것이다.⁵⁷⁾ 여기에 제주대학교는 축적된 전문적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⁸⁾

3) 사회봉사 기능

사회봉사 기능은 미국의 고등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현대 고등교육의 3대 본질적인 기능으로 정착되었다. 즉 대학은 진리의 탐구와 정규체계의 교육 외에도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와 요구와 필요에 봉사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을 근거로 한 대학 기능이다. 한마디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연구와 교육이 강조된 대학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관건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이다. 따라서 사회봉사 기능은 과거의 상아탑적 대학관에서 연구에만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회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학관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학 이념이라 할 수 있다.⁵⁹⁾

사회봉사 기능은 대학의 기본기능인 교육과 연구기능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전개된다. 최근 대학의 사회봉사의 유형과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 유형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 대학의 문화나 교육시설 및 인적 자원을 개방 활용하는 방식, 대학인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등 대학들마다의 인적·물적 자원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⁶⁰⁾

57)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의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지역을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한 생물산업 전략지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2. 1.).

58) 최근 대학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에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역의 공공기관이 대학의 연구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하고 있는가? 그 활용범위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실제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Rejean Landry, Moktar Lamari, Nabil Amara, "The extent &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 Governmant Agencies", PAR, Vol.63, No.2, 2003, pp. 192~205).

59) 이현청,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민음사, 2000, p. 25.

첫째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 담당자로서 지역산업체의 재교육 교육수요와 함께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교육체제를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대상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고등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밀착되지 않는 교육은 생명력이 없는 교육과 같다.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유리된 대학교육은 교육의 생활중심화를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⁶¹⁾

둘째는 대학의 문화나 교육시설 및 인적 자원을 개방,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그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장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자체의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각종 전시발표회, 연주회, 각종 공개강좌, 도서관 개방, 지역 정보관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문화·정보센터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된다.

셋째는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인이 자발적으로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학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나 요구가 다양하다. 교수들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나 자치단체, 언론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조언이나 자문의 형태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실제 프로그램의 집행이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받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통하여 자기 완성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은 동아리 조직이나 학생회 중심으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돕기나 가축진료, 교육봉사 등이었으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배품과 나눔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봉사가 보

60) 사회봉사 유형에 대하여 박수연(1985)은 가치관을 통하는 길, 사회비평을 통하는 길, 그리고 대중적 방법으로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길, 현실사회에 직접 참여한 길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대학의 사회봉사」, 「대학교육」 제14호, 한국대학교협의회, pp. 81~82). 여기서는 송미섭(1985), 손준준(1997), 조휘일(1998) 등 기존의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61) 손준준, 앞의 논문, p. 49.

편화되고 있다. 최근 자발적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사회봉사학점제⁶²⁾와 같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적·제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단체, 산업체, 지역대학간, 지역주민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간 연결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역대학 자체의 발전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영의 중심체로서의 지방정부와 지식산업기지로써의 대학은 지역인재의 양성과 활용, 정책개발과 집행, 지식공급원과 재정지원세력으로서의 동반자적 협력과 생존의 장을 함께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⁶³⁾ 특히, 지역산업체와 협력관계는 대학의 교육·연구의 기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때,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⁶⁴⁾을 전개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소시엄사업, 창업보육사업, 지역기술혁신 및 지역협력 연구 등이 그 사례이다.

62) 대학에서 사회봉사를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에서 1979년 2학기가 그 효시라 할 수 있지만, 본격화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한양대가 국내대학 최초로 교양필수 과목으로 '사회봉사'를 채택하였고, 이후 동덕여대의 자원 봉사 교양필수 채택, 이주대 의대의 병원봉사실습 도입, 한동대와 한남대가 교과목으로 도입, 건국대의 교내 '사회봉사은행', 신설 등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사회봉사 기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 사회봉사 활동 분석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모형 개발", 연구보고 제2001-1-5호, p. 1). 제주대학교는 1998-2학기부터 정규 교과목(2학점)으로 채택 매 학기 개설하고 있다(제주대학교, '98동계 연찬회 자료).

63) 그 동안 지역 소재 대학 특히,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지역사회와 협력과 연대적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두 기관간 할거주의가 내재돼 왔으며, 두뇌집단으로서의 이론중심과 지방정치로서의 현실중심간 연관성이 깊지 못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었다. 지역대학의 입장에서는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확대와 재정적 지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수요와 공급이 전문화에 대응해야 하고,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두 기관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양영철, "지방대학육성대책 관련 토론회자료", 2000. 7.).

64) 먼저, 교육기능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엔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학생들의 현장경험을 쌓고 실무지식을 얻기 위하여 산업체 견학과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기업 인력과 대학 인력이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연구기능 측면에서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습득하려는 노력으로 공동연구 수행, 기술이전, 연구인력의 교류, 기자재의 공동활용, 기술지도 및 자문, 상호 정보교환 등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윤주명, "산학협동을 통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9호, 한국행정학회, 1995, pp. 1022~1023).

4) 대학의 역할 변화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사회의 산물로서 사회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대학은 사회에 의하여 구조와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⁶⁵⁾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종전의 낭만과 이상을 함축하는 '상아탑'의 의미만으로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력의 명목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분배하는 산실로써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⁶⁶⁾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난 50여년 동안 대학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면서 그 위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그 변화의 내용과 요인은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충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⁶⁷⁾ 먼저, 산업화의 충격은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대학과 대학생 수가 크게 팽창되어 소수의 엘리트 교육에서 다수의 보편기관으로 변모된 것이다. 정보화의 충격은 학사운영과 교육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세계화의 충격은 개방적 자유시장 논리 하에 살아남기 위한 대학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교육과 연구내용 그리고 운영 체제적 측면에서 그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기반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종래의 경우, 지역발전은 전국적 수준의 일부로서 기능적 배분에

65) 그 동안 대학체제와 역할의 중요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귀족사회의 교육체제로부터 시민사회의 교육체제로, 둘째 고매한 교양과 학문만을 위한 상아탑적인 순수 학문중심체제에서 사회발전 협동체제로의 전환, 셋째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대중교육체제로의 전환, 넷째 대학교육의 확장을 의미하는 계속교육, 산학협동교육, 성인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용 등이다(이돈희,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보고서, 1988, pp. 16~19).

66) 유현숙외,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1998, p. 61.

67) 박영식, "변화하는 대학위상", 「대학교육」 제116호, 2002(www.kcue.or.kr).

의해 권위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하향적 발전에 예속되어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역대학 역시 오로지 교육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비교적 초연한 존재였고,⁶⁸⁾ 대학시설은 초·중등교육기관과는 달리 지역사회 입장보다는 국가적 배려에서 설치운영 되어왔다.⁶⁹⁾ 또한 지역대학은 지역 및 지역산업과는 연계 없이 수도권 교육집중과 인구집중 완화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다.⁷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978년 이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분산 및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소위 지방대학 육성책이다. 그것은 서울중심의 교육집중현상에서 초래되는 국민 교육비 부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⁷¹⁾ 오히려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학생증원을 억제하는 대신에, 지방소재 대학 중심으로 무분별한 증과(科)·증원과 시설투자, 지방분교의 설치 권장 등으로 양적 팽창을 가져 왔으나, 우수 교수의 유치 실패와 취업률 등 질적 내실화 측면에서는 서울소재 대학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⁷²⁾

19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지방화 시대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지방교육의 중요성⁷³⁾이 강조되어 왔다. 또 한편, 지역대학의 위기의 원

68) 70년대나 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 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지금과 같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70년대에는 저임금을 이용한 조립 및 가공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었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던 80년대에도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진입하면서 특허권 분쟁 등 기술패권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다방면에서 고급기술이 요구되면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역산업체에 이전하고 상업화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조되기 시작했다(강병수, 앞의 논문, pp. 102~103).

69) 임승달,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국토계획」 제24-1호, 대한국토계획학회, 1989, p. 71.

70) 김종후, 앞의 논문, p. 106.

71) 표시열 외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전략", 교육부 지역개발연구사업보고서, 1999, p. 13~14.

72) 이는 1999학년도에 경우 수능성적 상위 5% 학생 중 62.5%(인문계 68.6%)가 서울소재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모집인원 대비 전국대학 미충원 인원의 92.6%(99년), 90.3%(00년)가 지방소재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업률에서도 49.5%로 수도권 대학의 54.1%보다 낮다. 특히 대기업 취업자의 80.0%, 국가고시 합격자의 90%가 수도권대학 출신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회 대학교육정책포럼자료」, 2000 ; 주철안, 앞의 논문, pp. 125~127).

73) 지방화 시대에 실현되어야 할 바람직한 교육체제로 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학교, ② 교육의 기회·여건·결과의 면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교육, ③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④ 품위 있는 교육문화 환경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 등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인과 그 처방에 관한 무성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⁷⁴⁾ 특히, 최근에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대학의 위상과 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지역대학은 사회간접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공통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의 모태로서 또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 지역에 의한 다른 지역의 교육적 종속을 극복하는 관건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대학교와 같이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⁷⁵⁾의 경우는

적 수단은 지역대학의 획기적 육성이다. 그 이유는 지역대학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지역의 우수두뇌 유출,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주민의 거주 이전 등 - 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한경수 외, “지방화 시대의 교육개혁 과제와 전략”, KRF연구결과논문, 행정학회, 1997, pp. 7~12).

74) 오늘날 시대적 담론으로서 ‘위기의 지방대’, ‘지방대학의 몰락’, ‘지방대 콤플렉스’ 등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화두들이다. 이러한 담론은 1980년대쯤부터 “대학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학도 변해야 산다.”는 담론이 생겨나더니, ‘90년대 이후에는 “대학도 무너질 수 있다.” “대학이 망하고 있다.”로 그 위기의 정도가 심각해져 왔다. 이러한 지방소재 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국가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대학재정 지원부족과 대학교육정책의 비체계성, 지역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의 자구노력 부족, 그리고 학벌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와 지역대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들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회 대학교육정책포럼자료」, 2000). 하지만, 대학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을 지원하는 적령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한 반면,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이나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을 통해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한 대학정책 당국에 있다고도 하겠다. 1992년과 2002년을 놓고 볼 때, 전국 고교 졸업자수는 740,288명에서 670,713명으로 9.4%로 감소한 반면, 오히려 4년제 일반대학 수는 121개에서 163개로, 입학정원은 211,740명에서 324,309명으로 각각 34.4%, 53.2%씩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www.std.kedi.re.kr). 이 같은 심각성을 반영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마련(2000년 12월)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 지역대학 총장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초해 2001년 12월 국회 입법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를 창립(2003. 5. 2)하고 내국세의 3%를 지방대학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는 실정이다.

75) 지방의 국립대학은 전시연합대학(1951. 5~’52. 5.)의 해체로 인하여 생긴 공백을 메우고 지방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균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52년에서 1953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1952년 10월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이,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이, 얼마 후 1955년 4월에는 제주대학(도립)이 설립되었다(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p. 463).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특수한 정책목적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이 해당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쟁적으로 교육대학(또는 초급대학)에서 단과대학을

위와 같은 지역적 역할에 더하여,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목표 실현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⁷⁶⁾

이와 같이 지역대학의 의의와 역할이 강조되고, 정보화의 확산과 함께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장(場)으로서의 교육기능,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문제의 해결사로서의 연구기능,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장(場)과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사회봉사 기능성이 확대 요구되면서 지역발전의 혁신적 주체로서,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 네트워크의 중추기로서 지역대학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내지 효과는 여러 가지 입장과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⁷⁷⁾ 또한, 그 효과가 가시적 확인이 가능하기까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세대적 효과까지 발생되어 이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대학의 파급효과(산출)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개념규정이나 연구방법론이 정립되어

거쳐 종합대학으로 또는 개방대학이 산업대학 등으로 전환되거나 개편·승격되었다. 2002학년도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학은 37개(일반22, 교육9, 산업대학6)이다(교육부 내부자료, www.moe.go.kr).

- 76) 국가 정책적 차원의 인적 자원의 양성과 지역산업 균형 발전, 시장실패의 대안으로서 사립대학에서 기피하는 기초 및 보호학문분야의 육성, 지역의 교육욕구 충족, 그리고 국립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은 과도한 교육비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지역·계층간 형평적 배분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 2000 ; 남궁근, “국립대학간 역할분담”, 「KEDI교육정책포럼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2-5호, pp. 44~46).
- 77) 임승달(1989)은 대학기능이 지역사회에 주는 개괄적 입장에서 인재양성기능, 교육기회 제공기능, 사회서비스 기능, 교육가치형성기능 등으로 대별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긍정적 효과로서는 지역사회에 구조변화를 주는 사회문화적 효과와 지역성장을 주는 경제적 효과로 나누고 있다. 기존의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연구로는 유은수(1985), 문태현(1997) 등이 있다. 한편, 권영섭(1992)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인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역사회연계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있지 못하고, 다만 대학은 다양한 효과를 주는 다산출기관(多産出機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만 합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이 연구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⁷⁹⁾으로 가져다 주는 파급효과를 인구적 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효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특정지역 안에 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생겨나는 효과, 지역사회에 인력공급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연구와 기술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등 대학의 복합적인 대학기능 수행의 결과로 매우 다양하게 다방면에 걸쳐 파급된다.⁸⁰⁾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대학의 설립만으로도⁸¹⁾ 각종 시설의 투자와 시설 확장으로 인한 개발투자 효과와, 대학 운영상의 지출과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의 소비지출 및 주거 등으로 인한 지역 생산물의 구매력 증대 등의 경제 활성화를 들 수

78) 강무섭, “고등교육의 투입 및 산출측정의 경제적 접근”, 「한국교육」 제11-1호, 한국교육개발원, 1984. p. 68.

79) 대학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대학생으로 인하여 유흥·오락시설이 늘어나고 소비품조가 만연되어 전통적 윤리관이 파괴, 교육받은 인력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임승달, 앞의 논문, p. 74).

80)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권영섭(1992)은 지역사회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인적자본 공급효과, 지역소득 증가효과, 지역고용 증가 효과로 세분하고 있으며, 윤주명(1995)은 대학설립의 결과로서 지역소득의 창출과 증대, 산학협동의 결과로서 훈련된 인력공급과 기술인력의 훈련,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발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임승달(1989)은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에 의한 산업입지 촉진, 지역주민의 공용증가와 소득증대 효과, 지역의 정보·자료은행으로서의 가치형성을 통한 지역성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신설대학의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한 Ott(1993)는 지역 노동력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주며,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의 소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계획의 변화 등 사회간접비용 증가,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을 파급효과로 결론 짓고 있다.

81) 비대도시권 지역의 대학들은 설립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비대 도시권에 4천명 규모의 소규모대학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에 월평균 유통가능 화폐량은 대략 32억원 정도 되고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원은 2만5천~5만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직접효과 이상의 간접효과와 펌프효과(pumping effect), 승수효과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김운희,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한국대학신문」 제349호, 2002. 7.10).

있다. 둘째, 대학의 인적자원 공급 기능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용증가와 인력구조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지역 산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지도·자문, 인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을 특화시켜 전국의 타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시킨다. 더불어 산업입지의 촉진과 산업구조를 강화시켜 지역성장을 가져온다.⁸²⁾ 셋째, 대학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대학운영상 지출 및 교직원·학생의 소비활동에 의한 지역소득의 창출, 그리고 다른 지역 대학진학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비의 역외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소득증대 효과를 준다.⁸³⁾

이외에도, 인구적 측면에서 대학의 설립으로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거주 이전, 다른 지역 학생의 진학으로 이동 등 인구유입 효과가 있으며, 대학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인구 정착효과가 있다.

82) Brown & Burrow, Regional Problems ; Comparative Experiences of Some Market Econom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9, p. 89.

83) 소득증대(창출) 효과는 직접·간접·유발소득효과로 구분된다. 지역주민을 고용하거나 봉급을 지급하며 진학기회 제공으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등의 직접적인 소득효과, 대학운영 경비의 지역내 지출과 교직원·학생들의 소비지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직접 및 간접소득은 소비과정에서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유발소득효과 등이다(임승달, 앞의 논문, pp.72~73).

이러한 소득창출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승달(1989)은 Darance의 소득창출모형을 이용하여 강릉대의 총 소득 창출효과를 고용과 외지진학 감소에 의한 직접소득, 학교운영 및 대학구성원의 지출에 의한 간접소득, 지출형태와 지역생산 유통구조를 감안한 유도소득 등을 산출하고 강릉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소득효과를 연간 60억7천만으로 산출한 바 있다. 이희재(1997)는 위 임승달의 경우와 같은 소득창출모형에 의해, 안동대가 안동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총 소득액을 안동지역 총생산액의 5.23%인 51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강원대학교(2001)는 대학의 예산액과 외부연구비 수주액, 학생 생활비를 기초로 강원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총 지출예산액 기준에 의한 지역사회 기여도는 춘천시의 36.9%, 강원도의 12.1%, 총 소비지출액 기준으로는 춘천시의 13.1%, 강원도의 1.91%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계 소비성향과 투자승수 등을 고려한 총소득창출 효과로 춘천시에 1조원이 넘는 것으로, 강원도 전체에는 약 6,000억원의 소득 창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산출한 바 있다(강원대 내부자료, 2001. 12.). 또한, 제주대학교(2003)의 경우도 강원대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총지출예산액 기준에 의한 지역사회 기여도는 제주시의 16.7%, 강원도의 10.4%, 총 소비지출액 기준으로는 제주도의 2.9%로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제주대학교의 총소득창출 효과는 연간 4,57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www.hallailbo.co.kr, 한라일보, 2003. 4.21).

또한 대학은 그 자체가 사회간접 시설로서 다른 분야의 지역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⁸⁴⁾

2) 사회·문화적 효과

사회·문화적 측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⁸⁵⁾ 지역내 대학의 설립자체 또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 및 인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해 지역사회에 사회 문화적 효과와 영향⁸⁶⁾을 파급시킨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설립 측면⁸⁷⁾에서 첫째, 지역사회에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조성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교육열을 자극시키고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등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 이미지를 개선해 준다.

대학운영 및 인적 구성원의 활동에 의한 측면에서는⁸⁸⁾ 먼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초적인 역할 중의 하나로 문화유산을 전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과 교직원 등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점이다. 둘째, 대학은 교육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런 접촉과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변화시킨다. 셋째, 대학은 인재양성을 통해 고급인력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충원 기능을 담당하며, 개개인을 서로 다

84) 교수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의 건설, 연구기관, 관련 첨단산업체의 유치와 편익·문화시설, 도로망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게 된다(권영섭, 앞의 논문, p. 28).

85) 박용현 등(1993)은 사회문화적 효과를 교육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즉 문화전승 기능, 사회혁신 및 통합 기능, 사회충원기능, 사회이동촉진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용현 외, 앞의 책, pp. 73~83).

86) 사회문화적 효과는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즉시 나타나지도 않는 심리적 영역의 문제로서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통한 방법외에는 측정이 곤란하다.

87) 이만희, “대학과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 40.

88) 권영섭(1992), 김한곤(1993), 이만희(2000) 등을 참고하여 정리함.

른 사회적 지위에 적절히 분배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사회적 지위 변화로서 계층간 수직적 이동 및 지역·직종간 수평적 이동을 촉진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화적 효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고한 결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이미지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다.

제3절 분석의 틀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 틀로서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대학의 역할은 첫째, 교육기능의 수행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고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배출한다. 둘째, 연구기능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연구 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는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기능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입지 촉진 및 지역의 고용 증가, 사교육비의 감소와 역외 유출을 억제하여 소득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고, 대학운영과 구성원들의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확대, 그리고 인구유입과 정착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결국 지역소득을 증대시킨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사회의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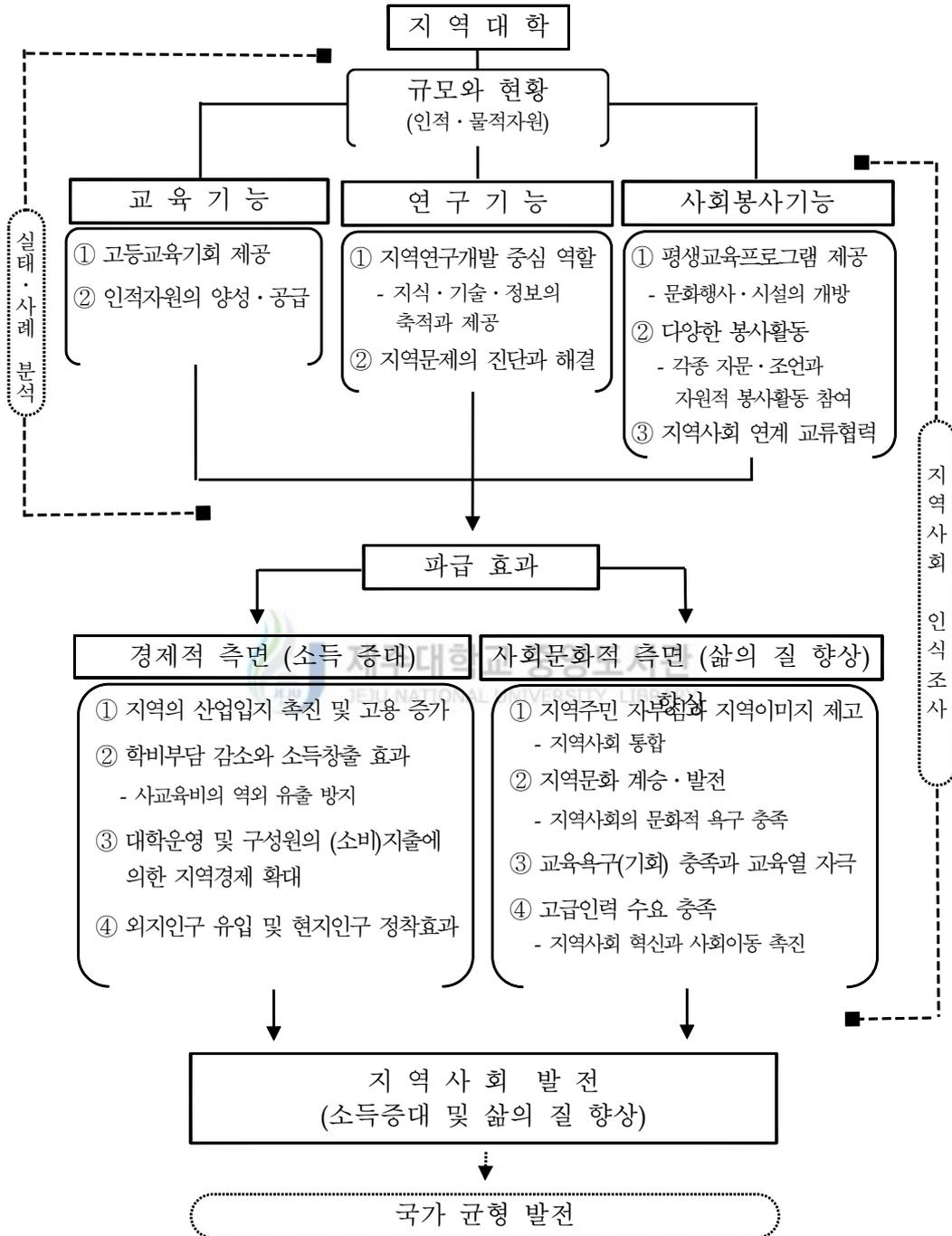
승 발전,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열의 자극, 고급인력에 대한 지역적 수요를 충족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제주대학교를 사례로 삼아 지역사회에서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역할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주 지역사회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확인·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분석 틀



제 3 장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분석

제1절 제주대학교의 현황

1. 대학의 규모

연구대상인 제주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설립구분⁸⁹⁾에 의하면 국립 4년제 일반대학이다. 제주지역에서 이 대학의 시작은 제주도민의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 1952년 도립 제주도립 초급대학으로 인가되면서부터이다. 1955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1962년에 국립대학⁹⁰⁾으로 이관되고, 1980년 캠퍼스 이설 통합을 거쳐 1982년 3월 국립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고등교육의 장(場)을 연 도내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이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의 양적 규모는 제주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동안 1962년을 기점으로 제주도 인구증가만을 놓고 볼 때,⁹¹⁾ 대학의 학과 수는 8.9배, 학생정원은

89)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7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의 구분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그리고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2002년 4월 현재 일반대학 163(국립24), 교육대학 11, 전문대학 159, 산업대학 19, 기술대학 1, 각종학교 4개 등이다(2002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90) 군사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으로 대학 정비가 논의되던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지역적 사정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62년 3월 1일 국립 대학이 실현되었다(제주대학교 「50년사」, p. 156).

91) 인구증가 이외에, 제주지역의 주요 발전지표를 1970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지역 총생산 199배, 공무원 수 3.4배, 재정규모 641배, 학교수 1.8배, 의료기관수 6.8배 등이다. 이러한 지표는 제주지역이 면적과 인구 면에서는 전국의 각각 1.8%, 1.3%에 지나지 않으나, 대학 진학률, '1인당 세출 예산액', '상수도보급률', '만명당 차량대수' 등은 전국 15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제주도 도제 실시 56주년 홍보자료, 2002).

21.6배, 교수는 9.6배 등 규모와 위상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 9월 현재, 졸업생은 초급대학 졸업 229명, 학사 35,067명, 석사 2,390명, 박사 104명 등 37,790명을 배출하였다⁹²⁾(표 3-8 참조).

<표 3-1> 제주대학교의 규모확충 추세

연도별	학과수	학부생 총정원	교수수	제주도 인구	비 고
1952	4	360	8	288,801(1955년)	개교 당시
1962	8	500	46	293,101	국립대학 이관
1972	14	1,030	105	380,926	개교 20년
1982	39	4,640	205	473,967	종합대학 승격
1992	54	7,480	331	506,222	개교 40년
2002 (증가비)	71 (8.9배)	10,800 (21.6배)	443 (9.6배)	547,964 (1.87배)	개교 50년 현재

주1) 증가비는 개교 10년후인 1962년 국립대학으로 이관 당시를 기점으로 함.

주2) 학생 총정원에 대학원생 정원 미포함, 학부는 학부개편 이전의 학과수로 산정됨.

자료 : 제주대학교 「40년사」·「50년사」,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이러한 대학의 규모는 설치학과 수, 교수 수, 학생 수, 시설규모 등 양적 규모 면에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체 6개 대학(2년제 포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의 역량과 기능성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설치학과 수에서 전체 대학의 38%,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68%이다. 학문적 전문성으로 연구역량의 수준을 나타내는 교수는 전체의 57%, 4년제 대학의 86%이며, 교육기회의 제공과 인재양성의 척도인 재학생수는 전체의 약 43%, 4년제 대학의 80%을 넘고 있다. 시설규모는 그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92) 여기에 공개강좌 등 1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포함하면 4만2천명에 이르고, 그 밖의 평생교육, 연수과정 등 1년 미만의 각종 비정규 강좌(자체 외국어 강좌 미포함) 이수자를 포함할 때는 약 5만3천명에 이른다.

<표 3-2> 제주지역 대학현황과 제주대학교의 비중

(2001년 12월 기준, 단위 ; 명)

대학 구분	대학수	학과수	교수 수	재학생수	대학원 재적생수	시설 규모(m ²)		
						학교용지	건 물	
4년제	일반대학	2(사립1)	88	461	10,533	1,672	1,826,491	202,147
	교육대학	1	12	28	597	146	83,935	20,305
2년제	전문대학	3(사립)	77	247	10,005	-	301,233	109,532
계		6	177	736	21,135	1,818	2,211,659	331,984
제주대학교			67	422	9,001	1,496	1,514,274	173,031
비중(%)	4년제		67.7	86.3	80.9	82.3	79.3	77.8
	전 체		37.9	57.3	42.6	82.3	68.5	52.1

자료 : 제주도 「행정총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제주대학교 「통계연보」(각 2002)

2. 대학의 자원현황⁹³⁾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자원은 교수와 직원 및 학생 등의 인적자원과, 실험실, 강의실, 세미나실, 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교육·연구시설과 공간 그리고 각종 기자재 등의 방대한 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직·제도적 차원의 학과 구성,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부속기관과 연구소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규모와 현황을 인적, 물적 및 조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자원

먼저, 대학의 인적 구성은 크게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교수와, 대학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교육과 연구에 관한 학문적 수혜를 받는 학생으로 구성된다. <표 3-3>와 같이 2002년 4월 1일 현재 제주대학교의 전임교원 443명, 조교 100명, 직원 289명 등이 재직하고 있다. 학생은 대학원을 포함한 총 정원 11,432명에 16,203명이 학적을 보유(재적)하고 있다. 그 중 학

93) 제주대학교에서 2002년 발간된 「통계연보」, 「요람」 등 자료에서 발췌·정리함.

부생 9,742명, 대학원생 1,313명 등 모두 11,055명이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보유한 인적자원은 총 11,887명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인 교수 연구인력으로서 계약교원, 초빙교원, 임상교원, 시간강사 등과 5개 공개과정 수강생을 포함한다면 1만2천6백명이 넘는다.

<표 3-3> 대학의 인적 현황

(2002. 4. 1기준)

구 분	교직원				학 생			기 타			총 계
	전임교원	사무직원	조 교	소 계	학부생	대학원생	소 계	교수·연구인력	공개과정생	소 계	
정 원	467	286	100	853	10,800	632	11,432	394	362	756	(12,285)
현 원 (재적)	443	289	100	832	9,742 (14,707)	1,313 (1,496)	11,055 (16,203)				

자료 : 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

2) 물적 자원

물적 자원현황은 <표 3-4>와 같이, 제주시 아라동 캠퍼스 부지 30여만평 (1,011,124㎡)를 비롯한 서귀포시, 북제주군 등 11개소에 151만㎡(457,935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아라 캠퍼스에 108,874㎡ 등 총 110동(棟), 연면적 183,735㎡이다.

<표 3-4> 대학시설 현황

(2002. 4. 1기준, 단위 :㎡)

구 분	교 사 시 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부속시설	계
	기본시설	지원시설					
아라캠퍼스 (제주시 아라동)	78,484	30,390	5,753	2,633	11,850	22,499	151,609
기타 지역 (부설학교등 10개소)	-	-	-	-	326	31,800	32,126
계 (11개소)	78,484	30,390	5,753	2,633	12,176	54,299	183,735 (총 110棟)

주) 기본시설은 강의실 18,415(182실) 실험실습실 36,964(517실) 교수연구실 14,435(472실) 사무실 8,670(170실)임.

자료 : 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등 주요 물품 보유현황은 실험실습기자재 6,580종 18,483점을 비롯하여 전산장비 21종 145점, 외국어교육관의 어학장비 17종 713점, 공동실험실습관의 학내는 물론 외부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장비 137종 144점 등 총 보유물품은 9만여점 564억4천4백만원 상당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 및 제2도서관에 장서(단행본) 576천권과 1,438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3) 조직·제도적 자원

조직·제도적 측면에서의 대학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 단위로써 다양한 기관과 기구 등 복합적인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먼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적 편제단위로서 인문·법정·경상·사범·농업생명과학·해양과학·자연과학·공과·의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에 7개 학부(15개 전공) 및 53개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48개학과, 박사학위과정 32개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교육 기능 수행과 학문의 실용성 및 사회적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대학원으로는 교육대학원 1개학과(19개 전공), 경영대학원 7개학과, 행정대학원 1개학과(4개 전공), 산업대학원 8개학과(7개 전공)에 각 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어 통·번역 역할을 강화해 나갈 목적으로 한영·한중·한독과를 두는 통역대학원이 국립대학 최초로 2000년에 설치되었다.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기능의 수행에 지원활동과 촉진을 위한 지원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을 비롯한 전산정보원, 박물관, 학생기숙사, 공동실험실습관, 평생교육원 등 17개 기관을 두고 있다. 분과 및 학제간 학문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탐라문화연구소 등 11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보육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제주지역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인 아열대원예산업 연구센터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센터를 유치하거나 정부·관련기관으

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제주도로부터 인수하여 2001년 11월 개원된 대학병원,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개강좌 외에도 특수대학원 등에 1년 과정의 공개강좌로 최고경영자과정, 고급관리자과정,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최고 농어업 경영자과정,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등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직과 그 기능의 촉진과 대학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과 관리하는 지원체제로서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등 4개 처·국에 9개 행정 부서를 두고 있다.

제2절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분석

연구대상인 제주대학교는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설립되면서부터 제주지역사회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⁹⁴⁾ 여기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경험적 실태와 주요 사례를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기능 측면

대학의 교육기능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94) 제주대학교의 전신인 도립 초급대학이 설립된 것은 1951년 9월부터 지역 유지인사들을 중심으로 高梁夫삼성재단과 제주향교재단 등을 대상으로 대학시설과 운영 자산을 출연할 주체를 찾아 나서면서부터이다. 결국 대학 설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도립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주도지사를 이사장으로 '제주대학후원회'가 결성되었다. 후원회는 제주향교재단과 삼성재단의 출연자산을 확보함으로써 1952년 3월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정부(당시 문교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설립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대학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55년 4년제 대학 승격, '62년 국립대학 이관, '82년 종합대학 승격 등 대학규모의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기금 조성,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건립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도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으면서 성장·발전해 왔다 (제주대학교, 「40년사」 참조).

기회의 제공과 지역 인재의 양성 배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교육 기회의 제공은 제주도내 진학 희망자와 이를 수용하는 규모로서의 제주대학교의 모집인원 및 재학생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알아보았다. 인재양성 배출실태는 분야별 졸업생의 배출과 지역 내 취업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제주대학교의 교육 기능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문 분야별 분과학문의 설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는 제주대학교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고등교육 욕구를 반영하는 가운데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3-5> 계열별 분과학문 설치 현황

(2002. 4. 1기준)

구 분		분과학문 수			학 부 입학정원	교수수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일반·특수·전문)			
			석 사	박사(일반)		
인문 사회계	어문계	5	6	3	200	38
	인문계	3	3	-	110	17
	사회계	13	20(8)	6	726	73
	사범계①	5	1(10)	-	95	33
	소 계	26(39.4%)	30(18)	9	1,131(42.4%)	161(36.3%)
자연계	이학계	8	8	5	320	49
	공학계	10	12(7)	6	410	57
	농림계	5	5	4	164	25
	수산·해양계	7	7	6	300	40
	사범계②	3	(6)	-	65	17
	소 계	33(50.0%)	32(13)	21	1,259(47.2%)	188(42.4%)
수·의학계		3(4.5%)	3	1	100(3.7%)	65(14.7%)
예·체능계		4(6.1%)	3(3)	1	180(6.7%)	29(6.5%)
전 체		66(100%)	68(34)	32	2,670(100%)	443(100%)

주1) 학부과정의 경우, 학칙상 편제(7개 학부 15개 전공, 53개 학과) 및 모집단위와는 별도로 학문 분과별로 임의 구분함(계열별 분과학문 명칭은 부록 1 참조).

주2) 학부과정에 야간강좌 개설학과는 주간에 포함하고, 대학원 과정에 석·박사 협동과정 제외함.

자료 : 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 제주대학교학칙(별표1)

2002학년도 기준으로 제주대학교에 설치한 학문분과별 현황은 <표 3-5>와 같이 학부과정은 학과·학부·전공 등의 형태로 66개의 분과학문(9개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있다. 일반 대학원을 비롯한 특수대학원(4개)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 학위과정 68개 학과(전공 34), 박사학위 과정 32개 학과이다. 이는 학문체계 분류(표)⁹⁵⁾에 의한 13개 학문계열 가운데 약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문계열·분야에 걸쳐 학과·학부 또는 전공 등의 과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과학문 설치현황과 그에 따른 전임교원 수 및 학생정원 등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나 산업별 생산비중과 취업인구와는 달리,⁹⁶⁾ 학문계열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다.

1) 교육기회의 제공

먼저, 대학교육(진학) 기회 제공 측면에서 제주도내 대학진학 희망자와 제주대학교의 모집인원에 의한 교육기회 제공 정도는 <표 3-6>과 같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전체 대학진학 희망자의 35~42%이며, 인문계 고교 진학 희망자의 54~64%를 수용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입학에 지원하는 지역내 학생수와 비교하면, 수용정도는 62.1%('00~'01년), 80.0%('02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 4년제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지역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실제 진학 수용율은 최근 3년간 전체(인문계) 69%(65%), 64%(62%), 63%(60%)로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⁹⁷⁾

9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련 자료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학에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등의 분류는 크게는 대계열인 인문사회계·자연계, 예·체능계 등 3개 분야는 구분하고, 중계열은 어문계·인문계·사회계·이학계·농림계·수해양계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96) 제주지역은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3차 산업 비중(60.6%)이 절대적인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2차 산업 34.9%, 1차 산업 4.5%). 산업별 총생산규모 역시, 3차 산업 73.8%로 절대적이며, 1차 산업 22.4%, 2차 산업은 3.8%에 불과하다. 산업별 취업인구 또한, 3차 산업 70.3%, 1차 산업 25.3%, 2차 산업 4.4%이다(제주도, 「2002주요행정총람」; 「도제 실시 56주년 홍보자료」, 2002).

97) 그러나, 진학기회의 제공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은 대학의 모집인원의 증가보다는 전국적으로 진학인구의 감소가 그 직접 원인이다. 특히, 2003학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진학희망자가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입학정원 역전시대를 맞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2002학년도부터 도내 수능 응시인원이 도내 6개 대학(2년제 포함)의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대입정원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6> 제주지역 학생의 진학기회 제공 실태

구 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전체	인문계	전체	인문계	전체	인문계		
제주지역	대학진학 희망자 A	8,401	5,392	8,195	5,237	6,787	4,490		
	대학진학자	일반대학 B	3,565	3,249	3,677	3,367	3,361	3,038	
		교육대학+전문대학	3,918	1,679	3,809	1,479	3,288	1,327	
		소 계	7,483	4,928	7,486	4,846	6,649	4,365	
제주대학교	전체 모집인원(입학정원) C	2,952(2,670)		2,881(2,670)		2,848(2,670)			
	정시 모집인원 D	2,626		2,447		2,481			
	지원자 (%)	전 체		5,346		5,272		4,594	
		제주지역 고교출신 E		4,231(79.1)		3,938(74.7)		3,102(67.5)	
	입학인원	전 체		2,813		2,729		2,564	
		제주지역 고교출신 F		2,448	2,103	2,366	2,095	2,114	1,825
	①진학기회 제공 (C/A, %)		35.1	54.7	35.2	55.0	42.0	63.4	
	②지원자 수용율 (D/E, %)		62.1		62.1		80.0		
③실제 진학자 수용율 (F/B, %)		68.7	64.7	64.3	62.2	62.9	60.1		

주1) 전체 모집인원은 특차(수시) 및 정원외를 포함하였으며, 입학인원은 매 학년도 최종 합격자 기준임.

자료 : 제주교육청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대학교 「연찬회자료」, 학생지원과 내부자료

이러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따라, 2002년 4월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도내·출신 비율은 <표 3-7>과 같이 학부 총재학생 9,742명 중 제주지역 출신이 84.2%인 8,208명이며, 타 지역 고교출신 재학생은 15.7%인 1,534명이다.

<표 3-7> 제주지역 출신 재학생 현황

(2002. 4. 1 현재)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제주지역(%)	2,045 (76.1)	2,199 (86.9)	1,972 (83.8)	1,992 (91.8)	8,208 (84.2)
도외지역(%)	643 (23.9)	331 (13.1)	381 (16.2)	178 (8.2)	1,534 (15.7)
계	2,688 (100)	2,531 (100)	2,353 (100)	2,170 (100)	9,742 (100)

자료 : 제주대학교 학적통계 자료(전산정보원)

여기에 학년별 분포를 볼 때, 매년 제주지역 출신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육

지부 소재 고교출신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⁹⁸⁾ 이는 교육기회로서 수용율의 증가 추세와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에 진학하는 육지부 고교 출신자의 입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있으나, 최근 제주지역의 입학자원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진학의 기회가 지역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인력양성 배출

다음으로, 인력양성·배출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정규과정을 통해 제주대학교를 졸업(수료)한 인원은 <표 3-8>과 같이 초급대학 229명, 학부(학사학위)과정 35,067명, 석사과정 2,390명, 박사과정 104명 등 37,790명이다.⁹⁹⁾

<표 3-8> 학위별 인력양성 배출 현황

구 분 학년도별	학 위 별				기타 교육과정 배출	
	학 사	석 사	박 사	계	초급대학	공개강좌 ¹⁾
이전누계	29,314	1,497	60	30,871	229	
1999	1,749	290	18	2,057	-	
2000	1,956	289	13	2,258	-	
2001	1,848	314	13	2,375	-	
총 누계	35,067	2,390	104	37,561	229	4,001

주1) 공개강좌는 단과대학 및 특수대학원 등에 개설된 1년 이상 과정 수료자임.

주2) 2002년 8월 졸업(수료)생까지 포함함.

자료 : 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의

이를 학부과정에 한하여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9>와 같이 약학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배출하고 있으며, 계열별 분포에 있어서는 인

98) 정시모집시 전체 입학지원자 중 육지부 고교출신 지원자는 1999학년도 17.4%, '00학년도 20.9%, '01학년도 25.3%, '02학년도 32.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나타났다.

99) 인력배출 규모는 2002년 말 기준 제주지역 취업인구(269천명)의 14.0%에 해당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의 한 방법으로 실시한 질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7%(4년제 대졸자의 65%)가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이는 무작위로 표집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사회에서 졸업 동문의 비중은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문사회계열 41.1%(14,332명), 자연계열 40.8%(14,231명)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세부 (중)계열별로는 사회계 배출비율이 26.7%로 가장 높고, 수·의학 계열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 학문분야별 인력양성 배출 현황

계열별 (학문분야)	인문사회계				자연계						사범	예· 체능	계
	어문	인문	사회	소계	농림	수·해양	이학	공학	수·의학	소계			
배출인원 (비율%)	3,605 (10.3)	1,404 (4.1)	9,323 (26.7)	14,332 (41.1)	3,425 (9.8)	3,015 (8.6)	2,784 (8.0)	4,344 (12.5)	663 (1.9)	14,231 (40.8)	4,085 (11.7)	2,219 (6.4)	34,867 (100)

주) 2002년 2월 졸업까지의 학사학위 기준임.

자료 : 제주대학교 「50년사」(2002)

이러한 인력양성의 결과 나타나는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표 3-10>과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은 64.8%이며, 그 중 제주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취업자의 81.2%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가 육지부와 떨어진 섬으로서의 입지적 요인도

<표 3-10> 최근 3년간 취업률 및 지역내 취업 현황

졸업 년도	구 분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지역			
			인원	비율	도내	%	도외	%
2000	인문계	797	509	63.8	428	84.1	81	15.9
	자연계	720	488	67.7	375	76.8	113	23.2
	소계	1,517	997	65.7	803	80.6	194	19.4
2001	인문계	845	547	64.7	469	85.7	78	14.3
	자연계	845	591	69.9	442	74.8	149	25.2
	소계	1,690	1,138	67.3	911	80.1	227	19.9
2002	인문계	926	583	62.9	503	86.3	80	13.7
	자연계	917	553	60.3	438	79.2	115	20.8
	소계	1,843	1,136	61.6	941	82.8	195	17.2
합계	인문계	2,568	1,639	63.8	1,400	85.4	239	14.6
	자연계	2,482	1,632	65.7	1,255	76.9	377	23.1
	계	5,050	3,271	64.8	2,655	81.2	616	18.8

주) 연도는 그 해 2월, 8월 졸업자 대상으로 매년 9월말 기준, 예체능계는 인문계에 포함

자료 : 제주대학교 취업통계 내부자료(종합서비스센터)

크겠지만, 취업자의 80% 이상이 제주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점은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주고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분야 별 지역내 취업은 인문사회계열(85.4%)가 자연계열(76.9%) 졸업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 차이는 적으나, 제주지역의 인력수요 내지 취업기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2. 연구기능 측면

대학의 연구기능은 곧 교수의 역량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교수의 역량은 학문연구는 물론, 대학교육과 사회봉사의 질(質)을 나타내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은 대학의 가장 생산적인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기능은 다른 기능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역사회에서 대학 연구기능 측면의 역할은 교수의 학술 연구활동과 연구소 설치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1) 지역 연구활동 실적

먼저,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수행한 학술연구 활동을 <표 3-11>에서와 같다. 논문발표, 연구보고서, 저서·편지, 공연·전시 및 특허등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연구활동 중 제주지역과 관련된 연구실적¹⁰⁰⁾은 논문발표 16.0%, 연구보고서 57.1%, 저서 등 6.7%, 공연전시가 67.1%이다. 또한 특허등록은 전체 79건 8.8%인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비교을 통한 상대적 우위 정도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주대학교 교수들은 지역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구보고서의 경우는 전체의 60%에 가까운 194편이 제주지역의 자치단체의 정책 진단이나 개발, 지역 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100) 연구실적 중 제주지역과 관련된 실적의 구분은 제주대학교에서 발행한 「교수와 연구업적」(1999~2001)에서 각 교수 개인별로 수록된 모든 내용을 확인한 결과(760쪽 분량), 논문제목(부제 포함) 등에 제주지역의 지명이나 제주를 대표하거나 상징(감귤, 한라산 등)하는 자구가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연구자가 편의적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혀 둔다.

공연·전시 등은 지역적 특성상 제주지역의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표 3-11> 최근 3년간 지역관련 연구활동 실적

연도별	전 체					지역관련 실적				
	논문 발표	연구 보고서	저서 편저 등	공연 전시	특허 등록	논문 발표	연구 보고서	저서 편저 등	공연 전시	특허 등록
1999	816	123	81	109	36	134(16.4)	68(55.3)	5(6.2)	74(67.9)	4(11.1)
2000	861	115	90	102	24	127(14.7)	69(60.0)	5(5.5)	69(67.6)	3(12.5)
2001	897	102	83	129	19	152(16.9)	57(55.9)	7(8.4)	85(65.9)	-(0.0)
계	2,574	340	254	340	79	413(16.0)	194(57.1)	17(6.7)	228(67.1)	7(8.8)

자료 : 제주대학교 「교수와 연구업적」(1999~2001), 내부자료(교수지원과)

2) 지역문제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과제연구가 제주대학교 교수들에 의해 산학협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주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이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6년간 연 49명의 교수가 제주도로부터 총 3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감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응품종 육성재배에 관한 연구” 등 지역개발에 관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부터이다.¹⁰¹⁾ 그후 지역개발을 위한 산학협동연구는 농업, 축산, 수산업, 관광 등 제반 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었다. 특히 1970년에는 제주대학 교수가 대거 도정평가교수단에 참여함으로써 과제 연구와 행정 자문 등 도정 수행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¹⁰²⁾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활동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학술연구용역 참여실적을 살펴보았다. <표 3-12>와 같이 440명의 교수 중 23.2%인 102명만이 3년 동안 1건 이상 연구

101) 제주도의 연구비 지원은 1968년 2월 연두 순시차 내도한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도정 수행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제주대학교의 이론적 뒷받침을 얻어서 해결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제주대학교 「50년사」, p. 190).

102) 제주대학교 「50년사」, p. 190.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6.8%(338명)의 교수는 한번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용자료상에 일부 실적이 등재되지 못했거나, 특정분야 교수들에게 용역수주가 편중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5회 이상 21명, 4회 7명, 3회 11명 등 39명이 매년 1건(회) 이상 연구용역 수주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학술연구용역 참여실적

계열별	0건	1회(건)	2회(건)	3회(건)	4회(건)	5회(건)이상	계
인문사회계	146(73.3%)	14	15	4	2	9	190
자연계	192(76.8%)	16	18	7	5	12	250
계	338(76.8%)	30	33	11	7	21	440

주) 예·체능계(29명)는 인문사회계열에 포함.

자료 : 제주대학교 「교수와 연구업적」(1999~2001)

3) 연구기관 설치와 산학협동

제주대학교에서 설치된 최초의 학술 연구소는 1967년 3월 개설된 제주도축산문제연구소와 제주도문제연구소이다.¹⁰³⁾ 이 연구소는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제주축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 지역 축산개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후자는 제주지역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의 제반 영역에 걸쳐 전문분야별 인접분과학문 사이에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제주 지역사회의 지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해당분야의 학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제주지역 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남방수산물연구소

103) 제주도축산문제연구소는 제주도축산연구소(88), 동물과학연구소(91)로 개칭과정을 거쳐 현재는 아열대농업 동물과학연구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문제연구소는 제주도문화연구소(75)에 이어 이듬해 다시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되어 운영해 오다, 2001년 9월 기존의 인문과학연구소를 흡수·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주대학교 「요람」 2002).

(1968), 기업경영연구소(1969), 농촌문제연구소(1970), 관광개발연구소(1974) 아열대농업연구소(1981), 사회발전연구소(1984), 새마을연구소를 개편한 지역발전연구소(1989), 섬연구소(1997) 등 모두 10개의 지역연구 관련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정연구 및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농림부 지정),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한국과학재단 지정), 중소기업지원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이상 1996년 설치),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1999),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산업자원부 지정, 2001) 등이 설치되었다. 이들 연구소는 그동안 개편·통폐합하거나 조정되어 2002년 4월 현재 총 15개 연구소(센터 포함)로 재편 설치하고 있다. 그 중 10개 연구소(센터 포함)가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 관련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부록 2 참조).

여기에, 연구기능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제주지역 산업체 등과 산학협동에 의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그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협력 연구센터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는 아열대 원예산업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주지역을 첨단농업지대로 육성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해결을 목적으로 1996년 한국과학재단 지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이다. <표 3-13>과 같이, 2003년 2월 현재 7차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5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139개의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여기에 참여한 제주지역 중소 산업체는 69개 업체이다. 사업성과는 상품화 29건, 기술이전 58건, 기술지도 96건, 특허출원 47건(등록 29건), 전문인력 양성 116명, 연구논문 발표도 국제학술지 발표 119편을 포함하여 380편이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¹⁰⁴⁾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과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는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연구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지역 제조업 및 농수산 가공분야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104)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로 설치하여 8차년도까지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1998년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 사업자 지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창업보육센터와 2001년 9월 통합되어 설치되었다(제주대학교 「요람」 2002).

<표 3-13>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연구사업 실적

사업년도	사업비 (천원)	과제수	참여 사업체	주요 성과							
				상품화	기술 이전	기술 지도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인재양성		논문 발표
									석사	박사	
1차년도('96)	513,984	21	4	1	2	8	-	-	19	2	46(10)
2차 ('97)	566,629	19	6	2	5	10	-	-	17	3	52(10)
3차 ('98)	532,977	23	5	4	5	9	8(2)	-	6	2	54(11)
4차 ('99)	1,087,289	25	18	4	13	17	2	4(1)	15	1	47(12)
5차 ('00)	921,393	17	16	5	2	32	13(2)	6(1)	19	1	64(27)
6차 ('01)	1,006,322	19	12	10	8	3	20(3)	19	16	2	75(31)
7차 ('02)	691,958	15	8	3	7	17	4	-	8	5	42(18)
총 계	5,320,552	139	69	29	58	96	47(7)	29(2)	100	16	380(119)

주1) 주요성과의 ()는 국외특허, 국외발표수로서 밖의 수에 포함됨.

주2) 사업비는 매년 평균 한국과학재단 59.2%, 참여사업체 18.6%, 자치단체 12.3%, 대학 9.0% 등 부담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99~'02), 「요람」(2002), 센터 내부자료

<표 3-14>와 같이 10차년도 동안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30억7천 만원을 투입하여 연 185개 기업체와 산학협동을 통해 177건의 공동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앞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와 더불어 제주지역 산업체와의 기술교류·개발을 통해 연구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14>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실적

과제 수	사업비(천원)	참여업체수	주요 연구성과
177	3,073,850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화 18건 ▪ 공정개선 19건 ▪ 시제품개발 97건 ▪ S/W개발 16건 ▪ 특허출원 27건 ▪ 실용신안출원 7건 ▪ 의장등록 12건 ▪ 상표등록 2건

주) 사업비는 중소기업청(50%내외), 제주도, 참여기업체, 대학 등이 부담하고 있음.

자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02)

창업보육사업은 1998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¹⁰⁵⁾ 사업자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입주업체를 공모하였다. 그 동안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

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기술개발 지원, 창업교육, 수익성 분석 및 경영지도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입주 업체수는 총 39개 사업체이며, 2002년 11월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보육되고 있다.¹⁰⁶⁾

지역기술혁신센터(TIC)는 2001년 산업자원부, 제주도 및 도내 기초단체들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제주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산업에 비중이 큰 1차 산업(농·수·축산업)과 풍부한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지도와 연구개발, 기술정보 제공 및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물산업의 지역기술 거점 구축은 물론 환경 친화적 에너지절약 및 고부가가치 창출형 바이오산업을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¹⁰⁷⁾ 센터 사업실적은 아래 <표 3-15>와 같다.

<표 3-15>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실적

사업비 (백만원)	장비 이용			공동 연구		교육 훈련		정보 유통	창업 보육	기술지도 실험실습
	장비 확보	장비 활용	활용 교육	과제 수	참여 업체	교 육	세미나			
2,670	51종 (5백만원 이상)	264건, 13개 업체	23회	7	8	7강좌	27회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지원 소식지 발행 등	5개 업체 입주	33건, 26개 업체

주) 사업비는 산업자원부(62%), 제주도(23.2%), 제주시·남·북군, 대학 등 부담.

자료 : 센터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사업실적보고서, 2003. 5.)

105) 창업보육이란 일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라고도 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나 경험부족으로 창업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기업가를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재정, 행정, 경영서비스를 지원하여 성공률을 높혀 줌으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는 지역개발수단의 하나이다(강병수, 앞의 논문, p. 102). 이러한 창업보육센터는 산학간의 상호 접촉과 합동연구 개발의 장(場)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술 및 산업혁신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창업보육사업을 전개하여 2002년 3월 현재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279개로 35,000여 개의 입주기업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106) 제주대학교 「요람」(2002)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함.

107) 제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www.chejutic.cheju.ac.kr).

3. 사회봉사기능 측면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은 대학마다 실정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 제주대학교가 사회봉사 기능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¹⁰⁸⁾ 이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교육의 제공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행,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대학시설 등 보유자원의 개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실행을 살펴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최근 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 못지 않게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 지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제주대학교는 7개 과정의 정규 공개강좌¹⁰⁹⁾를 비롯한 도내 중등교사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과정, 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그리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외국어 강좌 등 20여개 단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과정에 연간

108) 또한, 제주대학교는 종합발전계획(2001~2010)을 통하여 평생교육강좌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방안 등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내부혁신 방안(2001. 5.31)의 기본 목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천명하는 등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109) 대학 공개강좌의 기원은 1860년대 잉글랜드 북부지역에서 영국 캠브리지(Cambridge)대학 교수들의 자발적인 '출장강의'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옥스퍼드, 맨체스터, 런던대학 등 여러 교수들이 출장강의 방식의 교외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공개강좌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 정식으로 공개강좌가 시도된 것은 1873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이다. 이러한 교외교육 운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대학에서도 공개강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1869년 하버드(Harvard)대학에 비정규강좌인 '여름학교'가 개설되고, 1910년 이후 야간대학이 개설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학시설을 이용한 성인교육이 대학확장운동 일환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0년대에 들어 이화여대 학생들의 농촌계몽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영·미의 공개강좌와 같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된 것은 1970년 겨울부터 시작된 계명대학교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황중건,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 「대학교육」 제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pp. 54~56).

강좌별 모집인원은 약 2,000명 정도이며, 그 동안 수료한 인원은 15,700여명으로 추정된다(외국어 특별강좌 제외). 2002학년도 현재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표 3-16>과 같다.

특히,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12개 강좌는 제주도,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에서 관할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학의 관련 단위기관인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관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

<표 3-16>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 개설 현황

구분	과정명(개설년도)	기간	모집인원	대상	주관	수료연인원
공개강좌 (7)	최고경영자과정(1990)	1년	70명	기관·단체·기업체 임	경영대학원	822
	고급관리자과정(1991)	1년	60명내외	직원 등	행정대학원	721
	지역사회지도자과정(1994)	1년	60명내외	지역 농어촌지도자 등	행정대학원	461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1995)	1년	100명내외	농어민후계자 등 농어민	농업생명	765
	시민그린대학(1996)	1년	150명내외	제주시민	과학대학	830
	고급환경전문가과정(2002)	1년	80명	환경에 관심있는 도민	산업대학원	75
	여성지도자 과정(1999)	1년	80명내외	도내 여성지도자 등	평생교육원	271
자격연수 (3)	중등교원연수(직무, 자격)과정	방학 중	각40명내외	도내 중등 교사	중등교육연수원	3,081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2000)	1년	60명	도내 초·중등 교사	교육대학원	56
	생활체육지도자과정(1990)	60시간	80명내외	도내 생활체육인	체육진흥센터	843
영재교육	기초(1년차)·심화과정(2년차)등	1년	241명	도내 초·중생	과학영재교육원	673
평생교육 (6)	일반교양 강좌 - 학기별 25개 내외	6월	350명 내외	제주도민	평생교육원	2,244
	노인교육전문가 과정('00)	6월	80명	제주도민	"	183
	119수중인명구조훈련과정('00)	60시간	20명	119구조대원	"	62
	평생부부·건강가족 과정('02)	20시간	72명	제주도민	"	42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02)	45시간	37명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	26
	생활체육 승마과정('02)	30시간	21명	제주도민	"	21
외국어 교육 (4)	각종 특별 외국인 강좌(자체) - 매년 35~40개반, 6회개설	각 6주	반별 20명 내외	재학생 및 제주도민 (수강 제한없음)	외국어교육관	연간 4천여명
	월드컵자원봉사자 영어강좌('01)	60시간	88명	자원봉사자(제주도민)	외국어교육관	2001년 522명
	여성인력국제화 외국인강좌('99)	12주	90명	제주도민(여성)	외국어교육관	
		6주	110명			
민박가정(Home-Stay)관광안내원 양성 외국인강좌('00)	12주 13주	59명 43명	제주시민(민박가정 여성)	외국어교육관		
계	약 20개 과정	6주~1년	약 2,000명	제주 도민	10개 단위기관	추정 15,700명

주) 수료 연인원은 2002학년도 수료생수 포함.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01~'02), 「통계연보」, 「대학요람」 등 발췌 정리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학년도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위탁한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등 7개 강좌에 년 137백만원을 강좌운영비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는 시민그린대학, 여성지도자과정, 관광안내원 양성 외국어강좌 등 3개 강좌에 10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7> 지역사회 협력 공동운영 강좌현황

과정명(개설년도)	교육기간	교육생수	지원·협력		주 관
			협력기관	2002.지원 예산(천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1994)	1년	60명	제주도	33,000	행정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2002)	1년	80명	제주도	40,000	산업대학원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1995)	1년	99명	제주도	13,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시민그린대학(1996)	1년	150명	제주시	3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성지도자과정(1999)	130시간	80명	제주시	25,000	평생교육원
119수증인명구조훈련과정(2001)	60시간	20명	제주도	3,400	평생교육원
평등부부·건강가족과정(2002)	20시간	72명	"	5,000	"
생활체육 승마과정(2002)	30시간	21명	제주승마협회	1,400	"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2002)	45시간	37명	제주증기청	7,000	"
월드컵 자원봉사자 영어강좌(2001)	60시간	88명	제주도	12,450	외국어교육관
여성인력국제화 외국어 강좌(1999)	12주	90명	제주도	30,550	외국어교육관
	6주	110명			
민박가정(Home-Stay)관광안내원 양성 외국어강좌(2000)	12주	59명	제주시	46,280	외국어교육관
	13주	43명			
12개 강좌				247,080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2002) 및 내부자료 발취·정리

2) 문화행사 및 대학시설 등 자원의 개방

대학이 명실공히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거나 그 편익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나 학문적·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설·물리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대학교에서 지역의 주민과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행사들은 대부분은 학과, 연구소 등 단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도 있지만, 각 단위기관의 기능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이론을 제주지역이라는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표 3-18>과 같이 최근 2년간 개최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이나 경진대회(15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15개), 교육봉사 프로그램(10개), 지역사회 봉사활동(6개)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행사프로그램을 교내 및 교외 시설·공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나 학술행사 등을 대학의 각종 학사정보와 함께 사이버 공간(cyberspace ; 홈페이지 <http://cheju.ac.kr>)¹¹⁰⁾을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표 3-18> 지역사회(주민)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 상	개최시기 및 장소	주 관
경연 및 경진 (15개)	외국어 말하기 대회	제주지역 학생 및 일반인	매년 9월중, 교내	인문대학
	전도 고교생 논술대회	도내 고교생	매년 11월중, 교내	국어국문학과
	일본어말하기 대회	도내 고교생 및 도민(일반부)	매년 11월중, 교내	일어일문학과
	철학 독후감 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매년 8월중, 교내	철학과
	어린이 철학교실	도내 어린이(초등생)	매년4~5월중, 교내	철학과
	아라음악 콩쿠르	전국 초·중·고교생	매년 11월중, 시내공연장	음악학과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매년 5월중, 교내외	미술학과
	문학백일장	도내 중·고등학생	매년 10월중, 교내	국어교육과
	수학경시대회	도내 중·고교생	매년 11월중, 교내	수학교육과 교육과학연구소
	전도 통일퀴즈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매년 6월중, 시내고교	윤리교육과
	전도 지리올림피아드	도내 고교생 및 교사	매년 5월중, 교내	사회(지리)교육과
	이동 로봇 경연대회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매년 10~11월중, 교내	기계에너지 생산공학부
	정보화경진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매년 8월중, 교내	전산정보원
	영어 말하기 대회	도내 대학생 및 고교생	매년 11월중, 교내	신문방송사
	CEBS 아라가요제	도내 재학 대학생	매년 5월중, 시내공연장	교육방송국
전시 및 공연 (15개)	중국어 연극공연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9~10월중, 교내	중어중문학과
	일본어 연극공연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9~10월중, 교내	일어일문학과
	음악 연주회 (피아노, 성악 등)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4~6회, 시내공연장	음악학과

110) 2002년 12월 현재, 외부망(45Mbps, 155Mbps)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량은 24,495면이며, 홈페이지에 링크 연결된 사이트는 157개이다.

구 분	프로그램명	대 상	개최시기 및 장소	주 관
(전시 및 공연)	제대미전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5월중, 시내전시실	미술학과
	컴퓨터작품 전시회	초·중등교사 및 학생, 학부모	매년 11월중, 교내	컴퓨터교육과
	프레스플라워 전시회	재학생 및 도민	매년 10월중, 교내	원예생명과학부
	애완견 한마당 및 애완동물교실 운영	도내 어린이 및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매년 9월중, 시내공연장	수의학과 (동물병원)
	패션 컬렉션	재학생, 의류업체 및 제주도민	매년 9,10월, 교내	의류학과
	의류 전시회	재학생, 도내고교생 및 학부모	매년 11월중, 교내	의류학과
	건축 작품전시회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9월중, 시내전시실	건축공학과
	산업디자인작품 전시회	재학생 및 제주도민	매년 12월, 시내전시실	산업디자인학과
	제주과학기술대전 (과학축전)	도내 학생과 도민	매년 10월중, 교외	제주도 기초과학연구소외
	제주 수학체험전	도내 초·중·고학생	매년 6월중, 중등학교 현장	기초과학연구소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과학 짝잔치	도내 초·중학생	2001년 9월, 교외	교육과학연구소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하계 이동방송 운영	제주도민 및 관광객	매년 8월중, 해수욕장	교육방송국
교육봉사 (10개)	한문교육 및 제주어 바르쓰기	도내 초등학교생	매년 7~8월중, 교내	중어중문학과
	중·고교생 열린교육 (유럽문화 정보 제공)	전국 초·중·고교생	매년 11월중, 학교현장	독일학과
	참여자치 대학생 캠프	도내 대학생	매년 11월중, 교외	사회학과
	제주사랑 향토학교	도내 중학생	매년 11월중, 도내일원	사학과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도내 농촌마을 방문	연중 1회, 농촌지역	전산통계학과
	노년층 무료 인터넷교육	도내 거주노인	매년 7월, 교내	전산통계학과 기초과학연구소
	해양스포츠 교실 운영	도내 고교생	매년 8월중, 도내 해안	체육학과
	모의 TOEIC 실시	도내 학생 및 도민	매년 6회, 교내	외국어교육관
	TOEIC, TEPS, JPT 시험 원서접수 대행	도내 학생 및 도민	매년 25회 내외, 교내	외국어교육관
하계 수학·과학 특별학교 운영	도내 고교생	매년 7~8월중, 교내	기초과학연구소	
지역사회 봉사활동 (6개)	이동 농과대학 운영	도내 일원 방문 토양검증, 동물진료, 농업컨설팅 등	연 2회, 농가현장	농업생명과학대학
	하계 무료진료봉사	도내 가축농가	매년 6월중, 도내일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경주마 임신진단 및 혈청검사 대행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연중, 교내 및 현장방문	동물병원
	가정생활상담실 운영	제주도민	수시('99년 이후)	가정관리학과
	제주도민 영양상담	제주도민(제주시청 내)	매년 11월중, 제주시청	식품영양학과
	하계 무료의료봉사	도내 도서벽지 주민	매년 8월중, 도서벽지	의과대학
기타 프로그램 (2개)	올림픽 성화봉송로 자전거일주	제주도민	매년 5월중, 제주도일주	체육학과
	일일명예학장제도 운영	도내 농업관련 인사	2000. 9월 이후 9명	농업생명과학대학
계	프로그램 수 : 48개	○초·중등학생 대상 : 28개 ○일반성인(대학생 포함)대상 : 28개(일부 중복)	○교내 개최 : 24 ○교외 개최 : 24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 「대학요람」, 「통계연보」, 홈페이지 등에서 발췌 정리함.

대학시설의 개방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훌륭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는 30만 평이 넘는 아라 캠퍼스를 포함한 학교용지 45만8천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이외에 지역사회에 대하여 도서 및 정보자료의 이용, 평생교육과 외국어 강좌의 수강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연주·전시공간과 잔디광장과 같은 각종 문화·휴식공간을 수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분의 물적 자원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다.¹¹¹⁾

이외에도 대학의 각종 부속시설이나 그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실태를 살펴보면, 도서관¹¹²⁾은 학술정보시스템(CHULIC)을 구축하고,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모든 장서를 서지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전자도서관 설치 일환으로 학위논문을 Full Text 구축¹¹³⁾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열람¹¹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장자료의 공유화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지공동협의회(KORS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IT), OCLC 등을 통하여 국내학술 자료는 물론 전 세계의 학술자료도 상호대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 지역 연구자료의 제공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

111)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는 한라산 중턱에 위치하여 한라산 정상과 제주의 푸른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으며, 대학 진입로(약 1.5km)에 왕벚꽃 나무를 식재하여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캠퍼스 내에 잔디광장(4개소, 25,200㎡)과 제주 석재 유물 150여점이 전시된 야외 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휴일마다 유치원생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됨은 물론 CF촬영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420호, “캠퍼스 명소, 아름다운 캠퍼스” 연재기사, 2002. 5.27자, <http://www.unn.net>.)

112) 1952년 개교당시 문고형식(60권 소장)으로 발족된 도서관은 중앙도서관(8,007.6㎡)과 제2도서관(3,364.5㎡) 및 분관으로 의학도서관(243.3㎡)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단행본 615,654권, 학술지 860여종, 전자저널 구독, 열람좌석 1,438석을 갖추고 있다(chulic.cheju.ac.kr).

113) 2002년 12월말 현재 도서관 총 보유장서 61만5천여책에 대한 서지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에서 수여한 석·박사 학위논문 전체(2,738권)에 대하여 원문 DB를 구축하고 있다.

114)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하여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도서대출 건수는 2000년 935책, 2001년 1,177책, 2002년 2,315책 등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취시키기 위한 향토자료실을 설치 운영¹¹⁵⁾하고 있다. 외국어교육관은 첨단 외국어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어학능력 평가 기회 제공, 어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물관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고고·미술·역사·민속·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은 교양강좌를 비롯한 예술, 지역문화, 정보화, 생활체육 등 매학기 25개 내외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실험실습관, 전산정보원, 상담봉사센터, 동물병원 등 기능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거나 개방하고 있다.

3) 교수와 학생들에 의한 사회봉사 참여

교수들의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세미나와 연수회의 강연이나 토론자로, 연구결과나 정보의 제공자로, 지역사회 연구·조사에 대한 조력자로 신문 기고 및 방송 출연 등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최근 3년간 사회봉사 활동은 <표 3-19>와 같이, 전체 440명의 교수 중 63.6%인 280명의 교수가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실적

계열별(교수수)	5회(건)이상	4회(건)	3회(건)	2회(건)	1회(건)	(1회이상)	미참여
인문사회계(161)	44	8	12	16	30	110(68.3)	51(31.7)
자연계(250)	45	15	16	30	40	146(58.4)	104(41.6)
예체능계(29)	11	7	4	1	1	24(82.8)	5(17.2)
계 (440명)	100(22.7)	30(6.8)	32(7.3)	47(10.7)	71(16.1)	280(63.6)	160(36.4)
누적 합계	-	130(29.5)	162(36.8)	209(47.5)	280(63.6)		

자료 : 제주대학교 「교수와 연구업적」(1999~2001)

3년 동안 사회봉사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36.4%(160명)였다. 참여 회

115) 1967년 3월 향토자료공간으로 '제주도 룸'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앞의 「50년사」, p. 1024).

수별로는 1회 참여 교수가 71명(16.1%), 2회 이상 209명(47.5%), 매년 1회 이상인 3회 이상 참여 교수는 162명(36.8%), 4회 이상 130명(29.5%), 5회 이상 참여한 교수는 전체의 22.7%인 100명이다. 교수 전공분야별로는 예체능계열 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인문사회, 자연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에 의한 봉사활동¹¹⁶⁾은 교수와는 달리, 사회봉사 학점제 등 대학당국이 주관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소 자원(自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 1998. 2학기부터 사회봉사 교과목(2학점)을 매학기 개설하고 있다. 사회봉사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회봉사센터 설치·운영(2000. 3.), 사회봉사프로그램 공모 및 사회봉사자대회 개최(매년), 사회봉사단 창단(1999.11.), 사회봉사의 날(5.26) 지정,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자원적 직접 체험봉사 및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는 학생은 매년 약 2,400명(재학생 수의 25.%) 정도가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고 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표 3-20>과 같다.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대부분은 동아리 조직·운영을 통해 전개된다. 2002학년도 공식적으로 대학당국에 등록된 동아리 단체는 66개¹¹⁷⁾이다. 이 가운데 봉사분과는 지역내 불우아동을 돕는 '보통사람들', 도내 보육원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교육봉사회 돌다리' 등 9개이다. 이외에 지역사회 문제¹¹⁸⁾를 다루는 동아리로 제주도문제연구회, 산학협동연구회 등이 있다.

116) 제주대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은 1960년대초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약 10일간 농촌지역을 방문 현저에서의 도로 보수 및 청소 등의 노력봉사, 중고생 학습지도 등의 교육봉사, 가축진료 및 전염병 예방활동 등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1972년에는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대학생 애향단이 발족된 바 있다(제주대학교 「50년사」, p. 215~216).

117) 동아리단체는 목적 및 활동분야에 따라 문화(17개), 학술(7개), 종교(11개), 취미(9개), 봉사(9개), 체육 및 기타 분과(15개) 등 분과별로 등록하고 있으며, 2002학년도 현재 66개 동아리에 재학생 3,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 p. 66).

118) 제주지역사회문제와 관련지어 최초로 조직된 동아리는 '제주도문제연구회'이다. 이는 제주도의 지역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1962년 4월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1966년 11월 22일(제주시민회관), 제1회 제주도문제심포지엄이 당시 총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다(제주대학교 「50년사」, p. 205. p. 223).

<표 3-20> 학생에 의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회봉사 내용	실적(참여인원 등)	
	2001	2002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76명	117명
○ 사회봉사단(아라봉사단)원 모집 및 운영	144명	179명
○ 사회봉사 도우미 연수 (연 2회)	61명	72명
○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894명(16팀)	618명(11팀)
○ “아라 사회봉사의 날” 행사 개최 - 수화공연, 장애인 작품전시, 봉사활동 사진전시, 지체장애인 체험(휠체어타기, 눈가리고 걷기)	500여명 (2000년)	200명
○ 사회봉사자대회 개최 - 우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시상 - 장애인 체험(휠체어 타기, 눈가리고 걷기) - 헌혈캠페인 및 사랑의 1일 오찬 등	250명	250명
○ 개교 50주년 기념 해외 봉사활동(중국 길림성 연길시) - 한글, 태권도, 영어, 컴퓨터, 미술 등 교육봉사 -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역사탐방 등 현장교육 등	-	20명
○ 지미카터 특별건축사업(JCWP) 자원봉사 참가	10명	10명
○ PAS청년해외봉사단 추천	4명	9명
○ 각종 학생 동아리 및 학과단위 자원봉사 참가 - 농촌봉사활동 및 각종 교육봉사 - 장애인·노인대상 자원봉사 및 제주지역 축제·행사 도우미 등	838명 (참여율 8.9%)	1,304명 (참여율 13.7%)
	약 2,000명 (참여율 21.1%)	약 2,800명 (참여율 29.3%)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 학생지원과·상담봉사센터 내부자료

4)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사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은 상호 의존성을 긴밀화·극대화하면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 공동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지역대학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支柱) 내지는 지식·정보의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입장에서는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를 통해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이라든가, 국내대학간 교육운영에 관한 교류협정 이외에도 제주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산업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표 3-2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교류협정체결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 자치단체인 제주도·제주시와의 관학협동, 도내 대학간 교류협정,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약 등 제주 지역 24개 기관·단체와 15건에 걸쳐 각종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3-21> 지역사회와 교류협력 체결 현황

(1999~2002. 4월 현재)

협정 기관·단체	협정체결일	협 정 내 용	주관 단위기관
제주도	2001.11.20	•(가칭)남북평화센터관련 업무제휴 협약체결	평화연구소
제주시	2001. 8.29	•관학협동 조인	RRC(아열대연구소)
	2002. 3.14	•시책홍보 협력 협약	언론출판센터
제주지역 6개 대학 교류협정(주관,제주대)	2001.11. 7	•학술·연구교류, 연계교육과정 운영, 학점교류 및 교육·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등	- 일반대학 1 - 교육대학 1 - 전문대학 3
제주관광대학	2001.8.24	•관광스포츠계열 연계교육 학술결연 협정	체육학과
도내 6개 대학 및 6개 연구관련 기관	1999.10. 1	•도내 10개 기관과 첨단과학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주지역협의회 조인 (제주교대, 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 축산진흥원, 국립수산물검사소)	공동실험실습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제주본부	1999. 1.18	•지역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공동협력 •학생현장 실습 및 취업 촉진 협력 등	공과대학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2000. 6.21	•학술자료 교환, 학생상호방문 및 강의, 농업 기술과 정보의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농업생명과학대학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999. 8.10	•연구인력 상호교류 시설물 사용 •공동해양조사·연구	해양과학대학 (BK21사업단)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	2000. 8.30	•연구과제 공동수행, 학술행사 공동개최 및 정보 교환, 연구시설 이용 및 학생 현장실습 협력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	2001. 1. 4	•상호 업무협약 및 관련 분야 지원	
한국전력제주지사	2000.12.21	•산학협동 교육 협정	공과대학
(주)지스텍	2001.12.27	•산학협동 연구 협약	
제주도관광협회	2001. 1. 5	•국제홍보잡지 "Peaceisland" 발간운영	평화연구소
아이엔티 텔레콤	2000.10.19	•산학일체 협약	첨단기술연구소
KT 제주사업단	2002.12.20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실시 •무선 네트워크 구축 등	전산정보원
24개 기관·단체	15건		

자료 : 제주대학교 「통계연보」(2002) 발취 정리

이러한 교류협정체결에 의한 협력 이외에도 제주대학교는 지방정부인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내·외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발전기금의 조성, 대학병원 인수 건립 등 대학의 현안과제를 해결해 왔다. <표 3-22>의 주요 협력사례와 같이,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주의료원 인계·인수를 통한 대학병원 건립,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한 국제교류회관 건립 추진, 재외 도민자녀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학교' 공동 운영 등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현안과제들을 상호 연대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학협동 연구비의 지원이라든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개강좌, 평생교육, 외국어강좌 등을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강좌 운영비의 일부(또는 전액)를 지원 받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다(표 3-17 참조). 이 같은 연대협력은 지역대학과 지방정부간·지역단체간 협력형 사업화 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표 3-22>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주요 사례

협력 사례	공동 협력 내용	성 과
1.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 (199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구성('9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외 인사 12명 참여(추대위원) ○ 대학발전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94.12); 지역인사 51인 위원 17개 단체 참여 - 서울지역('95. 2); 재서울 제주도민 60인 위원 참여 - 부산지역('95. 3); 재부산 제주도민 80인 위원 참여 - 지역별 기금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개최 ○ "대학발전후원의 집" 지정('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내 38개 업소 참여 - 이용실적 5%출연금 36백만원 ○ "제주대 사랑카드(농협BC카드)" 만들기(20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회원 3,429명(2002. 12월 기준) - 이용금액 12,854백만원('02.11말 기준) - 이용금액의 0.1~0.2% 발전기금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발전기금 조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건수 : 3,676건 - 출연금 : 229억1천2백만원 (2002.12.31. 현재) ○ 대학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유도

사업명	공동 협력 내용	성 과
2. 제주의료원 인수를 통한 대학병원 건립 (1999~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병원건립추진위원회 공동 구성('99. 2.) - 제주도 행정부지사(부위원장) 등 지역사회인사 위원 15인 및 고문 11인 참여 ○제주의료원 인수계획 정부 승인('99.12.) ○제주의료원 인수협약 체결('00.10.) ○제주도의회 의료원 매각 의결('00.12.) ○제주도와 제주의료원 매매계약 체결('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병원 개원(2001.11) - 병원 인력 고용승계 및 토지·건물·물품 등 인수 (인수금액 275억원) ○제주지역 의료여건 개선 기반(3차 진료기관) 마련
3. 제주국제자유도 시 추진과 연계한 「국제교류회관」 건립 추진 (200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와 건립계획 합의('01.12.) - 대학부지 무상임대에 의한 건립 - 국고 및 대학 70%, 제주도 30%부담 ○도내 6개 대학 공동이용 협약('01.12.) ○대학자체 건립재원 확보 - 2002지방대학 육성사업 신청('02. 8.) - 건립비 14억5천만원(국고) 확보 ○제주도 지원금 10억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국제적 역량기반 조성 ○지방정부와의 협력형 모델 사업화 제시 ○제주도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등에 기여
4. 재외도민 자녀 초청, 향토학교 공동 운영 (1998~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도민자녀 참여 : 355명('98~'02) ○프로그램 공동 진행(제주도 공무원교육원) - 제주도 전통문화 강의 및 실습선 이용 섬 순례 - 가정문화 체험(제주대 학생과 민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교민 자녀의 애향심 고 취와 제주전통문화 이해 ○국내외 도민과의 연대협력 기반 강화
5. 도민대상 공개 강좌 등 공동운영 (199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공개강좌(특수대학원) 등 7개 과정 ○ 제주시와 여성지도과정 등 3개 과정 ○ 기타 유관기관·단체와 평생교육강좌 2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민들의 교육기회 제 공 확대 및 정보·문화적 욕구 충족
6. 지방정부(제주도) 공동협력 합의체 결(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미래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 - 공동실무협력 위원회 및 도정자문교수단 구성 -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 제안 ○세계 섬 학술회의 공동 조직 및 학술지 공동 창간 ○재외도민 자녀 초청 하계 향토학교 공동 운영 ○제주도정 설명회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 한 대학과 지방정부간 공 동노력의 필요성 제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 한 학술적 역량 지원 등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 ('99~'02학년도) 및 내부자료 발췌 정리

특히, 1991년부터 시작된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발전기금조성에 지역사회의 협력과 제주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한 부산, 서울 등 지역별 대학발전 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지역 음식업소를 중심으로 '대학발전후원의 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대 사랑카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그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 협력의 결과, 발전기금 조성에 지역주민과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제주출신 재외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현재 총 모금액 229억원 상당액(물품 및 부동산 포함) 중 내부 구성원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재력인사나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조성된 실적은 총 출연건수의 70%(2,557건), 출연금액 기준 96%(2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 자구적 노력은 발전기금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시너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겠다.

<표 3-23> 대학발전기금 조성현황

(2002. 12월말 기준)

구 분	내부 참여 (교직원 등)	외부 참여(%)			합 계
		도 내	도외(국외 포함)	소계	
출연 건수	1,119(30.4)	2,335(63.5)	222(6.0)	2,557(69.5)	3,676(100)
금액(백만원)	919.8(4.1)	4,913.4(21.4)	17,078.9(74.5)	21,992.3(95.9)	22,912.1(100)

주1) '내부 참여'는 교직원 및 전직 교직원임.

주2) 금액은 현금(14,635만백원)외에 유가증권·부동산·물품 등을 포함한 출연금(약정)임.

자료 : 제주대학교 「연찬회 자료」('02학년도), 대외협력과 내부자료

제 4 장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도구 제작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사회조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질문지(Questionnaires)에 의한 조사방법을 택했다. 질문지는 앞에서 검토한 연구분석틀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 제작하였다. 문항은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하고 문항 수는 33개이다.

첫째, 포괄적인 질문으로서 지역대학의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묻는 문항 2개,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문항 3개,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대학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 발전과제와 방안 등을 묻는 문항 8개 등 12개 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척도는 자료수집 목적에 따라 명목(선다식)척도와 서열(평정식, 리커트 유형)척도를 혼용하였다.

둘째, 연구목적에 따른 본질적 질문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인식은 대학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교육과 연구기능 각 2개 문항, 사회봉사 기능 3개 문항 등 7개 문항으로 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또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4개 문항씩 8개 문항으로 하였다. 이 응답척도는 모두 서열척도(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별도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자유 기술토록 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배경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직종 등 5개 변인에 대한 각 집단을 구분(총 18개)하고, 제주대학교와 연관성 내지 인연적 경험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질문지의 구성 내용

구 분	문항 내용	문항 수	문항번호
I.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앞으로 역할기대와 발전과제 등	1. 대학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태도 - 제주대학교의 인지 정도 -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인식 정도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한 분야	5	1~5
	2. 대학기능에 대한 역할기대 수준 및 발전과제 - 역할 기대 정도와 대학발전 전제와 과제 - 대학기능의 강화 및 특성화 방안 등	7	6~12
II. 대학의 역할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식	1.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① 교육 기능 - 교육기회 제공 - 지역인재의 양성 ② 연구 기능 - 전문적 기술·정보의 축적과 제공 - 현안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의 제시 ③ 사회봉사 기능 - 각종 시설·프로그램 제공 - 교수의 자문 및 학생 봉사활동 - 지역사회와 연대 협력	7	1~7
	2. 지역사회 미치는 효과 인식 ① 경제적 측면 - 지역의 산업입지 촉진 및 고용 증가 - 교육비 감소와 소득 증대 - 투자·소비지출 증대와 지역경제 확대 - 지역인구의 정착 및 유입 ② 사회·문화적 측면 -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 제고 -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의 발전 - 교육 욕구(기회) 충족과 교육열 자극 - 인력수요 충족과 지역혁신 촉진 (대학역할에 대한 의견)	8	8~15
	(자유기술)		
III. 개인적 배경변인과 집단	① 성별 : 남, 여 ②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③ 거주지역 : 시·군 4개 지역 ④ 학력 : 고졸, 전문대학, 4년제 대학 ⑤ 직업·직종 : 공무원 등 5개 직종 구분 ⑥ 대학과 연관 내지 인연적 경험 여부	6	-
계		33문항	

주) 조사 질문지는 <부록 3> 참조

2.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질문지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간명의 공무원을 포함한 제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포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질문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다.

표집은 제주도의 4개 시·군별 인구분포¹¹⁹⁾를 감안하여 비례층화 표출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제주시 지역 320부, 북제주군 120부, 서귀포시 100부, 남제주군 지역 80부 등 도내 전역에 걸쳐 모두 620부를 배포하였다.¹²⁰⁾ 그 중 502부(81.0%)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52부(회수분의 10.4%)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켜 450부(배포수량의 72.6%, 회수된 부수의 89.6%)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했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내역은 <표 4-2>와 같다.

<표 4-2> 질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지역별	배포(구성비)	회수	분석 제외	최종 분석대상
합 계	620부 (100%)	502 (81.0%)	52 (10.4%)	450 (100%)
제 주 시	320부 (51.6%)	257 (80.3%)	24 (9.3%)	233 (51.8%)
서귀포시	100부 (16.1%)	84 (84.0%)	12 (14.3%)	72 (16.0%)
북제주군	120부 (19.4%)	87 (72.5%)	12 (13.8%)	75 (16.7%)
남제주군	80부 (12.9%)	74 (92.5%)	4 (5.4%)	70 (15.5%)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은 질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과 각 집단별

119) 표본의 크기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표본의 크기(95%의 신뢰도의 경우 384명 이상)를 감안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으로서, 2002년말 현재 제주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는 550,831명(남자 49.7%, 여자 50.3%)이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289,874명(52.6%), 서귀포시 84,601명(15.4%), 북제주군 100,540명(18.3%), 남제주군 75,816명(13.7%)이다(제주도 자치행정과, <http://www.provin.jeu.kr/ibbs/board.php>).

120) 질문지 조사시기는 2003년 3월 25~26일 이틀에 걸쳐 배부하고, 3월 29일까지 회수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이, 거주지역은 제주시가 51.8%, 기타 3개 시·군지역¹²¹⁾ 48.2%로 지역별 거주 인구 규모와 상당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집단 분포에서도 성별에 있어서 남자 51.1%, 여자 48.9%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8.4%, 30대 35.3%, 40대 35.6% 50대 이상 10.7%로 3·40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 관한 일반적 이해,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는 점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 4-3> 응답자 개인특성 변인별 응답사례

개인적 변인 및 집단		사례수(전체 450명)	비율(100%)	
거주지	제주시	233	51.8	
	기타지역 ^{주)}	217	48.2	
성	남	230	51.1	
	여	220	48.9	
연령	20대	83	18.4	
	30대	159	35.3	
	40대	160	35.6	
	50대이상	48	10.7	
학력	고졸이하	98	21.8	
	2년제대학	126	28.0	
	대졸이상	226	50.2	
직업	공무원(교사포함)	140	31.1	
	공·사기업체	67	14.9	
	농·어업 종사	40	8.9	
	서비스·자영업	110	24.4	
	기타(전업주부 등)	93	20.7	
대학과 관계(인연)	졸업 동문	147	절대인원 (32.7)	68.0
	학부모(과거 포함)	47	306명 (10.4)	
	대학 프로그램 참여 또는 시설이용	134	(중복22명) (29.8)	
	관계 없음	144	32.0	

주) '기타 지역'은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 남군·북군이며, 각 사례 수는 <표 4-2> 참조

121) 거주지역의 구분은 당초 설문지 배부 및 회수뿐만 아니라, 당초 분석과정에서 제주도내 4개 시·군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통계차이 검증에서는 제주시 지역과 그의 지역을 한 집단으로 묶어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사례인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상 소재지 여부, 소재지로서 제주시의 인구규모가 제주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리적 경계에 있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문화적 경계가 분명치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서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1.8%, 2년제 대학 졸업 28.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50.2%(그 중 졸업동문 65%)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직종별로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31.1%, 서비스·자영업 24.4%, 전업주부 등 기타 직종 20.7%, 공·사기업체 종사 14.9%, 농어업 종사 8.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개인적 연관 내지 인연적 경험 여부에서는 졸업동문 32.7%, 학부모 10.4%, 시설이용 경험이나 강좌수강 등 29.8% 등 응답자의 68%가 사례 대학과 연관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32.0%는 제주대학교와 학연 또는 인연적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이 기재된 질문지는 79부였다.

3. 자료 처리

질문지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우선, 각 문항별로 응답자 전체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답항이 서열척도(리커트 5점)인 경우는 각 문항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결과를 논의하였다.¹²²⁾ 이는 연구방법상 가설의 검증이나 변인간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대학의 역할에 관한 지역사회 인식 수준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설명¹²³⁾하는 서술(기술)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직종, 학력 등 6가지 배경변인에 따른 각 집단별 빈도를 산출하고 각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검증 확인하였다. 검증방법은 문항 특성과 배경변수에 따라 교차분석(chi-square

122) 질문지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평정식 서열척도의 경우, 5점 척도 중 '보통이다'라는 중간반응을 제외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등의 긍정적 응답에 대한 백분율의 합을 '긍정'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에 대한 백분율의 합을 '부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평균치는 5점을 만점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각 순위 점수(5,4,3,2,1)를 부여하여 산출하고, 3.0를 기준으로 3.0 이상은 긍정, 그 미만은 부정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평균값은 응답척도별 최종 누적 빈도(사례)에 의하지 않고, 응답자의 응답척도에 의하여 개인(450명)별 평균값을 구하고 합산하였다.

123) 기술(서술)적 연구는 관계를 설명하거나 가설 검증 또는 예측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김광웅, 앞의 책, p. 172).

test),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통계적 차이 검증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변인 집단을 확인¹²⁴⁾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자의 집단별 응답비율과 집단간 교차 집계표, 그리고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자유기술된 의견은 분야별로 정리하여 각각 부록(4, 5)으로 첨부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조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대학 기능에 의한 역할 인식과 그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향후 역할 기대와 요구로서 발전과제와 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정리는 먼저, 개괄적 차원에서 대학의 이해로서 인지·기여도 및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태도를 기술하고, 그 다음 대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역할과 지역사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대학에 대한 기대와 요구 및 발전과제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지역대학의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관한 제주도민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대학의 이해로서 제주대학교에 대한 인지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수준과 내용,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호 관련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124) 통계적 차이검증 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변인별 집단간에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변인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대학에 관한 정보와 인지 수준이 제주도민들간 보편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제주지역의 높은 학력 수준(응답자의 80% 정도가 대졸 이상임)과 지역언론 및 인터넷 확산 등 정보취득 기회·경로의 다양화와 용이성에 있다 하겠다.

1) 대학의 인지도

제주대학교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4>와 같이 긍정이 46.2%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중간 33.3%를 제외한 모른다는 응답도 20.5%로 나타나, 아직도 지역사회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홍보가 다소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배경변인에 따른 각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남녀간, 학력간에 $p < .001$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자(36.4%)보다는 남자(55.7%)가, 2년제 전문대학(27.0%)나 고졸(34.7%)보다는 4년제 대학졸업자(62.0%)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 4-4> 대학 인지도

질 문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 균
응 답	많이 안다	조금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빈도(%)	63 (14.0)	145 (32.2)	150 (33.3)	85 (18.9)	7 (1.6)	3.3822
남녀간 $\chi^2=25.559$ $p=.000$ 학력간 $\chi^2=56.305$ $p=.000$						

이러한 인식 수준(평균 3.3822)은, 대학과의 개인적 인연과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제주대학교와는 아무런 인연관계가 없다는 응답자가 32.0%인 반면, 졸업동문(32.7%), 학부모(10.4%), 시설이용이나 강좌 수강 경험 등(29.8%) 학연 또는 인연적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68.0%인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매 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¹²⁵⁾에서 ‘대강 알거나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가 3년 평균 60.0%('99년 60.6%, '00년 58.0%, '01년 61.5%),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고 지원했다.’가 3년 평균 39.4%(각 38.9%, 41.2%, 38.1%)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중간(‘보통이다’)으로 응답한 빈도를 감안하면 신입생들의 인식수준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5)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현재 상담봉사센터)는 매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999~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참조).

2) 지역사회 기여도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기여도를 총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여한 정도와 기여 또는 부족한 내용(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4-5-1>과 같이 긍정적 응답이 44.3%로 나타났으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다(평균 3.3222).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이 37.1%, 미약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20.0%가 가까이 나타난 점은 제주대학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실망감도 결코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변인집단간 통계적 검증 결과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연령층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보다 긍정적이었다.

<표 4-5-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질 문	설립된 지 50년이 된 제주대학교가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평 균
응 답	매우 크다.	크 다	보통이다	미약하다	전혀 없다	
빈도(%)	34 (7.6)	165 (36.7)	167 (37.1)	80 (17.8)	4 (0.9)	3.3222
연령간 $\chi^2=23.477$ $p=.024$						

여기에 대학의 어떠한 기능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지, 부족하다고 보는 기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4-5-2>와 같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교육기능(69.6%)이 압도적이었으며, 사회봉사 기능(19.3%), 연구기능(11.1%)순으로 나타났다. 기여한 바가 부족하다고 한 기능은 연구기능(46.2%), 사회봉사 기능(39.1%), 교육기능(14.7%)으로 기여한 분야와 역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관된 반응을 놓고 볼 때,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의 역할은 교육적 기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역사회는 연구기능이나 사회봉사 기능에 비하여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2>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야

질 문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제주대학교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와 기여한 바가 부족한 분야는 어느 것이라 생각합니까?					
응 답	기여한 분야			부족한 분야		
	교육기능	연구기능	사회봉사기능	교육기능	연구기능	사회봉사기능
빈도(%)	313 (69.6)	50 (11.1)	87 (19.3)	66 (14.7)	208 (46.2)	176 (39.1)
순 위	1	3	2	3	1	2

3)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인식

먼저, 지역사회와 대학간 관련성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의존적 순환관계이다'라는 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였다. <표 4-6>과 같이 긍정적 응답이 6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이 25.8%, 부정적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변인 집단간 통계적 차이 검증 결과는 $p < .05$ 유의수준에서 남녀간·학력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여자(55.0%)보다는 남자(66.9%)가, 학력에서 2년제 전문대학(51.6%)나 고졸(56.2%)보다는 4년제 대학졸업자(68.6%)가 더 긍정적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4-6>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 인식

질 문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라는 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답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 균
빈도(%)	86 (19.1)	189 (42.0)	116 (25.8)	52 (11.6)	7 (1.6)	3.6556
남녀간 $\chi^2=10.755$ $p=.029$			학력간 $\chi^2=16.541$ $p=.035$			

이와 같이 대학과 지역사회간 상호 의존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평균 3.6556)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검토한 대학과 지역사회는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 순환관계인 동시에, 대학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발전이고 대학이 발전 없이는 제주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에 제주도민들은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여기에, 향후

제주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대학역할에 거는 큰 기대감<표 4-12>이나,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대학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표 4-13>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인식결과와 일관되게 반응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그 배경과 의미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역할 인식

앞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로서 대학 인지도와 기여도, 대학과 지역사회간 관련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런 기본 인식 하에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분석 틀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 연구기능으로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 역할과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봉사 측면에서 문화·교육시설의 개방과 평생교육 제공, 봉사활동 참가,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유지 등 7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1) 교육 기능



대학의 교육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은 <표 4-7>과 같이 교육(대학진학) 기회의 제공과 지역의 인력양성·배출 두 가지로 질문하였다.

먼저,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기능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대학으로서 저렴한 교육비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응답이 6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간이 26.7%, 부정은 8.4%에 불과했다. 응답집단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거주지역간, $p < .01$ 유의수준에서 학력간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교육기회의 제공에 관한 실태자료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입학자원의 절대 감소로 인하여 진학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며, 여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진다.

한편, 인력양성·배출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다.’라는 응답에서는 교육기회의 제공과는 달리, 긍정이 28.9%, 부정이 20.5%인 반면, 중간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긍정이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제주대학교의 인재양성 기능이 기대만큼 지역사회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적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졸업학과와 취업분야와의 연계성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학과와 취업분야간 불일치로 학문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점이다. 또한 앞장의 실태분석에 확인된 바와 같이, 설치된 학문분야가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나 수요와는 다소 무관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점,¹²⁶⁾ 그리고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관련성 내지 적실성에 다소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학력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나, 오히려 공무원과 20대 연령층에서는 부정이 긍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이라는 교육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수준은 중간(3.0)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표 4-7> 교육기능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 균
①도내 국립대학으로서 저렴한 교육비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1(18.0)	211(46.9)	120(26.7)	24(5.3)	14(3.1)	3.7133
②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다.	6(1.3)	124(27.6)	228(50.7)	84(18.7)	8(1.8)	3.0800
합 계 (비율%)	450 (100)					3.3967

2) 연구 기능

126)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사립을 불문하고 거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담은 많은 학과들을 선단경영식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특색 있는 지역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교육을 하고 있다(김희복, “지방대학의 특성화”, 「대학교육」 제1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p. 66 ; 김종후, 앞의 논문, p. 109)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인식은 <표 4-8>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적 현안문제를 전문적·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역할 수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중간이 과반수에 가깝게 나타났고(48.2%), 긍정적 응답은 23.7%로 부정적 응답 28.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고졸과 서비스·자영업, 50대 이상은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으나, 대체로 제주도민들은 연구개발에 있어서 제주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앞의 <표 3-11>의 지역관련 연구실적에서 각종 보고서와 공연전시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주지역과 관련된 연구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36.7%)이 긍정적인 인식(16.7%)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 또한 중간(3.0)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연령층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의 정도가 높았다. 특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기능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인식은 학술연구용역 참여실적<표 3-12>에서 최근 3년 동안 80%에 가까운 교수들이 한 번(건)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해 주고있다.

<표 4-8> 연구기능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①전문적 지식과 기술·정보를 축적하고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2.4)	96(21.3)	217(48.2)	112(24.9)	14(3.1)	2.9511
②제주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8(1.8)	67(14.9)	210(46.7)	143(31.8)	22(4.9)	2.7689
합 계 (비율%)	450(100)					2.8600

이러한 결과는 연구용역과 같은 문제해결 노력의 성과가 의도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해결에 도

움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단서로 보아진다.

전체적으로 제주대학교의 연구기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지역대학이 축적한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감귤산업 위기와 같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 대안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편, 최근 산학협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협력 연구·기술개발 사업(RRC, TIC, 창업보육사업 등)에 대한 성과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산성 있는 연구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3) 사회봉사 기능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에 대한 인식은 <표 4-9>와 같이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 자원의 개방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였다.

먼저, '대학의 문화·교육시설의 개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중간이 42.9%로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32.9%)이 긍정적인 응답(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의 실태분석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각종 공개강좌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각종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각종 대학 시설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주도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내용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실성 있게 반영하지 못했거나, 시설·공간 등 대학자원의 이용과 개방에 있어서 수요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성별, 직업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와 50대 이상, 고졸, 서비스·자영업 종사자 등은 긍정적이었다.

둘째 '교수들의 사회봉사 활동' 정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이 22.5%로 중간 44.4%, 부정 33.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교수들의 사회봉사 활동 <표 3-19>에서와 같이, 3년 동안 40%에 가까운 교수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

으며, 연 1회 이상 참여교수가 4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수들의 사회봉사 참여는 개인적 접촉과 인연을 통해 상당부분 비공식적으로 참여해 왔다. 앞으로 교수의 전공분야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여러 시민단체나 자발적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언·자문 활동이 교수 개인적 참여와 함께 대학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체계적인 지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과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중간 응답(51.8%)이 높은 가운데, 긍정(26.7%)이 부정(21.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두 가지 실태와 달리, 제주지역 24개 기관·단체와 교류협약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 제주의료원을 인수하여 지역사회의 숙원이었던 대학병원 설립, 공개강좌 공동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특히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학력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4-9> 사회봉사기능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 균
①대학이 보유한 문화·교육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10(2.2)	99(22.0)	193(42.9)	135(30.0)	13(2.9)	2.9067
②교수들은 각 분야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2.7)	89(19.8)	200(44.4)	124(27.6)	25(5.6)	2.8644
③지방정부를 비롯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3(2.9)	107(23.8)	233(51.8)	91(20.2)	6(1.3)	3.0667
합 계 (비율%)	450 (100)					2.9459

결국, 사회봉사에 대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중간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문화·교육시설의 개방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수들의 사회봉사 활동’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연구기능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기능에 대하여도 대체

로 중간(3.0)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을 통한 대학역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교육적 역할에 긍정적인 반면, 연구와 사회봉사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통계적 평균을 놓고 볼 때, 사회봉사보다 연구기능에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대학의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육, 사회봉사, 연구기능 순으로 기여도가 크다는 반응과 일치하고 있다.

3.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인식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네 가지 질문으로 지역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경제적 효과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인식조사는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지역내 산업 촉진과 고용의 증대, ②저렴한 학비부담과 교육비 역외유출 억제에 의한 소득증대, ③소비지출 증대와 지역경제 확대, ④인구유입 및 정착 효과 등 네 가지로 질문하였다.

먼저, 지역내 산업 촉진과 고용증대 효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촉진시키고, 지역내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에 대하여 중간이 38.7%이며, 부정적 응답(33.1%)이 긍정적 응답(28.2%)보다 높다. 응답자 중 고졸학력과 직업상 공사기업체와 농어업 및 서비스·자영업 종사자는 다소 긍정적이거나, 대체로 제주도민들은 제주대학교의 인력양성으로 인한 지역산업 촉진과 고용증대라는 효과에 대하여 중간 이하 수준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직업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부정적이었다.

둘째, '저렴한 학비부담과 교육비의 역외유출 억제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에 대하여는 중간이 32.7%, 부정이 26.0%인 반면, 긍정적 응답이 41.3%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대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립으로 인한 학비부담 감소는 물론 교육비의 도외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에 제주도민들은 대체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에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제주대학교의 총소득창출효과를 연간 4,578억원으로 추정한 조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여기에 집단간 통계적 차이 검증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연령층별, $p < .05$ 유의수준에서 거주지역간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부정적인 반면, 30대 이후 연령이 많을 수록 긍정적이며, 제주시 거주자가 기타 지역보다 보다 긍정적이었다.

셋째, '소비지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확대' 효과에서 있어서는 긍정이 25.4%인 반면, 부정 27.8%, 중간 46.9%로 나타나, 소득증대 효과와는 달리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4·50대와 제주시 거주자는 긍정적이었다.

<표 4-10>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 균
①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촉진시키고, 지역내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15(3.3)	112(24.9)	174(38.7)	128(28.4)	21(4.7)	2.9378
②저렴한 학비부담과 교육비의 도외 유출을 억제하여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33(7.3)	153(34.0)	147(32.7)	91(20.2)	26(5.8)	3.1689
③대학의 운영상 지출과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들의 소비지출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17(3.8)	97(21.6)	211(46.9)	112(24.9)	13(2.9)	2.9844
④제주지역의 인구정착 효과와 육지부 학생의 대학진학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17(3.8)	104(23.1)	181(40.2)	121(26.9)	27(6.0)	2.9178
합 계 (비율%)	450 (100)					3.0022

넷째, '인구 정착 및 유입' 효과에 있어서는 부정적 응답(32.9%)이 긍정적 응답(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지역산업 촉진 및 고용증가 효과'나 '소비 지출에 의한 지역경제 확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적이었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거주지역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제주시 지역 거주자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도내 4개 시·군 중 제주시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설립은 지역의 인구 유입 또는 집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수준은 긍정 내지 중간(평균 3.0022)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효과 중 학비부담 감소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중간수준(평균점 3.0)이하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 부정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확대 효과, 지역내 산업 촉진과 고용의 증대 효과, 인구유입 효과 순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재양성으로 파급되는 효과, 즉 인구의 유입과 정착, 지역산업 촉진과 고용의 증가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앞에서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긍정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과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사회·문화적 효과

대학의 역할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 4-11>과 같이 ①대학의 존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이미지 제고, ②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 ③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 충족과 교육열 자극, ④인력수요의 충족과 지역혁신 효과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 효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를 높여 주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간이 42.0%로 높으나, 긍정이 34.9%로 부정 23.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제주도민들은 제주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를 어느 정도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이 46.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정적 인식(30.5%)이 긍정적 인식(23.3%)보다 높다. 응답 정도에 따라 표시된 평균점 또한 중간(3.0)에 다소 미치지 못해 부정적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 충족과 교육열 자극'이라는 효과에서는 중간이 43.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28.3%)과 부정(28.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응답자 중 남자, 고졸 학력과 50대 연령, 공사기업체·농업·서비스·자영업 종사자 등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점(2.9978)을 감안할 때 중립적이나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력수요의 충족과 지역혁신'이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중간이 43.3%로 높게 응답한 가운데, 부정(35.3%)이 긍정(2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효과를 묻는 네 가지 질문 중 부정의 정도가 가장 크다.

<표 4-11>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①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이미지를 높여 주고 있다.	28(6.2)	129(28.7)	189(42.0)	92(20.4)	12(2.7)	3.1533
②지역문화·정보센터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13(2.9)	92(20.4)	208(46.2)	124(27.6)	13(2.9)	2.9289
③제주도민들에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교육열을 자극하여 주고 있다.	12(2.7)	115(25.5)	195(43.3)	116(25.8)	12(2.7)	2.9978
④제주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9(2.0)	87(19.3)	195(43.3)	128(28.4)	31(6.9)	2.8111
합 계 (비율%)	450 (100)					2.9728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파급되는 네 가지 효과 중, 주민들의 자부심과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결국, 제주지역 주민들은 제주대학교에 의한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중간(평균 2.9728) 이하로, 경제적 측면보다 다소 부정적이다. 사회문화적 효과에 있어서는 각 개인적 변인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인식에서 주목할 결과는 인재양성의 결과로 파급되는 효과, 즉 지역내 고용 증가나 지역산업 촉진, 인구유입 및 정착이라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 수요의 충족이나 지역혁신이라

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좁게는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개편, 넓게는 학과의 과감한 통폐합·조정 등의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이자 현실적 과제를 던져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에 거는 기대와 발전 과제 및 방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알아보았다.

1) 역할 기대

먼저,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 대학의 역할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역할이 보다 확대된다는 의견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와 같다' 19.6%, '현재보다 축소'되거나 '아주 축소'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표 4-12> 지역대학에 대한 역할 기대

질 문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사회 미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대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응 답	크게 확대	조금 확대	현재와 같다	보다 축소	아주 축소	평 균
빈도(%)	146 (32.4)	201 (44.7)	88 (19.6)	14 (3.1)	1 (0.2)	4.0689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연구나 사회봉사 기능과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주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대학 역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에 있어서 대학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임을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대학발전의 전제조건과 중점 과제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속에, 앞으로 지역대학 발전의 전제 요건은 무엇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수행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는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표 4-13>과 같이 '대학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자 지역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등 3개 항목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역대학이므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산업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립대학이므로 국가(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투자 확대'(37.3%),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자구적 혁신 노력이 강화'(2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속의 대학' 내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제주도민의 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표 4-13> 대학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질 문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 답	국립대학이므로 국가(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투자 확대	지역대학이므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산업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자구적 혁신노력 강화	기 타
빈도(%)	168 (37.3)	181 (40.2)	100 (22.2)	1 (0.2)
성별 p=.000 $\chi^2=33.392$				

배경변인 집단간 통계적 차이검증 결과는 남녀간 p<.001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42.6%), 대학의 자구노력

(30.9%), 국가의 정책적 지원(26.1%)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49.1%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37.7%), 대학의 자구노력(13.2%)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분포를 놓고 볼 때,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못지 않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구성원들의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기대와 전제조건 속에서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표 4-14>와 같이 교육적 기능인 '제주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육성·배출'이라는 응답(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봉사 기능인 '제주사회 기관·단체·산업체 등과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 모색'(26.2%), 연구기능인 '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발전 방향 제시'(20.4%)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표 4-14> 대학의 중점과제

질 문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 답	제주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육성·배출	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발전 방향 제시	제주지역기관·단체·산업체 등과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주민·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기 타
빈도(%)	204 (45.3)	92 (20.4)	118 (26.2)	35 (7.8)	1 (0.2)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대학의 여러 가지 역할에 중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역적 수요를 충족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제적·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결과 중 인재양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도¹²⁷⁾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역

127)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는 2001년 10월 대구·경북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교수 3,400명

할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배출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주민이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지역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지역 인력수요 충족과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기능을 공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대학기능의 강화·확충·확대 방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확충·강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첫째, 대학의 1차적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양성, 즉 제주대학교가 교육기능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적 활동과 관련된 다섯 가지를 응답항목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는 <표 4-15>와 같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우수 교수의 확보와 교육방법의 개선'(25.8%), '제주지역의 우수 학생 유치'(18.0%), '다양한 전공분야(학과)의 개설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17.3%), '장학금 지원확대 등 교육여건의 확충'(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관련된 반응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은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학진학 기회의 제공보다는, 졸업 후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취업 및 진로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이제 대학은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교육은 제주지역 실정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뒤떨어진 교과 과정을 혁신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내용을 찾아내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¹²⁸⁾ 또한 국내외 저명 학자 등과 같

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대구대학교, 「새 길포럼」 발표자료, 2001.12)

128)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문제는 지역관련 교과목(또는 설치 학과나 전공)이 얼마나 개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교육방법 측면에서 보편적 학문이론을 지역의 현실적 문제와 어느 정도 연계하여 설명되고 전수되고 있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은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여 시시각각으로 진전하는 선진 학문을 전수하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15> 교육기능 확충 방안

질 문	지역인재의 육성 등과 같은 제주대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 답	제주지역의 우수 학생 유치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교수의 확보와 교육방법의 개선	보다 다양한 전공분야(학과)의 개설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의 확충
빈도(%)	81 (18.0)	155 (34.4)	116 (25.8)	78 (17.3)	20 (4.4)

둘째,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4-16>과 같이 학술연구 활동과 연구여건 개선에 관련된 네 가지를 응답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지역특화 및 지역과제 연구 활성화'에 가장 높은 45.3%의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 '국내외 저명 학자 등 우수 교수 유치'(21.6%),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학술교류 확대'(21.3%), '연구비 확충 및 연구환경 조성'(11.6%)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결과가 이론에 치우친 학문의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성 있는 연구성과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역산업체의 요구와 지역의 현안 문제 내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각 변인 집단간 통계적 검증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직업·직종

전자(前者)의 측면에서 제주대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의해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지역사회의 요구와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분야의 교과목을 확대 편성한다."라고 교과편성의 기본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양관심과목 중 제7영역을 '지역사회와 대학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여 '바다와 해양', '국제자유도시와 마케팅전략', '제주도의 해양로봇', '감귤산업의 이해', '제주관광의 이해', '제주사회의 이해',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론' 등 9개 교과목(각 2학점)을 개설하고 있다. 학과별 전공과목으로도 지역사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제주대학교 「2002교과과정」).

한편, 200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에 의해 개설되는 교과목 수는 교양 198개, 교직 68개, 전공과목 3,183개 등 총 3,449개 과목이며, 그 중 지역사회 관련 교과목 수는 교양 15개, 교직 2개, 전공 25개 등 약 42개(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직업현장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대학의 전문적 기술과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표 4-16> 연구기능 강화 방안

질 문	전문적 기술·정보의 축적과 제공 등과 같은 제주대학교의 연구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 답	국내외 저명학자 등 우수 교수의 유치확보	지역특화 및 지역 과제 연구 활성화	연구비 확충 및 연구환경 조성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학술교류 확대	기 타
빈도(%)	97 (21.6)	204 (45.3)	52 (11.6)	96 (21.3)	1 (0.2)
직업직종간 $p=.004$ $\chi^2=34.652$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의 확대방안에 있어서는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활동 유형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수와 학생들의 자원적 봉사활동, 행사와 시설의 개방,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등 네 가지를 응답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산업체·주민단체 등과 연계 교류협력'(29.1%), '교수들의 자문과 조언활동 및 학생들의 자원적 봉사활동 확대'(12.9%), '문화 및 시설공간의 개방'(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사회봉사기능 확대 방안

질 문	지역사회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사회봉사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 답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교수들의 자문과 조언 활동 및 학생들의 자원적 봉사활동 확대	문화행사 및 시설 공간의 개방	자치단체·산업체·주민단체 등과 연계 교류협력	기 타
빈도(%)	204 (45.3)	58 (12.9)	55 (12.2)	131 (29.1)	2 (0.4)
성별 $p=.005$ $\chi^2=14.964$ 연령간 $p=.001$ $\chi^2=32.226$ 직업직종간 $p=.017$ $\chi^2=30.215$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개인의 문화적 욕구 내지 생애에 걸친 교육적 욕구

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응답항목 가운데 개인적 혜택과 관련된 답항이 문화행사 및 시설공간의 개방을 포함하여 두 가지인 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서 응답집단간 통계적 차이검증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성별 남녀간, 연령간, 직업·직종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4) 대학 특성화 방안

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대학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의 하나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집중 육성 분야를 질문하였다. 특성화 분야는 현재 제주대학교가 지정¹²⁹⁾하고 있는 분야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 답항을 제시하고, 그 중 두 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18>과 같이 '관광산업'분야와 '국제전문인력 양성'분야를 선택한 경우가 27.8%로 가장 높았다. 2순위는 '관광산업'분야와 '청정환경 및 생명과학'분야(19.8%), 3순위는 '국제전문인력 양성'분야와 '청정환경 및 생명과학'분야(14.4%)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각 응답항목별 누적 응답빈도(비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광산업 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는 응답(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외국어교육 등 국제전문인력 양성 분야(27.3%), 농·수해양에 기반한 청정환경 및 생명과학 분야(22.7%), 정보·통신기술 분야(13.2%),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분야(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대학 특성화 분야

129) 제주대학교는 집중과 선택에 의한 대학 특성화 분야를 ①관광산업 분야, ②해양과학 분야, ③아열대농업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문적 차별화 내지 개성화를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특성화 육성 기반분야로, 특성화 분야와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청정·대체에너지, 어학 및 회의산업, 정보통신 등의 분야를 중점화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2001~2010)」, pp. 109~114).

질 문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대학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면, 제주대학교는 어떤 분야(학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전 체 (%)
답 항	②정보통신 기술 분야	③제주 전통 문화 분야	④농·수해양에 기반한 정정환경 및 생명 과학분야	⑤외국어교육 등 국제전문인력 양성 분야	
①관광산업 분야	42 (9.3)	14 (3.1)	89 (19.8)	125 (27.8)	270 (60.0)
②정보·통신기술 분야		9 (2.0)	26 (5.8)	42 (9.3)	77 (17.1)
③제주 전통문화 분야			24 (5.3)	14 (3.1)	38 (8.4)
④농·수해양에 기반한 정정환경·생명과학 분야				65 (14.4)	65 (14.4)
전 체(%)	42 (9.3)	23 (5.1)	139 (30.9)	246 (54.7)	450 (100)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제주도민들은 제주지역이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지라는 입지적 특성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제주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선정단위와 분야 및 그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3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과제

1. 조사 결과 시사점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도민들은 지역사회와 대학간 상호 관련성을 충분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례대학인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인지도와 기여도 면에서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또 앞으로 대학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속에 지역사회는 물론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본래적 기능에 관한 역할 인식은 교육기능에 대해

서는 긍정적이거나, 연구기능과 사회봉사 기능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정적이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측면에는 중립에 가까운 긍정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는 교육적 역할, 즉 지역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일관된 요구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과 사회의 상호 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지역대학에 대한 큰 기대감, 그리고 사회의 지지와 상호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제주대학교가 설립한 이래 지역사회 기여한 분야가 교육적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 역할에 욕구불만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과급 효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인재양성·배출로 과급되는 지역인력 수요 충족, 고용증가, 인구정착이나 유입 측면에 유독 부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대학 역할의 확충을 위한 역점과제에 있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그 방안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내용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특성화 육성분야 또한 교육기능(인재양성)과 관련된 분야를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이 지역대학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제주도민들은 졸업 후 취업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용성 내지 실용성 그리고 지역 밀착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의 과정으로서의 분과학문이 제주지역 산업구조나 지역적 수요와는 큰 관련성 없이 많은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감한 교육편제 내지 교육과정의 조정·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³⁰⁾ 따라

130)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화두가 된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 제주지역 발전에 제주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대표대학'으로서 자존에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않으면서 제주대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양적 팽창에 따른 교육편제를 축소 정비하고, 특성화를 통해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특단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한라일보, "제주대, 변해야 산다", 2003.3.1 ; "사실, 제주대학교 변해야 한다", 2003.3.3, www.hallailbo.co.kr).

서, 이러한 경험적 인식조사 결과는 앞으로 대학의 운영 또는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데, 기초적 단서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2.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대학의 과제

위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착안하여, 대학 운영상 내지는 대학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그에 수반하는 과급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제주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편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편제 내지 과정은 국가 정책적 의지와 필요를 고려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경제 산업적 구조 그리고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조화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교과과정(과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단위로서의 학과(전공 또는 학부) 이상의 대학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편제는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졸업 후 진로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호 연속적인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교과과정-학과(학부)-단과대학 편제의 관계는 컴퓨터 용어인 파일(file)-폴더(folder)-드라이브(drive) 관계와 비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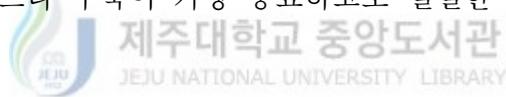
따라서,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설치·운영되는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와 구조를 교육적 수요와 지역적 비교우위 내지 경쟁력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조정·개편¹³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라 보아진

131)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는 국가 정책적으로나 개별 대학 자체적으로 이미 무성하게 진행되어 왔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31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 백화점식 학과(전공) 구조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대학 자체의 학생정원 조정이나 학부제, 학과군 등과 같은 모집단위의 통폐합 광역화 조치에서부터 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유사학과 통합이나 교환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학과(전공) 통폐합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교육

다.¹³²⁾ 동시에, 교육내용은 지역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등과 같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다루고, 지역적 수요와 직접 관련되는 교과목을 보다 확대 개발해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 학과(전공단위)별 지역사회와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필수적으로 개발하고 필수교과로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수기법에 있어서도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보편성과 현실로서의 지역적 상황 및 특수성을 연계하여 전개함으로써 교육의 유효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수요와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인력 배출이 가능해지고, 특히 취업 기반이 약한 제주지역에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학 내부과제의 해결과 함께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취업 기회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제주지역의 자치단체, 산업체 등 각종 도민대표가 참여하는 범도(凡道)적인 지역 인재양성 추진기구를 대학 주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으로 표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동시에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의 인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 연구역량의 통합·집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에서 연구개발의 중심적 역할과 지역문제의 해결이라는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제주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연구활동이 이론에 치우친 학문의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성 있는 연구성과를 지역사회는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

적 수요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상대적으로 기초 학문의 도태나 지역간 교육기회의 다양성 제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32)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소재 대학진학 선호, 입학자원 감소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요인으로 이미 공급(대학 지원자수)이 수요(대학입학자원)를 초과하는 소위 대학정원 역전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입학자원의 부족현상은 2003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요기반이 취약한 학과를 그대로 둔 채, 기발?한 홍보기법만을 발굴·동원하는 방식으로 모집인원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 말해서 지역산업체의 요구와 지역의 현안 문제 또는 이슈(issue)를 중심으로 축적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정책적 해결방향과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구결과의 지역밀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안문제를 보편적 학문이론에 적용하는 활동을 체계화하여 문제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산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지역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은, 교수 개인별 관심분야에 대한 학술적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가공하여 체계화해 나가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보다 생산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과 학문 또는 학제간 관련 다수 교수들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교수들이 지역문제에 관여하게 되고, 나아가 개별적 역량과 학내 연구(소) 기능을 통합·결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문제진단과 해결에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생산성 있는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연구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지방정부·지역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지역 중심대학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유용한 정보를 축적·검증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가공하거나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이른바 ‘지역문제 분석센터’, 내지 지역사회의 ‘자료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연구역량의 체계적 통합은 절실한 과제이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와 교류협력 확대·강화

제주도민들은 지역대학 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류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개별적 욕구 차원에서 제주도민들에게는 평생교육 제공을, 지역적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산업체·NGO 등

과 같은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교류협력 연계체제의 구축과 상호작용을 더 한층 촉진해 나가야 하겠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¹³³⁾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적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확대 개발하면서도,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¹³⁴⁾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와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그 제공은 각 분야별 분산적이고 일회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다양화해 나가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절차에 따라 개설되고 있는지를 지역주민들은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상황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생애에 걸쳐 장기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지적센터의 장(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겠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적 수요와 기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 부설기관체제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대학편제상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합·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직장, 가정, 학교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 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지역대학에 대한 큰 기대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상호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은 상호 의존성을 긴밀화하

133) 특히, 다음사회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 즉 젊은 인구의 급감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어느 선진국이든 예외 없이 이미 교육을 받은 성인들에 대한 계속교육 산업이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드러키는 역설하였다(Peter F. Drucker, 앞의 책).

134)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문화복지 증진 및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종 문화·정보·교양·취미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휴식·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역실정에 따라 '문화의 집', '동민의 집', '문화센터', '나눔의 집' 등으로 이름을 붙여 2003년 현재 제주시의 19개동, 서귀포시의 12개동, 북제주·남제주군의 3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각 시·군 홈페이지).

면서 모두에 공동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대학존립의 큰 기반으로 재인식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을 지식과 정보 기술의 창고로서 지역대학을 활용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계활동이나 교류협력은 대부분 대학전체 차원의 공식적인 협약에 의하기도 하지만, 개별적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상호 연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그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1학과(전공) 2협정' 방안을 제안한다. 그것은 각 학과(전공 또는 학부)별로 학문분야와 관련되는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나는 현장실습이나 교육서비스를 위한 교육분야, 또 하나는 연구개발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분야이거나 학과(전공)별로 축적되고 체계화된 정보나 기술을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서비스 분야일 것이다. 교류협력의 내용은 각 학문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분야이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제주대학교의 경우 설치된 분과학문 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120건 이상의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게 될 것이다. 또한 협정 내지 협약된 사항은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역대학에 가장 큰 지원세력의 한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는 지역대학과의 교류와 연대협력의 창구역할을 총괄하고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4)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

대학의 특성화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동시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 전략이기도하다.¹³⁵⁾ 특정분야의 선택과

135)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그 다양성과 특성화를 인정하면서도 실체는 획일적인 양적 팽창만을 추구해 왔다. 기능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지역적 여건과 규모를 고려한 독특한 교육중심대학,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무중심대학도 존재함에도, 한국의 대학들은 지난 50여년 동안 대학발전 모델을 양적 팽창에 두고 획일적으로 대규모화해 왔다. 실무교육을 담당하면서 알차게 성장해 오던 일부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들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뺀 일반대학으로의 승격을 요구하여 왔으며, 소규모 학생정원을 유지하여 발전해 오던 단과대학들이 일률적으로 종합대학으로

집중 육성을 통한 대학 특성화는 지역사회의 산업과 밀착된 관련분야를 선정하여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대학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¹³⁶⁾ 따라서 분야의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본격적으로 차별적인 집중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게 될 제주지역에서 대학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량을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 특성화는 가장 중요한 발전전략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성화 분야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분야인 관광산업과 국제 전문인력양성 분야를 지정·육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특성화 분야는 교육과 연구기능으로 이원화하여 지정·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교육 특성화 분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와 외국어 등 국제전문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고, 또 연구분야 특성화로는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되는 분야로서 청정환경에 기반한 생물산업 관련분야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이다.

5) 대학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강화

인식조사에서 교육기능을 제외한, 연구와 사회봉사 기능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사회봉사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캠퍼스를 포함한 각종 시설과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홍보가 부족함에도 있다 하겠다. 대학 인지도에 긍정응답이 과반수에 미치지

로의 확대 개편을 요구하고, 모든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총장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학원을 설립하며, 학문적으로 자생적 독립이 불가능한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는 노력 등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을 경쟁력 없는 낡은 대학으로 몰아가고 있다(이칭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촌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역개발연구」 제10권, 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 2002, pp. 184~185).

136) 특성화는 생산성이 낮은 투입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중요한 부문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의 80/20법칙이나 파레토의 원리와 같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못하고, 부정적 인식도 20%를 넘는 조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대학 이미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대학의 운영상 성과와 역할을 산발적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홍보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의 제작·배포하는 형식의 일방적 기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남과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략적 홍보로서 이벤트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강좌가 무엇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개인적 필요와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홍보체계와 기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식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대학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대학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학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이제 지역대학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는 입학자원의 유치뿐 만 아니라, 대학 운영상 투명성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신인도를 높이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대중적 지지 확보하는 이차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쨌든 지역사회 입장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각종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학의 운영상 활동과 성과 내지 산출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일에 대학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본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지방화 시대의 진전 속에 삶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인 동시에 지역혁신체제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략적으로도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역대학 육성을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면서 인재양성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상호 의존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를 연구사례로 삼아,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경험적 역할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제주도민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수집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선형적인 인식태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앞으로 대학 역할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에 관한 각종 자료와 연구문헌을 통해 연구분석의 틀(그림 5)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첫째 연구 사례인 제주대학교의 일반적 대학규모와 역할 실태를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별로 나누어 각 하위기능에 관련된 각종 실태와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제시했다. 둘째, 대학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제주 지역사회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대학에 거는 기대와 요구 및 발전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사례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에 의한 지역적 역할 실태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

제주대학교는 양적 규모 면에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대학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도내 소재한 6개 대학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위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인지도와 기여도 면에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대체로 긍정적(평균 3.3)이었다.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대학기능은 약 70%가 교육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여한 바가 부족한 기능은 연구기능(46.2%)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 관련성에서 제주도민들은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의존적인 불가분 관계로 인식(긍정 61.1%, 평균 3.6556)하고 있었다.

2)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인식

첫째, 교육기능 측면에서 제주대학교는 대부분의 학문분야에 걸쳐 66개의 분과학과과정을 설치하여, 교육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제주도내 대학진학 희망자의 35~42%(인문계 고교생의 50% 이상)를 수용하는 규모이다. 2002년 9월 현재 4만명에 가까운 인재를 배출하였다. 최근 3년간 전체 취업자의 80.0% 이상이 제주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제공과 인력양성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나 수요와는 무관하게 다 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역할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대학교육(진학)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의 정도가 미미했다.

둘째, 연구기능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교수들의 전체 연구실적 중 제주지역과 관련된 연구실적은 논문 16.0%, 연구보고서 57.1%, 공연·전시 67.1% 등이었다. 지역관련 연구용역 수주는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교수는 23.2%에 불과했으며, 매년 1회 이상인 교수는 8.9%로 용역수주가 특정분야의 교수에 편중되고 있었다. 한편 지역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은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

며, 특히 산학협동 차원에서 국가지정에 의한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유치하여 감귤산업을 비롯한 아열대 원예산업, 생물산업,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 현장의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생산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대학의 역할 인식을 묻는 7개의 측정지표(질문) 중 가장 높았다.

셋째, 사회봉사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20여개의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간 2천명 정도가 수강하고, 경연·전시·공연 등 매년 약 50개의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며, 캠퍼스 공간과 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개방하고 있었다.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봉사 참여는 전체 교수의 37% 정도가 매년 1회 이상 참여하는 한편, 재학생들도 사회봉사 학점 이수 등 매년 2천명 이상이 자원적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위하여 도내 24개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발전기금조성을 비롯한 제주의료원 인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한 국제교류회관 건립 추진, 공개강좌 등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추진함으로써 협력형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연대협력에 긍정적인 반면, 나머지 평생교육, 시설 개발, 교수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는 부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연구기능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기능은 부정적이었다.

대학의 역할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적 역할에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평균 3.3967)하는 반면, 연구개발의 중심적 역할과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학술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평균 2.8600)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 등을 포함하는 사회봉사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기능보다는 부정의 정도는 약하나, 부정적(평균 2.9459)이다. <표 4-19>와 같이 대학의 역할에 대한 7개 측정지표 중, 교육기회의 제공·인재양성, 지역사회와의 유대협력 등 3개 역할에 대해서만 긍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인식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연구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표 4-19> 대학역할에 대한 인식(종합)

측정 지표	빈도(%)			통계치		해 석
	긍정	중간	부정	순위	평균값	
1. 교육 기능	(46.9)	(38.7)	(14.4)	(1)	3.3967	(긍정적)
① 교육기회 제공	64.9	26.7	8.4	①	3.7133	긍정적
② 인재 양성	28.9	50.7	20.5	②	3.0800	긍정적
2. 연구 기능	(20.2)	(47.4)	(32.4)	(3)	2.8600	(부정적)
① 지역 연구개발 중심역할	23.7	48.2	28.0	④	2.9511	부정적
②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	16.7	46.7	36.7	⑦	2.7689	부정적
3. 사회봉사 기능	(24.5)	(46.3)	(29.2)	(2)	2.9459	(부정적)
① 대학자원 개방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24.2	42.9	32.9	⑤	2.9067	부정적
② 사회봉사 활동 참여	22.5	44.4	33.2	⑥	2.8644	부정적
③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유대협력	26.7	51.8	21.5	③	3.0667	긍정적
전체 (종합)	(29.7)	(44.5)	(25.8)		3.0502	긍정적(중립)

3)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인식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에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통계적 평균은 중간 수준(3.0022)에 가까운 약한 긍정이었다. 네 가지 측정지표 가운데, 저렴한 학비 부담과 교육비의 역외유출 억제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 내 산업촉진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확대, 인구의 유입이나 정착 효과 등 세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사회문화적 효과에 인식은 통계적 평균은 중간에 조금 미치지 못하나 (2.9728),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네 가지 측정지표 중, 지역의 국립대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만 긍정적인 반면, 지역문화 발전, 지역사회의 교육열 자극, 지역의 인력수요 충족 등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0>과 같이 8개 측정지표(질문) 가운데, 경제적 측면의 소득증대 효과와 사회 문화적 측면의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고, 나

머지 여섯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부정적이었다. 특히, 인재양성의 결과로 파급되는 효과, 즉 지역사회의 인력수요 충족, 지역 내 고용 증가, 인구정착·유입 등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

<표 4-20>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인식(종합)

조사 내용	빈도(%)			통계치		해 석
	긍정	중간	부정	순위	평균값	
1. 경제적 효과	(30.5)	(39.6)	(29.9)	(1)	3.0022	(긍정적)
① 지역산업 촉진과 지역 고용의 증가	28.2	38.7	33.1	⑤	2.9378	부정적
② 소득증대 효과	41.3	32.7	26.0	①	3.1689	긍정적
③ 지역경제 확대 효과	25.4	46.9	27.8	④	2.9844	부정적
④ 지역 인구정착 및 유입 효과	26.9	40.2	32.9	⑦	2.9178	부정적
2. 사회문화적 효과	(26.9)	(43.7)	(29.4)	(2)	2.9728	(부정적)
① 지역 자부심과 이미지 제고	34.9	42.0	23.1	②	3.1533	긍정적
②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	23.3	46.2	30.5	⑥	2.9289	부정적
③ 교육적 욕구 충족과 교육열 자극	28.3	43.3	28.5	③	2.9978	부정적
④ 지역인력 수요 충족과 지역혁신 촉진	21.3	43.3	35.3	⑧	2.8111	부정적
전체 (종합)	(28.7)	(41.7)	(29.6)		2.9875	부정적



4)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

이러한 인식 속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앞으로 전개되는 제주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대학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이나 대학의 자구노력보다도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서 대학의 중요한 과제는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이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구체적 방안이 있어서는 교육적 기능 확충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해야 하며,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화 및 지역과제 연구 활성화, 사회봉사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 경쟁력과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특성화 분야(2개 분야)는 관광

산업 분야와 국제전문인력 양성분야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적 편제를 국립대학으로서 국가 정책적 의지와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제주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경제·산업적 구조, 그리고 입학자원의 지역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재구조화해야 한다. 특히, 인식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일관되게 반응한 중요한 사실은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문제 큰 관심을 두고, 대학편제로서 교육과정이 지역사회 수요와는 상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용성과 지역적 밀착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편제 내지 과정의 조정·개편과 교육내용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둘째,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축적된 개별적 연구역량을 통합·집중하여 지역 문제의 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참여해야 하겠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방식은 학문분야별 다양한 전문성을 결집하여 관련 교수가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제고해야 하겠다.

셋째, 개별적 욕구 차원에서 제주도민들에게는 평생교육 확대를,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와 긴밀한 연계체제의 구축과 그 상호작용을 더 한층 촉진해 나가야 하겠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적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다 다양하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제공은 각 분야별 분산적·일회적 보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 육성을 통한 대학 특성화는 그 분야의 선정에 그치지 않고, 차별적인 집중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특성화 분야는 교육과 연구분야로 이원화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대로 관광산업과 국제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교육특성화로,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관련분야를 연구특성화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대학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

으로 전개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대학 이미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학활동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이고 산발적인 전달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남과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쌍방향 홍보기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는 입학자원의 유치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상 투명성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학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보하는 2차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방향을 밝혀두고자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간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위를 제주도로, 중심 분석단위는 제주대학교로 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자료접근의 용이성, 제주지역에서 제주대학교의 역사나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제주지역과 한 개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역할에 관한 내용적 범위와 성격의 불분명, 경험적 사례의 다양함과 방대함으로 자료의 수집·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례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단적이기 못하고, 2003년 3월 일회적인 질문조사 결과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련성 및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본다. 시대적 상황으로서 지역대학의 위기와 그 처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기대와 요구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자료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제적 관광·휴양 및 첨단 지식산업도시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시도된 바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시의성(時宜性)은 충분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된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대학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 실태와 사례를 동일한 지표로 측정·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간 차이와 그 원인관계를 탐색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대학 육성에 관한 당위론적인 입장 내지 획일적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현실적인 방향과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강무섭 外(1985), 「한국 고등교육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공보처(1995), 「변화와 개혁의 방향3 ; 세계화·지방화 추진전략」.
- 권연옥(1995), 「지역사회개발론」, 학문사.
- 김광웅(1999), 「방법론 강의」, 박영사.
-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옥환(1994), 「대학론」, 교육과학사.
- 김중철(1979), 「한국고등교육연구」, 박영사.
- 문병집(1982), 「지역사회개발론」, 법문사.
- 박용헌 外(1993),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출판사.
- 송미섭譯(1985), Kerr Clark 「대학의 기능」, 교학연구사.
- 안용식·김천영 공저(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 유현숙 外(1998),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 이규행譯(1991),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Alvin Toffler, *Power shift*, New York : Bantam Books, c1990).
- 이돈희 外(1999),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연구보고서.
- 이상노·이윤수譯(1983),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이재규譯(2002),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한경BP(Peter F. Drucker,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St. Martin's Press, New York, N. Y. USA, 2002).
- 이현청(2000),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민음사.
- 조휘일(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흥익제.
- 최창호(1983),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삼영사.
- 표시열(1996),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1997),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한국지역개발학회 편(1997),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한기언譯(1978), 「대학의 미래」, 중앙신서11(J. Perkins, *The University in Transition*, Princeton Univ. Press, 1967).
 황종건(1980), 「지역사회와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논 문]

강무섭(1984), “고등교육의 투입 및 산출측정의 경제적 접근”, 「한국교육」 제11-1호, 한국교육개발원.
 강병수(1997.2), “갈수록 커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강희돈(2000), “교육중심대학 발전방안 탐색”, 「대학교육」 제98호(www.kcue.or.kr).
 고순철(1998), “지역사회개발의 학문과 실천분야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탐색”, 「지역사회개발」 제8-2호, 지역사회개발학회.
 권영섭(1992),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철(2000), “지역사회의 발전과 언론의 역할”, 「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2호, 계명대학교.
 김영기(1992),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지역발전의 공동 운명체”, 「지방자치」 통권 50호.
 김영길(1998),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대학의 위상과 역할”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 자료」.
 _____ (2000), “2000년 이후 한국 대학상” 「대학교육」 제10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철 외(1999),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용만(1981), “지역발전과 교육기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 연구 ;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만(1982), “교육과 지역개발”, 「월간도시문제」, 대한지방공제회.
 김운희(2000), “비대도시권 고등교육 문제의 본질적 대책”, 「지방교육경영」 제5

- 권 제1호, 지방교육경영학회.
- 김중후(2000), “지역발전과 지방국립대학의 역할 및 발전방안”,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김한곤(1993), “대학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14권, 영남대지역발전연구소.
- 김형기(2001.1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제18회 대구대학교 새길포럼 자료」.
- 김희복(2000), “지방대학의 특성화”, 「대학교육」 제1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남궁근(2002), “국립대학간 역할분담과 특성화 방안”,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2002-5호.
- 문인원(1991),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천교육대학 논문집」 제25호.
- 문태현(1997), “지역사회에서 지방대학이 갖는 의미와 역할”, 지역개발연구총서 [3],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박수연(1985), “대학의 사회봉사 ; 그 실제와 우선순위”, 「대학교육」 제1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수영(2002), “지방진흥과 대학”, 「대학교육」 제11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영식(2000), “변화하는 대학위상”, 「대학교육」 제116호(www.kcue.or.kr).
- 박영한(1995), “대학의 입지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제25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박인호(1985), “대학기능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제6집, 영남대학교 .
- 박인호 外(1984),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초수요접근에 관한 연구”,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5집, 영남대학교.
- 박평준·김영규(1981), “지역개발과 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4집, 조선대학교.
- 서찬수(2002),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역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지역학회.
- 손준중(1995), “지방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육성”, 「교육개발」 제96호, 한

국교육개발원.

- 송인성(2000), “지방 국립대학교 육성방안”, 전국기획실장협의회 하계세미나(6.28) 자료.
- 안경식(1988), “지방분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육」 제3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오조환(1987), “지방대학 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12호,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 유은수(1985), “지방이전 대학의 지역발전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유형진(1967), “대학목적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 논문집 제8호.
- 윤대식(1983), “대학시설의 지방이전에 따른 교직원 주거이전형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18-2호, 대한국토계획학회.
- 윤주명(1995), “산학협동을 통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9호, 한국행정학회.
- 이공례·송위진(1998),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 「기술혁신연구」 제6-2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이대식(2000),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이돈희(1982), “한국대학교육의 이념과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 _____ (1988),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보고서.
- 이돈희·김희복(1985), “대학의 발달과 산학협동”, 「대학교육」 제1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만희(2000), “대학과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2000), “지방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방법 모색”, 「대학교육」 제10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수오(2001), “지식기반사회의 지방대학 발전방향”, 「대학교육」 제11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충원(1993),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관한 조사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5권 제2호.
- 이칭찬(2002),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촌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역개발연구」 제10권, 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
- 이희재(1997),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개발연구총서③,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임승달(1989),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국토계획」 제24-1호, 대한국토계획학회.
- 임재해(1997), “지역대학의 학문활동과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개발연구총서③,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전상인(1998), “사라져야 할 지방대학”, 「대학교육」 제9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영섭(2002), “포괄적으로 관찰된 국립대학 내외부의 문제점”,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2002-5호.
- 정지웅(1987),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대학교육」 제2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조용태(1990), “대학의 이념”, 「연구논문집」 제40권 제1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 조용하(2001), “평생교육의 과제와 전망”, 「지역사회」 제38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주철안(2000),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의 실태분석과 육성전략”, 지방교육경영 제5권 제1호,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최중운 외(1991), “대학교육확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제25-2호, 인천교육대학.
- 최청일 외(1992), “지방문화와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 「학생연구」 제20집, 동아대학교.
- 표시열(2000), “분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교육」 제10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표시열 외(1999),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전략”, 교육부 연구보고서(지역개발연구사업).
- 한경수 외(1997), “지방화시대의 교육개혁과제와 전략”, KRF연구결과논문, 한국행정학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제5회 대학교육정책포럼 자료」(2000. 4.26).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01), “대학 사회봉사 활동 분석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모형 개발”, 연구보고 제2001-1-5호.

한영환(2001), “대학 구조정의 방향과 추진전략”, 「대학교육」 제10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중건(1983),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 「대학교육」 제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타 자료]

교육개혁위원회(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Ⅳ」.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2000),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_____ (2000.12), 「국립대학발전계획」.

_____ (2000.12), 「지방대학 육성 대책」.

대구대학교 「새길포럼」 발표자료(2001.12)

산업자원부(200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02)」.

제주대학교(1993), 「제주대학교 40년사(1952~1992)」.

_____ (2000), 「종합발전계획(2001~2010)」.

_____ (2002), 「교과과정」.

_____ (2002), 「교수연구업적(1999-2001)」.

_____ (2002), 「제주대학교 50년사(1952~2002)」.

_____ (2002), 「제주대학교 요람」.

_____ 「연찬회 자료집」 (각권 1998~2002학년도).

_____ 「통계연보」 (각권 1999~2002년도).

제주도 교육청, 「제주교육통계연보」 (1999, 2000, 2001, 2002년도).

제주도(2002), 도제 실시 56주년 홍보자료.

_____ (2002), 「주요 행정총람」.

_____ (2002), 「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0), 「제5회 대학교육정책포럼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www.cheju.ac.kr (제주대학교).
www.chejutic.cheju.ac.kr (제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www.chulic.cheju.ac.kr (제주대학교 도서관).
www.hallailbo.co.kr (한라일보).
www.jejudi.go.kr (제주시).
www.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www.kosis.nso.go.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president.go.kr (청와대).
www.provin.jeju.kr (제주도청).
www.smba.go.kr (중소기업청).
www.std.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www.unn.net. (한국대학신문).
www3.yonhapnews.net (연합뉴스).

2. 국외 문헌



- Apgar, M.(1996), "Emerging Issues in Community Development in New Perspectives on Community Development", Newyork; Mc Grow-Hill.
- Brown & Burrow(1979), *Regional Problems ; Comparative Experiences of Some Market Econom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Coleman, J. S.(1997)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Halsey, A. H., et al.(ed.), *Education; Culture, economy, society*, Oxford; Oxford Univ. Press.
- Easton, D.(1968), *An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york; John wiley & soon.
- Elchanan Cohn & Terry G. Geslce(1990), *The Economics of Education*(3rd ed),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Elcock, H.(1982),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rities", London: Methuen & Co.
- Fichte, J. G.(1971), *Fichtes, Werke*, Berlin: Dermstade.
- Fountain, J. E.(2001), *Building the Virtual Stat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erth, L. H.(1997), "Education for 21C-Leadership Glocalization", The 2nd Korea-US Forum. The Korea-American Friendship Society.
- John I. Doodlad(1991), "Education, Schools and a Sense of Community", in Thomas H. Quinn and Michael Henelly(eds), *Community and Their School*, R,R, Donnelley and Sons, Inc, chap.11.
- Newman, J. H.(1960), *The Idea of a University*, N.Y; Doubleday.
- OECD(1979),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OECD(1997), *National Innovation Systems*
- Ott, T.(1993), "Regionale Effekte einer Neugründung der Universität Erfurt", *Erfurter Geographische Studien*. BD. 1.
- Psacharopoulous G. & Woodhall M.(1985), *Education for Development : An analysis in investment choices*, London ; Oxford Univ. Press.
- Pulliam, J. D. & Patten, J. V.(1995), "History of Education in America", Merrill.
- Rejean Landry, Moktar Lamari, Nabil Amara(2003), "The extent &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 Government Agencies", *PAR*, Vol.63, No.2.
- Robert, B. Reich(1991),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Vintage Books.
- Ronald, B.(1995), *The Idea of Higher Education*, London; Open Univ. Press.
- Wright, D. 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acific Grove, CA: Books & Cole.

[Summary]

A Research on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Jeju-Do

- With a focus 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Han, Seung-Hee

(majoring in local govern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Island,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chul)

The importance of a local community as a basic unit of life amidst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is coming sharply into focus nowaday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is emphasis is the importance of a local university as the center of implementing a local innovative system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the core strategy of community development. The universities which create and use the accumulated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who has a basic foundation in raising appropriate human resources can be said to be inseparable while at the same time mutually dependent with the local community.

Under these assumptions, this research attempts to positively analyze what the university's role is in Jeju-Do through its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volunteer work. By investigating into the community's awareness and attitude regarding the above mentioned role and its spreading effects, the prestige and role of the university on the local community was experientially confirmed with the transcendental awareness attitude. Furthermore,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was set to provide the basic policy data for the raising of the capability of the university as the center of community development by

finding out the expectation and demand related to future role of the university and develop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general university scale and actual situation and functions of the Cheju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under scrutiny at this point were divided into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volunteer work and then all its related actual conditions and case studies were collected, analyzed and presented. Secondly, the awareness of the Jeju residents regarding the role of the university and its effects were positively and experientially confirmed through surveys. Along with this action, the opinions of the local community residents regarding their expectations, demand, and development issues on the university were taken into account.

The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awareness investigation and the functional analysis regarding the educational, research and social volunteer work on the part of the university to the local community goes like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awareness of the local community towards the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of the university was positive in the recognition and contribution areas. Th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was recognized in the educational field but its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were looked upon as insufficient. Furthermore, all the Jeju residents seemed to feel and agree that the university and its local community were in a relationship that was mutually dependent and inseparable.

First, the role of the university and how it was recognized. Cheju Nat'l Univ. has set up 66 academic courses encompassing most of the general fields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in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is in the scale where it can cover up to 35~42% of those who wish to continue with a high level education(more than 50% of the humanities education sector). At this present date of September 2002, it has produced close to 40 thousand graduate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more than 80% of the students who have obtained employment in the recent 3 years are working in the Jeju area. However, the raising of human resources have been presumed to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producing human resources in all fields regardles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r the demand of

the Jeju area. Jeju residents seem to regard this kind of educational role of the university as very positive in terms of provision of an opportunity to study at a college but was lukewarm towards the issue of human personnel training.

Secondly, in terms of research functions. The actual number of the professors' research in the recent 3 years related to the Jeju area is 16.0% in theses, 57.1% in research reports, and 67.1% in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Participation in the Jeju related volunteer labor in the recent 3 years only amounted to 23.2% for professors who have participated more than once. For professors who have participated more than once in a year was 8.9% which seemed to indicate that there was heavy concentration on certain professors in specific fields who actually receive these research projects. In the meantime, the research centers that were being set up and run which deal with provincial issues numbered 10 and especially in te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es and the university, productive results were being made in the Jeju industry site's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of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and developing human personnels, by establishing local community cooperating research centers under the auspice of national appointment. However, the awareness of the local community regarding these research functions are negative. The negativity level regarding the fact that it is a solution of the present problems faced by the local community was the highest among the 7 measurement criteria regarding the role of the university.

Third, the social volunteer work. There are about 20 different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local residents that have been set up and about two thousand people take these courses. Also, there are about 50 different cultural events like contest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every year. Furthermore, the facilities on the campu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or open to the public.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university staff in social volunteer work on the part of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 more than once out of the whole university reach up to about 37% every year. For promoting rel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about 24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within Jeju have exchange agreements with the university. A cooperative model type seems to be being offered by carrying out network cre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n attempt to solve main university issues like forming a development fund, taking over the Jeju medical center, building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free city, and setting up as well as running of open lectures. The general awareness regarding these social volunteer work was positive towards the affiliation with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but the rest was negative. On the whole, the social volunteer work functions seem to be regarded as negative as it was with the research functions.

Next, the effect towards the local community on the part of the university. The economical spreading effects was generally in the middle level and positively regarded but it was positive only in the income increase effect out of all the measurement criteria. The remaining criteria in the local industry progress, increase in employment, local economy enhancement, and population inflow effect was negative.

The socio-cultural effects was positive in the fact that is a promotion of image and pride of the local community but it was negative in the effects regarding local culture development or enticing educational desires, and satisfaction of the population demand.

Among these social awareness, there was a huge expectation towards the future in that the role of Cheju Nat'l Univ. In that it will expand greatly with the progress of the international free city. The crucially important presumed condition in the university development seemed to be the local community's support rather than national support of the university's own effort.

The general awareness for the futur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on the part of the university seems to be perceived as the raising of people who will lead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To come up with a more specific plan, an appropriate educational course must be developed for an expansion of educational function which is suited to the local situation. To strengthen the research functions there must be a more active research activities regarding the local community'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To expand further on the social volunteer work, it demands a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a variety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urthermore, highest preference

was given in the specialized area (2 fields) of tourism industry and train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s to obtain a comparative superiority in the competitiveness through choice and concentr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o promote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the local communit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educational process and formation that are set up and run by the university should take the will and necessity on a national level as a national university while at the same time reflect the Jeju area's special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economical an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demand of the local area's admittance so that the system is restructured. The important fact to note here especially is that the Jeju residents reacted similarly in the awareness survey. They have a big interest in employment through the training of human personnels and are strongly demanding an adjustment and reform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formation.

Secondly, there should be further systematic expansion to solve local issues by integrating and concentrating all the individual research capabilit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by the university professors. The participation method in resolving local issues should especially be carried out in a group project format where related professors from different fields can participate together by collecting and consolidating a variety of professionalism so that the productivity and public confidence of the results can be enhanced.

Thirdly,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made so that there is expans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Jeju residents, the terms of individual desires, and an establishment of a network system that has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society'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a local sense with a boost to its mutual benefits. The development of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should reflect the local conditions and demand yet be more creatively developed. The plan to provide and expand these services in a systematic and integrative way rather than a disperse and one time service only within each division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specialization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choosing of a specific department and concentration of training should not stop at the

selection of that particular field but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a discriminated concentration of support. Here, the specialized field should be bisected into education and research fields so that the demands of the local community will be met in the tourism industry and international professionals as well as in the specialized education field and research fields which takes the natur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Lastly, by carrying out a more integrative and systematic advertising activities regarding the functions of the university, the crucial need to have a more uniformed and consistent university image form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e survey. Rather than a sporadic and one-sided deliverance of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the actual matter of things i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an advertisement strategy which goes both ways in expanding the contacts with the residents of the local community. An effective advertising to the local community will not only bring in more students to the university but will raise the clarity of the university management and the innovative nature of the university in the loc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it will bring in a secondary chain reaction effect of securing public support towards the university.



부 록

- 【부록 1】 분과학문 설치 현황
- 【부록 2】 연구소 설치 현황
- 【부록 3】 인식조사 설문지
- 【부록 4】 질문지 응답 교차집계표
- 【부록 5】 대학역할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부록 1】 분과학문 설치 현황

(2002. 4. 1기준)

계열별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교수수/ 학부생수
		석사	박사(일반대학원)	
인문사회	어문계 < 5 > (인문대학) 국어국문, 영어영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독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3개학과 (국문, 영문, 중문, 일문) 통역대학원 3개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학과 (국문, 영문, 중문) 	38/787
	인문계 < 3 > (인문대학) 사학, 사회학,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3개학과 (독일, 사회, 사학) 		17/367
	사회계 < 13 > (법정대학) 법* · 국제법무(부), 행정*, 정치외교, 언론홍보 (경상대학) 경영*, 관광경영*, 회계*, 무역*, 경제, 관광개발, 경영정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11개학과 (법, 행정, 정치외교, 경영, 경제, 회계, 무역, 관광경영, 관광개발, 경영정보, 농경제) 경영대학원 7학과(4전공) 행정대학원 1학과(4전공) 산업대학원 1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학과 (법, 행정, 경영, 농경제, 관광경영, 회계) 	73/2,765
	(사범계) < 5 > (사범대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상업교육, 사회교육(일반사회 · 지리교육), 윤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학원 10전공 		33/343
	소 계	26 (*는 주 · 야간개설)		
자연계	이학계 < 8 > (자연과학대학) 물리, 생명과학, 화학, 식품영양, 정보수학, 전산통계, 가정관리, 의류, (의예, 수의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8개학과 (생물, 물리, 화학, 수학, 식품영양, 전산통계, 가정관리,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학과 (생물, 물리, 화학, 수학, 전산통계) 	49/1,239
	공학계 < 10 > (공과대학) 기계 · 에너지 · 생산공학(부) 통신 · 컴퓨터공학(부) 전자 · 전기공학(부) 식품공, 청정화학공, 건축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8학과 (식품공, 기계공, 통신공, 에너지공, 전기전자공, 정보공, 건축공, 화학공) 산업대학원 4학과(7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학과 (식품공, 기계공, 통신공, 에너지공, 전기전자공, 정보공) 	57/1,442
	농림학 < 5 >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 · 환경생명공학(부) 식물자원, 동물자원, 응용생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4개학과 (농학, 원예, 동물자원, 농화학) 산업대학원 1개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학과 (석사과정과 같음) 	25/492
	수산해양 < 7 > (해양과학대학 ; 해양과학부) 해양생산과학전공 (중식 · 해양 · 해양생물공학) 해양산업공학전공 (해양생산시스템 · 해양계측공학) 토목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 · 해양토목공학) → 편제상 단일학부로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6개학과 (어업, 수산생물, 해양, 해양생물공학, 환경공, 토목해양공학) 산업대학원 1개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학과 (석사과정과 같음) 	40/1,069
	(사범계) < 3 > (사범대학) 수학교육, 과학교육(물리 · 생물), 컴퓨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학원 6개 전공 		17/265
	소 계	33		
수 · 의학계 < 3 > (농생대학) 수의학 (의과대학) 의학, 간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3개학과 (수의학, 의학, 간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학과(수의) 	65/320 (14.7/3.3%)	
예 · 체능계 < 4 >	(인문대학) 음악,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원 2개학과 (미술,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학과(체육) 	29/653 (6.5/6.7%)
	(자연대학)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학원 3개전공 		
	(공과대학) 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 · 문화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대학원 1개학과 		
전 체	분과학문 수 : 66개	대학원 6, 학과68(전공34)	학과 32	443/9,742 (100%)

주) 학부과정의 경우 학칙상 편제(7개 학부 15개 전공, 53개 학과) 및 모집단위와는 별도로 학문분과별 분류함.

【부록 2】 연구소 설치 현황

통폐합 개편(2001.9월)이전	통폐합 개편 이후 (2002. 4월 현재)	학문 분야 및 기능	주요연구활동 (1999~2001)	
			연구·용역 과제	학술 행사
*제주도문제연구소('67) →제주도문화연구소('75) →탐라문화연구소(1976) 인문과학연구소(1995)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 지역문화의 체계적 연구 · 인문학 분야 연구	17	19
*농촌문제연구소('70) 새마을연구소('77) →*지역발전연구소('89) + *사회발전연구소('84) → 지역사회발전연구소(1992) 법과정책연구소(1994)	*사회발전과 법·정책연구소	· 지역사회문제 조사 연구 · 법과 정책의 학제적 연구	25	31
기업경영연구소('69) + *관광개발연구소('74) → 관광산업연구소(1986) 경영경제연구소(1999)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 제주지역 관광산업 연구 · 경영·경제분야 연구	21	16
동아시아연구소(1990) *섬연구소(1997)	*평화연구소	· 세계평화와 통일문제 연구 · 세계 섬의 발전 연구	11	39
방사능이용연구소(1981)		· 동위원소, 환경방사능 이용 기술 연구	10	12
*아열대농업연구소(1981) *제주도축산문제연구소('67) →제주도축산연구소('88) →동물과학연구소(1991)	*아열대농업 동물과학연구소	· 열대·아열대작물 연구 · 동물과학 및 지역농업 연구	33	15
*남방수산물연구소('68) →임해연구소('74) →해양자원연구소('80) →해양연구소(1988) 환경연구소(1991)	*해양과 환경연구소	· 해양과 수산에 관한 종합연구 · 수질, 폐기물, 지하수 등 환경연구	36	16
기초과학연구소(1986)		· 물리, 화학, 생물, 수학분야 연구	17	14
정보통신연구소(1997) 산업기술연구소(1990)	첨단기술연구소	· 첨단기술 및 기초공학 연구 ·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	14	16
인공심장연구소(1999)		· 인공심장 이식 실험 연구	3	3
과학교육연구소(1982)	교육과학연구소	· 교육과학에 관한 학제적 연구 · 영재 및 특수교육의 전문화 등	6	5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1996)		· 감귤화훼분야 첨단 기술개발 · 관련분야 인재육성사업 수행	2	1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1996)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수행 · 아열대 원예산업 기술개발	42	20
*중소기업지원센터(1996) *창업보육센터(1999)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 지역내 창업보육 및 기술개발 자문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수행	53	5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2001)		· 바이오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등 (PIC)	- 2001년 11월 설립	
학생생활연구소(1968), 생명과학연구소(1997) 체육과학연구소(1995)		→ 통폐합 또는 지원기관등으로 기능전환		
25개	15개		290건	212건

주) *는 지역산업체 및 지역연구 관련 연구소

【부록 3】 인식조사 질문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5학기)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지역대학의 기능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과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으로는 제주지역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를 선정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토대로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부족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번거로운 줄 생각되오나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일

한 승 희 올림

(조사자 연락처 : ☎ 753 - 9489, E-mail : asap@cheju.ac.kr)

I. 먼저,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기대 수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 각 질문에 1 가지만을 선택(O 또는 V표기)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은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많이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라는 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설립된 지 50년이 된 제주대학교가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미약하다. ⑤ 전혀 없다.
4. 지난 50년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제주대학교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교육 기능 : 지역의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과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양성 등
 ② 연구 기능 : 학술연구를 통한 지역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역문제의 해결 등
 ③ 사회봉사 기능 : 각종 자문활동, 지식과 정보 제공, 문화행사 및 공간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
5. 제주대학교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부족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 아래 답항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위 4번과 같음.
 ① 교육 기능 ② 연구 기능 ③ 사회봉사 기능
6.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사회 미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대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① 크게 확대될 것이다. ② 조금 확대된다. ③ 현재와 같을 것이다.
 ④ 보다 축소 될 것이다. ⑤ 아주 축소될 것이다.
7. 제주대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제주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육성·배출
 ② 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발전 방향 제시
 ③ 제주사회 기관·단체·산업체 등과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④ 지역주민의 문화육구 충족 및 지역사회 주민·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⑤ 기타()

8. 지역인재의 육성 등과 같은 제주대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제주지역의 우수 학생 유치
 () ②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
 () ③우수 교수의 확보와 교육방법의 개선
 () ④보다 다양한 전공분야(학과)의 개설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⑤장학금 지원확대 등 교육여건의 확충
9. 전문적 기술·정보의 축적과 제공 등과 같은 제주대학교의 연구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국내외 저명학자 등 우수 교수의 유치확보
 () ②지역특화 및 지역과제 연구 활성화
 () ③연구비 확충 및 연구환경 조성
 () ④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학술교류 확대
 () ⑤기타()
10. 지역사회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사회봉사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 ②교수들의 자문과 조언활동 및 학생들의 자원적 봉사활동 확대
 () ③문화행사 및 시설공간의 개방
 () ④자치단체·산업체·주민단체 등과 연계 교류협력
 () ⑤기타()
11.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국립대학이므로 국가(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투자 확대
 () ②지역대학이므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산업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
 () ③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자구적 혁신노력 강화
 () ④기타()
12.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대학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면, 제주대학교는 어떤 분야(학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2가지 항목을 선택(표기)해 주십시오
- () ①관광산업 분야 () ②정보·통신기술 분야 () ③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분야
 () ④농·수해양에 기반한 청정환경 및 생명과학분야 () ⑤외국어교육등 국제전문인력 양성분야

(☞ 다음장으로 계속)

II.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기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는 바에 따라 해당번호 앞에 표기(○ 또는 V)하여 주십시오.

번호	질문 (제주대학교는.....)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1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다.					
2	도내 국립대학으로서 저렴한 교육비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전문적 지식과 기술·정보의 축적하고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5	대학이 보유한 문화·교육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6	교수들은 각 분야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	지방정부를 비롯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촉진시키고, 지역내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9	저렴한 학비부담과 교육비의 도외 유출을 억제하여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10	대학의 운영상 지출과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들의 소비지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11	제주지역의 인구정착 효과와 육지부 학생의 대학진학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12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이미지를 높여 주고 있다.					
13	지역문화·정보센터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14	제주도민들에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교육열을 자극하여 주고 있다.					
15	제주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 기타사항으로, 제주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다음장으로 계속)

Ⅲ.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표기(V)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 ()남 ()여
2. 연령은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현재 거주 지역은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 현재 하시는 직업·직종 분야는 ?
()공무원 ()공·사기업체 ()농·어업 종사 ()서비스·자영업
()전업주부, 기타
5. 귀하의 학력은? ()고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 이상
6. 귀하는 개인적으로 제주대학교와 어떤 인연 또는 연관이 있거나 있었습니까?
*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표기해 주십시오.
()①졸업동문 ()②학부모(과거 포함)
()③ 각종 강좌수강·시설이용·행사참여 등 ()④전혀 관계가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질문지 응답 교차집계표

<부록 표 5-1> 인지 정도

집단·변인		전체N	많이 안다	조금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6.3	35.2	33.0	14.6	0.9	$\chi^2=9.408$ n.s
	기타시·군지역	217	11.5	29.0	33.6	23.5	2.3	
성	남	230	18.7	37.0	31.7	11.3	1.3	$\chi^2=25.559$ p<.000
	여	220	9.1	27.3	35.0	26.8	1.8	
연령	20대	83	13.3	30.1	34.9	21.7	-	$\chi^2=12.068$ n.s
	30대	159	17.0	31.4	27.7	22.0	1.9	
	40대	160	13.1	31.3	36.3	17.5	1.9	
	50대 이상	48	8.3	41.7	39.6	8.3	2.1	
학력	고졸 이하	98	6.1	28.6	41.8	21.4	2.0	$\chi^2=56.305$ p<.000
	2년제대학졸	126	4.8	22.2	41.3	30.2	1.6	
	대졸 이상	226	22.6	39.4	25.2	11.5	1.3	
직업	공무원(교사)	140	17.9	38.6	28.6	13.6	1.4	$\chi^2=25.276$ n.s
	공·사기업체	67	19.4	35.8	26.9	14.9	3.0	
	농·어업 종사	40	10.0	30.0	37.5	22.5	-	
	서비스·자영업	110	9.1	30.0	41.8	17.3	1.8	
	전업주부·기타	93	11.8	23.7	33.3	30.1	1.1	
합계		450	14.0%	32.2%	33.3%	18.9%	1.6%	

<부록 표 5-2> 지역사회와 대학간 의존관계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8.0	43.8	27.5	8.6	2.1	$\chi^2=5.972$ n.s
	기타시·군지역	217	20.3	40.1	24.0	14.7	0.9	
성	남	230	23.0	43.9	20.9	10.0	2.2	$\chi^2=10.755$ p<.029
	여	220	15.0	40.0	30.9	13.2	0.9	
연령	20대	83	13.3	49.4	25.3	12.0	-	$\chi^2=10.729$ n.s
	30대	159	23.3	40.9	23.3	10.7	1.9	
	40대	160	18.1	38.1	29.4	13.1	1.3	
	50대 이상	48	18.8	45.8	22.9	8.3	4.2	
학력	고졸 이하	98	18.4	37.8	30.6	12.2	1.0	$\chi^2=16.541$ p<.035
	2년제대학졸	126	11.1	40.5	30.2	16.7	1.6	
	대졸 이상	226	23.9	44.7	21.2	8.4	1.8	
직업	공무원(교사)	140	19.3	45.7	25.0	9.3	0.7	$\chi^2=24.885$ n.s
	공·사기업체	67	29.9	46.3	14.9	6.0	3.0	
	농·어업 종사	40	20.0	32.5	30.0	17.5	-	
	서비스·자영업	110	13.6	45.5	24.5	15.5	0.9	
	전업주부·기타	93	17.2	33.3	34.4	11.8	3.2	
합계		450	19.1%	42.0%	25.8%	11.6%	1.6%	

<부록 표 5-3> 기여 정도

집단·변인		전체N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미약하다	전혀 없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9.0	37.3	36.9	15.9	0.9	$\chi^2=2.407$
	기타시·군지역	217	6.0	35.9	37.3	19.8	0.9	n.s
성	남	230	8.3	41.3	34.3	15.7	0.4	$\chi^2=6.324$
	여	220	6.8	31.8	40.0	20.0	1.4	n.s
연령	20대	83	2.4	30.1	56.6	10.8	-	$\chi^2=23.477$ p<.024
	30대	159	9.4	35.2	30.8	23.3	1.3	
	40대	160	8.1	39.4	35.0	16.3	1.3	
	50대 이상	48	8.3	43.8	31.3	16.7	-	
학력	고졸 이하	98	11.2	34.7	35.7	17.3	1.0	$\chi^2=9.108$ n.s
	2년제대학졸	126	5.6	30.2	40.5	22.2	1.6	
	대졸 이상	226	7.1	41.2	35.8	15.5	0.4	
직업	공무원(교사)	140	8.6	35.7	37.1	17.1	1.4	$\chi^2=19.590$ n.s
	공·사기업체	67	11.9	46.3	26.9	14.9	-	
	농·어업 종사	40	7.5	25.0	45.0	22.5	-	
	서비스·자영업	110	6.4	44.5	33.6	14.5	0.9	
	전업주부·기타	93	4.3	26.9	45.2	22.6	1.1	
합계		450	7.6%	36.7%	37.1	17.8%	0.9%	

<부록 표 5-4> 기여한 분야(기능)

집단·변인		전체N	교육 기능	연구 기능	사회봉사 기능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69.5	11.6	18.9	$\chi^2=0.149$ n.s
	기타시·군지역	217	69.6	10.6	19.8	
성	남	230	72.2	10.9	17.0	$\chi^2=1.863$ n.s
	여	220	66.8	11.4	21.8	
연령	20대	83	53.0	18.1	28.9	$\chi^2=16.908$ p<.010
	30대	159	76.1	7.5	16.4	
	40대	160	73.8	10.0	16.3	
	50대 이상	48	62.5	14.6	22.9	
학력	고졸 이하	98	64.3	12.2	23.5	$\chi^2=3.617$ n.s
	2년제대학졸	126	69.8	8.7	21.4	
	대졸 이상	226	71.7	11.9	16.4	
직업	공무원(교사)	140	80.0	5.0	15.0	$\chi^2=24.434$ p<.002
	공·사기업체	67	73.1	10.4	16.4	
	농·어업 종사	40	72.5	17.5	10.0	
	서비스·자영업	110	62.7	10.0	27.3	
	전업주부·기타	93	58.1	19.4	22.6	
합계		450	69.6%	11.1%	19.3%	

<부록 표 5-5> 기여가 부족한 분야(기능)

집단·변인		전체N	교육 기능	연구 기능	사회봉사 기능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6.7	45.5	37.8	$\chi^2=1.692$
	가타시·군지역	217	12.4	47.0	40.6	ns
성	남	230	12.2	48.3	39.6	$\chi^2=2.441$
	여	220	17.3	44.1	38.6	ns
연령	20대	83	20.5	49.4	30.1	$\chi^2=5.728$ ns
	30대	159	13.8	44.7	41.5	
	40대	160	13.1	44.4	42.5	
	50대 이상	48	12.5	52.1	35.4	
학력	고졸 이하	98	9.2	49.0	41.8	$\chi^2=4.641$ ns
	2년제대학졸	126	13.5	49.2	37.3	
	대졸 이상	226	17.7	43.4	38.9	
직업	공무원(교사)	140	12.9	42.1	45.0	$\chi^2=5.015$ ns
	공·사기업체	67	14.9	50.7	34.3	
	농·어업 종사	40	12.5	47.5	40.0	
	서비스·자영업	110	13.6	48.2	38.2	
	전업주부·기타	93	19.4	46.2	34.4	
합 계		450	14.7%	46.2%	39.1%	

<부록 표 5-6> 향후 대학역할에 대한 기대

집단·변인		전체N	크게 확대될 것이다	조금 확대 된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보다 축소될 것이다	아주 축소될 것이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3.0	45.1	18.9	2.6	0.4	$\chi^2=1.560$
	가타시·군지역	217	31.8	44.2	20.3	3.7	-	ns
성	남	230	36.1	43.5	18.3	2.2	-	$\chi^2=4.850$ ns
	여	220	28.6	45.9	20.9	4.1	0.5	
연령	20대	83	25.3	56.6	15.7	2.4	-	$\chi^2=9.177$ ns
	30대	159	32.7	43.4	19.5	3.8	0.6	
	40대	160	36.3	40.6	20.0	3.1	-	
	50대 이상	48	31.3	41.7	25.0	2.1	-	
학력	고졸 이하	98	33.7	38.8	24.5	3.1	-	$\chi^2=7.788$ ns
	2년제대학졸	126	29.4	47.6	20.6	1.6	0.8	
	대졸 이상	226	33.6	45.6	16.8	4.0	-	
직업	공무원(교사)	140	35.7	44.3	15.7	4.3	-	$\chi^2=20.098$ ns
	공·사기업체	67	38.8	37.3	22.4	1.5	-	
	농·어업 종사	40	15.0	50.0	35.0	-	-	
	서비스·자영업	110	32.7	42.7	19.1	4.5	0.9	
	전업주부·기타	93	30.1	50.5	17.2	2.2	-	
합 계		450	32.4%	44.7%	19.6%	3.1%	0.2%	

<부록 표 5-7> 가장 중요한 과제

집단·변인		전체 N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 육성·배출	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발전 방향 제시	제주사회 기관·단체·산업체 등과의 상호 협력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지역 사회 교류 활성화	기타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45.5	18.9	27.5	7.7	0.4	$\chi^2=1.797$
	기타시·군지역	217	45.2	22.1	24.9	7.8	-	n.s
성	남	230	40.0	23.0	30.0	6.5	0.4	$\chi^2=8.978$
	여	220	50.9	17.7	22.3	9.1	-	n.s
연령	20대	83	49.4	16.9	28.9	4.8	-	$\chi^2=11.088$
	30대	159	49.7	20.1	21.4	8.8	-	
	40대	160	38.8	20.6	31.3	8.8	0.6	n.s
	50대 이상	48	45.8	27.1	20.8	6.3	-	
학력	고졸 이하	98	43.9	23.5	24.5	8.2	-	$\chi^2=11.221$
	2년제대학졸	126	50.8	19.8	18.3	11.1	-	
	대졸 이상	226	42.9	19.5	31.4	5.8	0.4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45.7	20.0	29.3	4.3	0.7	$\chi^2=23.634$
	공·사기업체	67	43.3	16.4	34.3	6.0	-	
	농·어업 종사	40	32.5	37.5	22.5	7.5	-	
	서비스·자영업	110	41.8	20.9	24.5	12.7	-	
	전업주부·기타	93	55.9	16.1	19.4	8.6	-	
합 계		450	45.3%	20.4%	26.2%	7.8%	0.2%	

<부록 표 5-8> 교육 기능 강화 방안

집단·변인		전체 N	지역의 우수 학생 유치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교수의 확보와 교육 방법의 개선	다양한 전공분야(학과) 개설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장학금 등 교육여건의 확충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9.7	34.3	24.9	17.2	3.9	$\chi^2=1.339$
	기타시·군지역	217	16.1	34.6	26.7	17.5	5.1	n.s
성	남	230	17.8	37.8	23.9	16.5	3.9	$\chi^2=2.682$
	여	220	18.2	30.9	27.7	18.2	5.0	n.s
연령	20대	83	13.3	32.5	26.5	19.3	8.4	$\chi^2=9.621$
	30대	159	16.4	37.7	23.9	17.6	4.4	
	40대	160	21.3	34.4	25.0	16.3	3.1	n.s
	50대 이상	48	20.8	27.1	33.3	16.7	2.1	
학력	고졸 이하	98	15.3	31.6	26.5	22.4	4.1	$\chi^2=15.181$
	2년제대학졸	126	11.9	40.5	23.8	21.4	2.4	
	대졸 이상	226	22.6	32.3	26.5	12.8	5.8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16.4	38.6	27.1	15.0	2.9	$\chi^2=23.513$
	공·사기업체	67	26.9	37.3	22.4	9.0	4.5	
	농·어업 종사	40	17.5	15.0	37.5	25.0	5.0	
	서비스·자영업	110	20.0	34.5	20.0	21.8	3.6	
	전업주부·기타	93	11.8	34.4	28.0	18.3	7.5	
합 계		450	18.0%	34.4%	25.8%	17.3%	4.4%	

<부록 표 5-9> 연구 기능 확충 방안

집단·변인		전체 N	국내외 저명학자 등 우수 교수의 유치 확보	지역특화 및 지역과제 연구 성화	연구비 확충 및 연구환경 조성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 학술교류 확대	기타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23.2	46.4	9.9	20.2	0.4	$\chi^2=3.122$
	기타시·군지역	217	19.8	44.2	13.4	22.6	-	ns
성	남	230	21.3	45.7	9.6	23.0	0.4	$\chi^2=3.239$
	여	220	21.8	45.0	13.6	19.5	-	ns
연령	20대	83	21.7	39.8	18.1	20.5	-	$\chi^2=16.363$
	30대	159	18.9	47.2	15.1	18.9	-	
	40대	160	21.9	45.6	7.5	24.4	0.6	ns
	50대 이상	48	29.2	47.9	2.1	20.8	-	
학력	고졸 이하	98	24.5	37.8	13.3	24.5	-	$\chi^2=5.622$
	2년제대학졸	126	19.8	51.6	11.1	17.5	-	ns
	대졸 이상	226	21.2	45.1	11.1	22.1	0.4	
직업	공무원(교사)	140	25.7	51.4	7.1	15.7	-	$\chi^2=34.652$ p<.004
	공·사기업체	67	22.4	46.3	13.4	16.4	1.5	
	농·어업 종사	40	22.5	42.5	10.0	25.0	-	
	서비스·자영업	110	19.1	35.5	10.0	35.5	-	
	전업주부·기타	93	17.2	48.4	19.4	15.1	-	
합계		450	21.6%	45.3%	11.6%	21.3%	0.2%	

<부록 표 5-10> 사회봉사 기능 확대 방안

집단·변인		전체 N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교수들의 자문과 조언활동 및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문화행사 및 시설공간의 개방	자치단체·산업체·주민단체 등과 연계 교류협력	기타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46.8	11.6	9.9	31.3	0.4	$\chi^2=3.863$
	기타시·군지역	217	43.8	14.3	14.7	26.7	0.5	ns
성	남	230	41.7	13.0	8.7	35.7	0.9	$\chi^2=14.964$
	여	220	49.1	12.7	15.9	22.3	-	p<.005
연령	20대	83	43.4	10.8	21.7	24.1	-	$\chi^2=32.226$
	30대	159	47.2	11.3	12.6	28.9	-	
	40대	160	46.9	12.5	8.8	31.9	-	p<.001
	50대 이상	48	37.5	22.9	6.3	29.2	4.2	
학력	고졸 이하	98	42.9	17.3	13.3	25.5	1.0	$\chi^2=6.097$
	2년제대학졸	126	42.9	11.9	15.1	30.2	-	ns
	대졸 이상	226	47.8	11.5	10.2	30.1	0.4	
직업	공무원(교사)	140	50.0	8.6	7.9	32.9	0.7	$\chi^2=30.215$ p<.017
	공·사기업체	67	52.2	14.9	7.5	25.4	-	
	농·어업 종사	40	40.0	15.0	7.5	35.0	2.5	
	서비스·자영업	110	41.8	10.0	15.5	32.7	-	
	전업주부·기타	93	39.8	20.4	20.4	19.4	-	
합계		450	45.3%	12.9%	12.2%	29.1%	0.4%	

<부록 표 5-11> 대학발전의 전제 조건

집단·변인	전체 N	국립대하이프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투자 확대	지역대하이프로 자치단체·산업체등 역사회의 지지와 지원	도내 대학 구성원들의 자구적 혁신노력 강화	기 타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8.2	37.8	23.6	0.4	$\chi^2=2.167$
	기타시·군지역	217	36.4	42.9	20.7	-	n.s
성	남	230	26.1	42.6	30.9	0.4	$\chi^2=33.392$
	여	220	49.1	37.7	13.2	-	p<.000
연령	20대	83	41.0	36.1	21.7	1.2	$\chi^2=9.258$
	30대	159	37.7	39.0	23.3	-	
	40대	160	33.1	46.3	20.6	-	n.s
	50대 이상	48	43.8	31.3	25.0	-	
학력	고졸 이하	98	45.9	39.8	14.3	-	$\chi^2=8.091$
	2년제대학졸	126	36.5	42.1	21.4	-	n.s
	대졸 이상	226	34.1	39.4	26.1	0.4	
직업	공무원(교사)	140	37.1	35.7	27.1	-	$\chi^2=11.797$
	공·사기업체	67	34.3	44.8	20.9	-	
	농·어업 종사	40	37.5	35.0	27.5	-	n.s
	서비스·자영업	110	33.6	48.2	17.3	0.9	
	전업주부·기타	93	44.1	36.6	19.4	-	
합계	450	37.3%	40.2%	22.2%	0.2%		

<부록 표 5-12> 대학 특성화 분야

집단·변인	전체 N	관광산업 분야	정보·통신 기술 분야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분야	농·수해양에 관한 청정환경 생명과학분야	기 및 외국어교육등 국제전문인력 양성분야	비고	
거주지	제주시	233	29.2	13.1	6.6	21.4	29.6	각 복수(2개) 응답 누적 백분율임.
	기타시·군지역	217	30.9	13.4	6.9	23.9	24.9	
성	남	230	28.0	11.3	8.3	26.7	25.6	
	여	220	32.0	15.2	5.2	18.4	29.0	
연령	20대	83	31.3	13.8	10.8	15.1	28.9	
	30대	159	31.2	12.6	4.7	23.3	28.3	
	40대	160	26.9	14.4	7.2	24.1	27.5	
	50대 이상	48	34.4	10.4	5.2	29.2	20.8	
학력	고졸 이하	98	31.1	18.4	5.6	22.4	22.4	
	2년제대학졸	126	30.9	13.9	5.6	23.4	26.2	
	대졸 이상	226	29.0	10.6	8.0	22.4	30.1	
직업	공무원(교사)	140	27.5	8.2	6.4	28.6	29.3	
	공·사기업체	67	31.3	14.9	4.5	20.1	29.1	
	농·어업 종사	40	32.5	16.2	5.0	27.5	18.8	
	서비스·자영업	110	31.3	14.5	7.8	21.3	25.0	
	전업주부·기타	93	30.1	16.6	8.6	15.1	29.5	
합계	450	30.0%	13.2%	6.8%	22.7%	27.3%		

<부록 표 5-13> 교육기능 인식① (진학·교육기회 제공)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21.9	48.9	23.2	3.4	2.6	$\chi^2=10.411$ p<.034
	가타시·군지역	217	13.8	44.7	30.4	7.4	3.7	
성	남	230	20.0	50.0	23.0	3.9	3.0	$\chi^2=6.119$ n.s
	여	220	15.9	43.6	30.5	6.8	3.2	
연령	20대	83	13.3	50.6	21.7	10.8	3.6	$\chi^2=18.982$ n.s
	30대	159	17.0	44.0	28.3	6.3	4.4	
	40대	160	17.5	48.8	28.8	2.5	2.5	
	50대 이상	48	31.3	43.8	22.9	2.1	-	
학력	고졸 이하	98	14.3	39.8	33.7	5.1	7.1	$\chi^2=26.672$ p<.001
	2년제대학졸	126	10.3	47.6	30.2	8.7	3.2	
	대졸 이상	226	23.9	49.6	21.7	3.5	1.3	
직업	공무원(교사)	140	17.1	52.1	25.0	4.3	1.4	$\chi^2=24.906$ n.s
	공·사기업체	67	25.4	53.7	17.9	1.5	1.5	
	농·어업 종사	40	25.0	30.0	32.5	7.5	5.0	
	서비스·자영업	110	14.5	48.2	28.2	7.3	1.8	
	전업주부·기타	93	15.1	39.8	31.2	6.5	7.5	
합 계		450	18.0%	46.9%	26.7%	5.3%	3.1%	

<부록 표 5-14> 교육기능 인식② (지역 인력양성·배출)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7	29.2	47.6	20.2	1.3	$\chi^2=3.111$ n.s
	가타시·군지역	217	0.9	25.8	53.9	17.1	2.3	
성	남	230	1.7	29.6	50.0	17.8	0.9	$\chi^2=3.673$ n.s
	여	220	0.9	25.5	51.4	19.5	2.7	
연령	20대	83	2.4	20.5	51.8	22.9	2.4	$\chi^2=14.881$ n.s
	30대	159	-	31.4	46.5	20.8	1.3	
	40대	160	1.9	25.0	56.9	13.8	2.5	
	50대 이상	48	2.1	35.4	41.7	20.8	-	
학력	고졸 이하	98	1.0	27.6	63.3	8.2	-	$\chi^2=18.042$ p<.021
	2년제대학졸	126	0.8	22.2	52.4	23.0	1.6	
	대졸 이상	226	1.8	30.5	44.2	20.8	2.7	
직업	공무원(교사)	140	1.4	20.0	55.0	22.1	1.4	$\chi^2=23.338$ n.s
	공·사기업체	67	-	41.8	44.8	11.9	1.5	
	농·어업 종사	40	2.5	20.0	65.0	12.5	-	
	서비스·자영업	110	0.9	33.6	48.2	15.5	1.8	
	전업주부·기타	93	2.2	24.7	45.2	24.7	3.2	
합 계		450	1.3%	27.6%	50.7%	18.7%	1.8%	

<부록 표 5-15> 연구기능 인식①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역할)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0	21.0	48.9	22.7	4.3	$\chi^2=3.746$
	기타시·군지역	217	1.8	21.7	47.5	27.2	1.8	n.s
성	남	230	2.2	18.3	53.5	22.2	3.9	$\chi^2=7.284$
	여	220	2.7	24.5	42.7	27.7	2.3	n.s
연령	20대	83	2.4	15.7	51.8	27.7	2.4	$\chi^2=6.600$
	30대	159	1.3	20.8	47.8	26.4	3.8	
	40대	160	3.1	22.5	48.8	22.5	3.1	n.s
	50대 이상	48	4.2	29.2	41.7	22.9	2.1	
학력	고졸 이하	98	6.1	24.5	49.0	19.4	1.0	$\chi^2=13.404$
	2년제대학졸	126	0.8	18.3	46.0	31.0	4.0	
	대졸 이상	226	1.8	21.7	49.1	23.9	3.5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0.7	20.0	48.6	27.9	2.9	$\chi^2=20.992$
	공·사기업체	67	3.0	17.9	58.2	13.4	7.5	
	농·어업 종사	40	2.5	22.5	40.0	30.0	5.0	
	서비스·자영업	110	3.6	21.8	50.9	20.9	2.7	
	전업주부·기타	93	3.2	24.7	40.9	31.2	-	
합계		450	2.4%	21.3%	48.2%	24.9%	3.1%	

<부록 표 5-16> 연구기능 인식② (지역 현안문제 해결)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1.7	16.7	45.9	29.6	6.0	$\chi^2= 3.128$
	기타시·군지역	217	1.8	12.9	47.5	34.1	3.7	n.s
성	남	230	1.7	13.9	45.2	32.6	6.5	$\chi^2=3.184$
	여	220	1.8	15.9	48.2	30.9	3.2	n.s
연령	20대	83	-	6.0	57.8	32.5	3.6	$\chi^2=23.894$
	30대	159	1.9	11.3	46.5	37.1	3.1	
	40대	160	1.9	20.6	41.3	29.4	6.9	p<.021
	50대 이상	48	4.2	22.9	45.8	20.8	6.3	
학력	고졸 이하	98	4.1	18.4	45.9	29.6	2.0	$\chi^2=13.296$
	2년제대학졸	126	-	13.5	42.9	34.9	8.7	
	대졸 이상	226	1.8	14.2	49.1	31.0	4.0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1.4	13.6	50.0	30.7	4.3	$\chi^2=9.669$
	공·사기업체	67	1.5	14.9	40.3	38.8	4.5	
	농·어업 종사	40	2.5	10.0	42.5	40.0	5.0	
	서비스·자영업	110	2.7	20.0	46.4	27.3	3.6	
	전업주부·기타	93	1.1	12.9	48.4	30.1	7.5	
합계		450	1.8%	14.9%	46.7%	31.8%	4.9%	

<부록 표 5-17> 사회봉사기능 인식① (대학자원의 개방과 평생교육 제공)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2.1	24.0	40.8	30.0	3.0	$\chi^2=1.449$
	가타시·군지역	217	2.3	19.8	45.2	30.0	2.8	ns
성	남	230	1.7	17.4	43.0	35.2	2.6	$\chi^2=9.435$
	여	220	2.7	26.8	42.7	24.5	3.2	p<.051
연령	20대	83	2.4	24.1	44.6	25.3	3.6	$\chi^2=11.343$
	30대	159	1.3	17.6	44.7	34.0	2.5	
	40대	160	1.9	23.8	40.0	31.9	2.5	ns
	50대 이상	48	6.3	27.1	43.8	18.8	4.2	
학력	고졸 이하	98	4.1	26.5	40.8	24.5	4.1	$\chi^2=12.083$
	2년제대학졸	126	0.8	25.4	40.5	28.6	4.8	
	대졸 이상	226	2.2	18.1	45.1	33.2	1.3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	21.4	42.9	33.6	2.1	$\chi^2=30.615$ p<.015
	공·사기업체	67	4.5	23.9	40.3	31.3	-	
	농·어업 종사	40	5.0	10.0	45.0	32.5	7.5	
	서비스·자영업	110	1.8	33.6	40.0	22.7	1.8	
	전업주부·기타	93	3.2	12.9	47.3	31.2	5.4	
합계		450	2.2%	22.0%	42.9%	30.0%	2.9%	

<부록 표 5-18> 사회봉사기능 인식② (지역사회봉사 활동)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4.3	21.9	44.2	24.9	4.7	$\chi^2=7.729$
	가타시·군지역	217	0.9	17.5	44.7	30.4	6.5	ns
성	남	230	2.6	18.7	43.9	27.4	7.4	$\chi^2=3.173$
	여	220	2.7	20.9	45.0	27.7	3.6	ns
연령	20대	83	2.4	20.5	45.8	24.1	7.2	$\chi^2=14.574$
	30대	159	1.9	15.1	49.1	28.3	5.7	
	40대	160	1.9	22.5	42.5	29.4	3.8	ns
	50대 이상	48	8.3	25.0	33.3	25.0	8.3	
학력	고졸 이하	98	7.1	24.5	33.7	29.6	5.1	$\chi^2=20.649$
	2년제대학졸	126	-	15.1	46.8	29.4	8.7	
	대졸 이상	226	2.2	20.4	47.8	25.7	4.0	p<.008
직업	공무원(교사)	140	0.7	22.9	43.6	28.6	4.3	$\chi^2=17.007$ ns
	공·사기업체	67	1.5	13.4	46.3	34.3	4.5	
	농·어업 종사	40	5.0	20.0	35.0	30.0	10.0	
	서비스·자영업	110	3.6	23.6	49.1	19.1	4.5	
	전업주부·기타	93	4.3	15.1	43.0	30.1	7.5	
합계		450	2.7%	19.8%	44.4%	27.6%	5.6%	

<부록 표 5-19> 사회봉사기능 인식③ (지역사회와 교류협력)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0	25.8	49.8	19.7	1.7	$\chi^2=1.772$
	기타시·군지역	217	2.8	21.7	53.9	20.7	0.9	ns
성	남	230	3.0	23.5	48.3	23.9	1.3	$\chi^2=4.353$
	여	220	2.7	24.1	55.5	16.4	1.4	ns
연령	20대	83	2.4	19.3	62.7	14.5	1.2	$\chi^2=10.439$
	30대	159	1.9	23.9	50.9	22.6	0.6	
	40대	160	3.1	23.8	50.0	21.3	1.9	ns
	50대 이상	48	6.3	31.3	41.7	18.8	2.1	
학력	고졸 이하	98	7.1	28.6	42.9	19.4	2.0	$\chi^2=14.918$
	2년제대학졸	126	0.8	20.6	54.0	22.2	2.4	
	대졸 이상	226	2.2	23.5	54.4	19.5	0.4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3.6	23.6	47.1	23.6	2.1	$\chi^2=14.928$
	공·사기업체	67	1.5	25.4	58.2	14.9	-	
	농·어업 종사	40	7.5	25.0	42.5	22.5	2.5	
	서비스·자영업	110	2.7	28.2	51.8	16.4	0.9	
	전업주부·기타	93	1.1	17.2	58.1	22.6	1.1	
합계		450	2.9%	23.8%	51.8%	20.2%	1.3%	

<부록 표 5-20> 경제적 효과① (지역산업 촉진과 고용 증가)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9	23.6	37.8	29.6	5.2	$\chi^2=1.301$
	기타시·군지역	217	2.8	26.3	39.6	27.2	4.1	ns
성	남	230	3.9	24.3	37.0	30.4	4.3	$\chi^2=1.643$
	여	220	2.7	25.5	40.5	26.4	5.0	ns
연령	20대	83	3.6	19.3	36.1	33.7	7.2	$\chi^2=18.540$
	30대	159	1.3	25.2	39.0	28.3	6.3	
	40대	160	3.1	25.6	42.5	26.3	2.5	ns
	50대 이상	48	10.4	31.3	29.2	27.1	2.1	
학력	고졸 이하	98	5.1	27.6	44.9	18.4	4.1	$\chi^2=8.794$
	2년제대학졸	126	2.4	25.4	39.7	28.6	4.0	
	대졸 이상	226	3.1	23.5	35.4	32.7	5.3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0.7	18.6	39.3	36.4	5.0	$\chi^2=29.101$ $p<.023$
	공·사기업체	67	7.5	32.8	35.8	20.9	3.0	
	농·어업 종사	40	7.5	30.0	32.5	22.5	7.5	
	서비스·자영업	110	2.7	28.2	46.4	20.9	1.8	
	전업주부·기타	93	3.2	22.6	33.3	33.3	7.5	
합계		450	3.3%	24.9%	38.7%	28.4%	4.7%	

<부록 표 5-21> 경제적 효과② (교육비 부담 감소 및 소득증대)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8.6	34.3	36.9	14.6	5.6	$\chi^2=11.315$ p<.023
	기타시·군지역	217	6.0	33.6	28.1	26.3	6.0	
성	남	230	7.4	37.0	30.4	19.6	5.7	$\chi^2=2.042$ n.s
	여	220	7.3	30.9	35.0	20.9	5.9	
연령	20대	83	3.6	25.3	38.6	26.5	6.0	$\chi^2=46.362$ p<.000
	30대	159	4.4	32.1	31.4	27.0	5.0	
	40대	160	6.9	38.1	35.6	11.9	7.5	
	50대 이상	48	25.0	41.7	16.7	14.6	2.1	
학력	고졸 이하	98	10.2	36.7	27.6	18.4	7.1	$\chi^2=8.140$ n.s
	2년제대학졸	126	7.1	28.6	36.5	24.6	3.2	
	대졸 이상	226	6.2	35.8	32.7	18.6	6.6	
직업	공무원(교사)	140	5.0	34.3	35.7	22.1	2.9	$\chi^2=17.038$ n.s
	공·사기업체	67	6.0	40.3	28.4	20.9	4.5	
	농·어업 종사	40	15.0	30.0	22.5	20.0	12.5	
	서비스·자영업	110	7.3	37.3	32.7	17.3	5.5	
	전업주부·기타	93	8.6	26.9	35.5	20.4	8.6	
합계		450	7.3%	34.0%	32.7%	20.2%	5.8%	

<부록 표 5-22> 경제적 효과③ (소비지출 증대와 지역경제 확대)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4.3	26.6	42.1	24.9	2.1	$\chi^2=9.389$ n.s
	기타시·군지역	217	3.2	16.1	52.1	24.9	3.7	
성	남	230	4.3	22.2	45.2	25.7	2.6	$\chi^2=1.006$ n.s
	여	220	3.2	20.9	48.6	24.1	3.2	
연령	20대	83	2.4	16.9	50.6	24.1	6.0	$\chi^2=12.582$ n.s
	30대	159	2.5	20.1	47.2	28.3	1.9	
	40대	160	4.4	25.6	44.4	22.5	3.1	
	50대 이상	48	8.3	20.8	47.9	22.9	-	
학력	고졸 이하	98	4.1	16.3	53.1	23.5	3.1	$\chi^2=4.555$ n.s
	2년제대학졸	126	3.2	19.8	46.8	27.8	2.4	
	대졸 이상	226	4.0	24.8	44.2	23.9	3.1	
직업	공무원(교사)	140	2.1	24.3	42.9	27.1	3.6	$\chi^2=9.791$ n.s
	공·사기업체	67	6.0	23.9	46.3	22.4	1.5	
	농·어업 종사	40	5.0	20.0	50.0	25.0	-	
	서비스·자영업	110	4.5	20.0	47.3	26.4	1.8	
	전업주부·기타	93	3.2	18.3	51.6	21.5	5.4	
합계		450	3.8%	21.6%	46.9%	24.9%	2.9%	

<부록 표 5-23> 경제적 효과④ (지역인구 정착 및 인구유입)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9	27.0	40.3	21.5	7.3	$\chi^2=9.886$ p<.042
	기타시·군지역	217	3.7	18.9	40.1	32.7	4.6	
성	남	230	2.6	25.2	39.1	28.7	4.3	$\chi^2=5.456$ n.s
	여	220	5.0	20.9	41.4	25.0	7.7	
연령	20대	83	7.2	20.5	36.1	26.5	9.6	$\chi^2=13.038$ n.s
	30대	159	2.5	21.4	39.0	32.1	5.0	
	40대	160	3.1	23.1	43.8	25.0	5.0	
	50대 이상	48	4.2	33.3	39.6	16.7	6.3	
학력	고졸 이하	98	4.1	28.6	38.8	24.5	4.1	$\chi^2=5.894$ n.s
	2년제대학졸	126	4.0	22.2	34.9	31.0	7.9	
	대졸 이상	226	3.5	21.2	43.8	25.7	5.8	
직업	공무원(교사)	140	1.4	22.1	39.3	31.4	5.7	$\chi^2=12.012$ n.s
	공·사기업체	67	3.0	22.4	40.3	28.4	6.0	
	농·어업 종사	40	2.5	30.0	40.0	25.0	2.5	
	서비스·자영업	110	5.5	22.7	36.4	27.3	8.2	
	전업주부·기타	93	6.5	22.6	46.2	19.4	5.4	
합 계		450	3.8%	23.1%	40.2%	26.9%	6.0%	

<부록 표 5-24> 사회 문화적 효과① (지역주민 자부심과 지역 이미지 제고)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7.3	29.2	37.3	22.7	3.4	$\chi^2=5.758$ n.s
	기타시·군지역	217	5.1	28.1	47.0	18.0	1.8	
성	남	230	3.5	29.6	44.3	20.0	2.6	$\chi^2=6.494$ n.s
	여	220	9.1	27.7	39.5	20.9	2.7	
연령	20대	83	7.2	26.5	36.1	26.5	3.6	$\chi^2=9.945$ n.s
	30대	159	3.8	27.0	44.7	22.0	2.5	
	40대	160	7.5	28.8	43.1	17.5	3.1	
	50대 이상	48	8.3	37.5	39.6	14.6	-	
학력	고졸 이하	98	8.2	35.7	42.9	12.2	1.0	$\chi^2=14.193$ n.s
	2년제대학졸	126	7.9	27.8	42.1	21.4	0.8	
	대졸 이상	226	4.4	26.1	41.6	23.5	4.4	
직업	공무원(교사)	140	4.3	23.6	44.3	25.0	2.9	$\chi^2=13.314$ n.s
	공·사기업체	67	6.0	35.8	38.8	17.9	1.5	
	농·어업 종사	40	7.5	32.5	45.0	15.0	-	
	서비스·자영업	110	10.8	28.2	44.5	20.0	2.7	
	전업주부·기타	93	10.8	30.1	36.6	18.3	4.3	
합 계		450	6.2%	28.7%	42.0%	20.4%	2.7%	

<부록 표 5-25> 사회 문화적 효과②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3.0	20.6	47.2	27.0	2.1	$\chi^2=1.100$
	기타시·군지역	217	2.8	20.3	45.2	28.1	3.7	ns
성	남	230	3.5	17.8	45.7	31.3	1.7	$\chi^2=6.728$
	여	220	2.3	23.2	46.8	23.6	4.1	ns
연령	20대	83	2.4	20.5	56.6	15.7	4.8	$\chi^2=14.580$
	30대	159	2.5	15.7	46.5	32.7	2.5	
	40대	160	3.1	22.5	43.1	28.8	2.5	ns
	50대 이상	48	4.2	29.2	37.5	27.1	2.1	
학력	고졸 이하	98	2.0	24.5	44.9	24.5	4.1	$\chi^2=3.793$
	2년제대학졸	126	2.4	20.6	43.7	30.2	3.2	
	대졸 이상	226	3.5	18.6	48.2	27.4	2.2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2.1	16.4	51.4	27.9	2.1	$\chi^2=15.371$
	공·사기업체	67	4.5	16.4	44.8	34.3	-	
	농·어업 종사	40	5.0	25.0	35.0	30.0	5.0	
	서비스·자영업	110	2.7	25.5	48.2	20.9	2.7	
	전업주부·기타	93	2.2	21.5	41.9	29.0	5.4	
합계		450	2.9%	20.4%	46.2%	27.6%	2.9%	

<부록 표 5-26> 사회 문화적 효과③ (교육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교육열 자극)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2.1	27.5	41.2	26.6	2.6	$\chi^2=1.834$
	기타시·군지역	217	3.2	23.5	45.6	24.9	2.8	ns
성	남	230	3.0	27.8	40.9	25.7	2.6	$\chi^2=1.867$
	여	220	2.3	23.2	45.9	25.9	2.7	ns
연령	20대	83	3.6	25.3	45.8	24.1	1.2	$\chi^2=17.303$
	30대	159	1.3	19.5	48.7	25.8	3.8	
	40대	160	2.5	27.5	40.0	28.1	1.9	ns
	50대 이상	48	6.3	39.6	29.2	20.8	4.2	
학력	고졸 이하	98	3.1	32.7	46.9	15.3	2.0	$\chi^2=11.584$
	2년제대학졸	126	0.8	23.0	46.0	27.8	2.4	
	대졸 이상	226	3.5	23.9	40.3	29.2	3.1	ns
직업	공무원(교사)	140	0.7	25.7	47.1	23.6	2.9	$\chi^2=19.435$
	공·사기업체	67	4.5	25.4	49.3	17.9	3.0	
	농·어업 종사	40	5.0	32.5	32.5	30.0	-	
	서비스·자영업	110	1.8	30.9	40.9	23.6	2.7	
	전업주부·기타	93	4.3	16.1	40.9	35.5	3.2	
합계		450	2.7%	25.6%	43.3%	25.8%	2.7%	

<부록 표 5-27> 사회 문화적 효과④ (지역인력 수요충족 및 지역혁신 촉진)

집단·변인		전체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 석
거주지	제주시	233	2.1	19.7	41.6	28.3	8.2	$\chi^2=1.542$
	기타시·군지역	217	1.8	18.9	45.2	28.6	5.5	n.s
성	남	230	2.6	20.9	41.7	28.7	6.1	$\chi^2=2.171$
	여	220	1.4	17.7	45.0	28.2	7.7	n.s
연령	20대	83	2.4	18.1	37.3	34.9	7.2	$\chi^2=11.072$
	30대	159	0.6	16.4	47.8	29.6	5.7	
	40대	160	2.5	20.0	43.8	26.3	7.5	n.s
	50대 이상	48	4.2	29.2	37.5	20.8	8.3	
학력	고졸 이하	98	2.0	25.5	42.9	25.5	4.1	$\chi^2=12.924$
	2년제대학졸	126	-	15.1	49.2	31.0	4.8	n.s
	대졸 이상	226	3.1	19.0	40.3	28.3	9.3	
직업	공무원(교사)	140	1.4	14.3	43.6	32.9	7.9	$\chi^2=14.584$
	공·사기업체	67	1.5	29.9	37.3	23.9	7.5	
	농·어업 종사	40	5.0	22.5	45.0	20.0	7.5	
	서비스·자영업	110	0.9	20.9	46.4	27.3	4.5	
	전업주부·기타	93	3.2	16.1	43.0	30.1	7.5	
합계		450	2.0%	19.3%	43.3%	28.4%	6.9%	



【부록 5】 대학역할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공통 분야 ; 9건>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국제교류 및 타 지역 대학간 교류 활성화가 절실하다.
- 현재의 종합대학 체제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대학으로 나가야 한다.(3건)
- 대학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공격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2건)
- 대학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 대학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
- 대학의 미래가 국제관광도시에 부응하는 세계적 대학인지, 아니면 제주의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적 대학인지에 관한 대학의 역할 정립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교육기능 확충 ; 27건>

- 우수 교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5건)
- 장학제도 개선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촉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건)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인재육성을 위하여(3건) 대학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1건)
- 외국어교육 및 관광관련학과, 상품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 졸업 후 취업(생업 종사)할 수 있는 학과를 발굴하고, 정원미달 학과를 대폭 개편(폐과 등)해야 한다.(2건)
- 졸업생들이 전공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제주특성에 맞는 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2건)
- 특정분야(학과)를 집중 육성하여 배출해야 한다.
-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2건)
- 최근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쟁력 없는 학과를 과감하게 폐과하여 교육수요가 있는 분야의 학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 고급인력 양성보다는 학생정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학과 개편 등 취업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제주지역의 썩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이 아쉽다.
- 육지부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하다.(2건)
- 도내는 물론 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연구기능 강화 ; 18건>

- 교수 전공학문 분야별 산학연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 관광산업 육성, 감귤 등의 1차 산업,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등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적 기술·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 전통문화와 청정환경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2건)

- 교수들의 전문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이 부족하다(3건)
- 교수진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수 확보가 시급하다(3건)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다.
- 4면의 바다로 둘러 쌓인 입지적 특성을 살려 최첨단 해양연구센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지역현안과 이슈,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주의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3건)
- 지역정책의 연구개발과 문제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3건)

<사회봉사기능 확대 ; 25건>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2건),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비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3건)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행사, 강좌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하다.(4건)
- 도민의 문화적 질을 높이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2건)
-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 제주의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3건)
-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5건)
-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단체와 산업체와 우호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2건)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결정시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미흡하다.(2건)
- 대학이 보유한 교육 및 문화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자유기술 79건)

